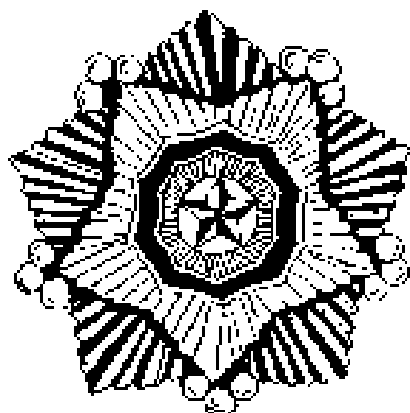




10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10호

(루계 제 768 호)

차 례

그대 심장의 고동소리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화디엔(화전)의 가을밤	4
조국은 아득히 멀어져도...	5
장군님 따라서는 이 마음속에	5
미곡벌의 가을아	6
주체문학의 대강	7
몸소 고쳐주신 가사	7
약동하는 계절	8
당의 그 품은	15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17
추억에 대한 생각	21
추억이 아름다우려면	22
그때처럼...	23
우리의 추억은 아름답다	24
전선길에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의 형상	25
내 녀의 어머니	29
상봉	30

높아가는 집	39
어머니의 당원증	41
숫구치라	41
천년만년앞에 오늘이 있다	42
병사의 휘파람	42
땀과 콘크리트	42
불보라 꽃보라	42
비날론	43
나의 복순이	51
책임	52
봄, 여름, 가을...	63
선군 10 경 새 풍경	64
컴퓨터화면앞에서 지켜야 할 건강관리상식 몇가지	64
지향	65
실고가다오 실고와다오	74
여기도 내 고향이다	74
하얀 목수건	75
부부사이의 언어레절	75
복수하리라	76
조국해방전쟁과 시인 김복원	76
미철과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78

그대 심장의 고동소리

한 원 희

그대가 항시 나를 품에 안고있기에
그대의 품에 불을 대이고
나는 듣는다
나를 위해 쉬임없이 뛰고뛰는
그대 심장의 고동소리

자나깨나 그대의 품에 안겨
밤에도 낮에도 나는 듣는다
한없는 사랑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대 심장의 박동소리

어찌 들으면
나를 고이 품어 잠재우는 자장가와 같이
어찌 들으면
위훈으로 부르는 북소리와 같이
이 가슴을 울려주는 그 소리

그러면 나의 작은 심장도
행복에 겨워 따라편다
그대 부르는 그 길우에
불바다만리가 놓여있어도
단숨에 날아넘을 신심에 넘친다

마치 심장의 고동소리로 묻고 대답하듯
서로 주고받는 심장의 목소린듯
그대의 크나큰 심장 한번 고동치면
나의 심장도 따라서 고동친다

내 귀밑머리 희여지도록
그대의 심장을 따라뛰었기에
나의 심장도 그대의 심장을 닮았다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오는
그대 심장의 거세찬 불길
그것이 내 심장에 옮겨와 불타고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붉은기 높이 든
그대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었다
온 나라의 신념이 되었다

핵전쟁의 검은구름 몰아오는
침략의 무리를 쓸어버릴
무적필승의 기상 엄엄한 천리방선
우리의 만년대계창조물
산악같은 언제가 치솟는 발전소건설장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나는 듣는다
그대의 뜨거운 숨결
그대의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

CNC기계바다 펼쳐진 공장들과
대야금기지와 비날론공업지구
오곡백과 주렁진 사회주의농장별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내 나라 그 어디에나 메아리친다
그대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소리

그 힘차고 성스러운 박동에 맞추어
시각마다 거창한 전변이 태동하는
이 땅의 분분초초가 흐르고
비약의 나래 펼친 날과 날을 이룬다
선군조선의 빛나는 세월을 낳는다

그 억세고 존엄높은 박동에 맞추어
해가 뜨고 별이 솟고 달이 솟는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우짖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강성대국의 눈부신 모습이 솟아오른다

아, 당이어
위대한 그대의 심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
천만군민을 안아 참되게 키우는 그대의 품은
어버이장군님의 품

그 사랑 그 불멸의 위업을 꽃피워가기에
그대는 천하를 얻고 천하를 이끌도다
아, 백승을 떨치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당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ㄷ. 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래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왔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화디엔(화전)의 가을밤

문 동 식

밤

화디엔(화전)의 가을밤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건만

쭈정이마저 다 빼앗긴 우리 겨레들

눈물젖은 바닥에 잠들어버린 밤

하지만 그밤

잠 못드시는분이 계시었다

난알도 자유도 권리도 다 잃은 그 가을날에

크고 귀중한 열매를 거두신

감격과 희열에 가슴 울렁거려

깊어가는 한밤마저 잊으신분

그분은 바로

10대의 우리 수령님

오래도록 심장속에 지퍼오신 불길로

온 세상 암흑을 불태워버리시려

그이께선 10월 17일 그 가을밤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셨거니

그이는 그밤

얼마나 크나큰 걱정을 터치셨던가

후이파하(휘발하)강기슭에서 열혈동지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시며

비장한 맹세도 굳게 다지시며

그밤 가슴속에 파도치는

환희의 바다에 리상의 나래 펴고

열정에 불타시는 우리 수령님

그이는 벌써 듣고계시었다

《ㄷ. ㄷ》가 내뿜는 멸적의 열화에
천지를 진동하는 해방의 봄우뢰소리

그이는 그밤 보고계시었다

눈석이대하의 격랑에

쨍쨍 깨어지는 얼음장처럼

제국주의아성들이 무너지는것을

력사의 온갖 쓰레기들을

혁명의 대하가 휩쓸어가는것을

《ㄷ. ㄷ》의 그 이름속엔

조선의 맑고푸른 하늘이 열려있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뿌리고

공장과 광산 농촌과 전야마다

철채를 풀어던진 해방의 환호성

풍작의 오탁백과 물결치고있었거니

그 가을밤부터 지나긴 세월

겨레의 가슴마다에

《ㄷ. ㄷ》의 불씨를 심어 가꾸시어

짓밟히던 인민들이 주인된 세상

사회주의락원을 이 땅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 그이는 오늘도

《ㄷ. ㄷ》의 불멸의 그 열매를

온 누리에 뿌려 가꾸고계시여라

그날 그밤에 높이 추켜드신 《ㄷ. ㄷ》의 기치

자주의 봄노을로 펼쳐가고계시여라

조국은 아득히 멀어져도...

리 연 희

두만강
조국의 기슭을 떠나
펼차는 아득히 멀어져도
정녕 떠나지 않으신 마음이었네

광활한 로씨야의 대지
환영의 꽃물결 헤가르며 하싼으로 부레야로
아,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안고가신 내 조국

가도가도 가없는 천리수해
허나 차창엔 달려어오는 조국의 산과 들
그이 미소어린 눈빛엔 비껴오고있었다
비약의 열풍으로 들끓는 공장의 구내길과 건설장
성실하고 미더운 그 모습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천리
정깊은 인민을 위해 또 천리
오늘은 로씨야의 대지에 그 자욱 이어가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솟아오르지 않았더냐
화려하게 일떠서는 수도의 만수대지구
드디어 마지막충막을 엮는 살림집들

8월의 폭양속에
대장정의 행군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그이의 로고에 받들려
이 땅의 백리파원엔 열매들 더 붉게붉게 익고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더욱 뜨겁게 메아리치는것 아니라

조국을 떠나 멀리 펼차는 멀어져도
더 많이 더 빨리
우리의 비날론이 쏟아지는 소리
우리의 주체철이 폭포치는 소리
폭풍치며 내달리는 조국의 숨결
우리 장군님 더 가까이 안고가시었나니

조국을 떠나 멀리
멀리서도 가까이
더 가까이 안아주신 그이의 마음
아버이 그 정에 받들려
더 높이 비약하며 달리는 조국

힘차게 달리는 펼차의 기적소리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조국의 발구름을 실었는가
이 세상에 우뚝
내 나라를 기어이 강성국가로 일떠세우실
장군님의 위대한 그 품에 안기여
조국은 달리고있었다

장군님 따라서는 이 마음속에

변 홍 영

내 마음속에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보는
머나먼 원동 그리고 씨비리
낮설은 이웃나라 땅이건만
이 가슴에 정답게 안겨오는 교장아

벽에 걸린 세계지도앞에서
광활한 로씨야
장군님 가시는 그 교장들을 짚어본다
국경역 하싼으로부터
아무르주 부랴찌야공화국...

끝없이 설레이며 파도치는

흙모의 꽃물결
가시는 곳마다
장군님 우리러 터쳐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을 이 가슴에 안아본다

정초의 숫눈길에 떠나시여
이해에도 동서천리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고찾으며
강성국가건설의 강행군길을
쉽없이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

찌물쿠는 무더위속에
국경넘어 수만리

격변하는 이 세기를 안으시고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서는 이 마음
불시에 목이 메이고 눈앞이 흐려오누나

아,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그 마음 뜨거우시면
불별이 쏟아지는 이 한여름철에
그처럼 헌신장정의 천만리길을
먼 이역땅으로 이어가시는것이라

가시는 그 길이 멀어질수록
더더욱 사무쳐오는
두고온 조국생각
못 잊을 인민생각
장군님은 이 시각도
우리의 무궁번영할 태일을 설계하시려니

나는 본다
우리 장군님 가시는 그 길에

창창히 열리어오는
친선과 평화의 푸른 하늘을
그 하늘아래 자주화로 꽃필
이 행성의 찬란한 미래를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
그이와 한시도 떨어져선 못살
우리 인민이기에
이 세상 끝이라도 장군님만을 따라설
온 나라 마음이기에

장군님 가고가시는
머나먼 원동 그리고 씨비리
한번도 밟아 못 본 이웃나라 땅이건만
그리도 가까이
그리도 정답게
이 가슴속에 솟아오르는것이로구나

미곡벌의 가을아

김 창 호

아, 하늘도 땅도
온통 이삭빛으로 물들어
불수록 흐뭇한 미곡벌의 가을아
벼종합수확기 몰아 벼바다 누벼가니
조국의 바다지켜 격량을 날아넘던
해병시절 그때처럼 가슴 한껏 넓어지누나

바라봐도 둘러봐도
알찬 이삭 설레이는 벼바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것이나
네가 나를 한품에 안았느냐
선경으로 뚝뚝 떠받들어올린것이나

장판이로다
벼바다 헤가르며 내달리는 벼종합수확기
사나운 파도도 나래쳐넘던
나의 근위어뢰정대 그 번개침은 아니냐
옷설에 발목에 어리광치듯 감겨도는 벼이삭은
휘휘칭칭 휘젓는 열두발상모춤은 아닌가

이 풍경이여라
12월의 흰눈덮인 벌에 오시여
지금도 멋있지만 황금이삭 물결치고

아담한 살림집 마주선 가을은
참으로 황홀할것이라고 하시며
그날의 장군님 그해보시던 선경중의 선경

또 한배미 수확을 마친 기쁨
구수한 가을바람 부채질도 멋이로다
허나 목메인다 눈시울 뜨겁구나
인민의 기쁨이 열매로 주렁진 가을을 펼치시고도
더 큰 행복을 마련하시려 현지지도의 길 걸으시는
장군님 그 영상 못 전디게 어려와

삼가 옷깃 여미며
둘격침로의 그 시각처럼 우러르노라
온 나라 농장벌 마지막이랑까지
마음에 안으시고 정을 다해 가꾸시는 장군님
이 시각에 또 그 어느 농장길을 걸으시는지

아, 강성대국문패와 더불어 영원할 올해
또다시 온 나라에 장훈을 부를 미곡벌의 가을아
이 풍경 이 향기로
수령님 후손들의 본때 또다시 펼치리
미곡벌의 벼바다항로에서도
해병은 격량을 날아넘어 번개쳐가리

주체문학의 대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과 건국, 건군사업,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 조국통일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다 우리 당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령도자와 작가

몸소 고쳐주신 가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입에 인차 오르게 되어야 하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게 되어야 한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력사적인 첫 공연을 며칠 앞둔 주체60(1971)년 7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시고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가극의 낱은 틀을 마스고 우리 식 가극을 창조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부 노래들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던 그이께서는 가극의 제2장 2경에 나오는 노래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의 선율이 유순하다고, 그런데 가사는 일부 고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노래에 아직 대화창의 흔적이 남아있다는것은 누구도 모르고있었다. 그 원인은 노래의 2절가사가 잘못되는데 있었다.

가극대본을 다시한번 들여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기슭의 모래알은 차던질수 있지만》이라는 가사는 지나치게 다닥다닥하고 표현이 어색하며 어느 배우가 노래를 불러도 유순하게 부를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가사 《강기슭의 모래알은 차던질수 있지만》을 《강기슭의 모래알은 흘러지어도》로, 《산기슭의 바위는 움직이지 못하리》는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로 고쳐주시였다.

이렇게 가사를 고쳐놓으니 노래가 편이여 부르기도 좋고 내용도 정확히 전달되었다.

노래 제1절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리》라고 4·3체로 쓰고 제2절은 《강기슭의 모래알은 차던질수 있지만/산기슭의 바위는 움직이지 못하리》라고 4·4체로 써놓으니 제2절의 가사는 선율과 맞지 않아 대화창처럼 더듬어야 하였던것이다.

제2절을 제1절의 가사처럼 《강기슭의 모래알은 흘러지어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라고 4·3체로 고쳐놓으니 가사가 시적으로 함축되었을뿐만아니라 선율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노래가 유순하게 흘러갔다.

주체60(1971)년 12월 어느날이였다.

혁명가극 《피바다》가 창조되어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5달이 되었던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시여 가극의 형상수준을 최상의 높이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2장 2경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공작원이 부르는 노래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은 단결에 대한 노래이므로 공작원이 혼자 불러서는 의의가 없다고, 공작원은 제1절과 제2절 앞부분까지 부르고 그 뒤부분은 남성방창으로 받아줄데 대해서와 방창이 끝난 다음에는 저대독주를 하지 말고 소방창으로 노래를 한번 더 받아주어 어머니가 공작원의 말을 되새기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이 장면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인상깊은 명장면으로 완성되었다.



김진경

1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재글재글 뛰약별이 내리쪼이는 산골길로 달리고있었다. 동해지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친길로 2천여리길을 달려 이곳 도소재지에 도착하신 장군님께서도 오늘도 새벽부터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었다.

상평광산을 나서시었을 때는 점심시간이 펍 지났지만 내친김에 착암기공장을 가보자고 하시며 이렇게 100리나 떨어져있는 곳으로 가시는 길이다.

장군님의 심중은 무거우시었다. 강성대국건설투가 힘있게 벌어지면서 어디서나 필요한것이 착암기였다. 탄광, 광산은 물론 이제 시작하게 될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장과 물길공사장, 도로공사장들에서도 더 많은 착암기를 요구하고있다. 상평광산에서도 착암기 때문에 생산을 더 높이 추켜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광산을 떠나시기 앞서 도당책임일군인 김광원이 어줍어하며 조심스레 올리던 말을 상기하셨다.

《최선호동무가 정보시대의 요구에 당사업을 따라세우지 못하여 요즘 번민하는것 같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지식과 능력으로도 팔린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도 그의 이 말속에서 최선호의 고통에 공감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었다.

최선호로 말하면 착암기공장에서 30년나마 당비서로 일하고있는, 장군님께서도 알고계시는 일군이다.

장군님께서도 좌석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시었다.

(최선호... 그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였는가?)

홍안의 시절 그는 불덩어리같이 느껴지는 순박한 청년이었다. 흐르는 세월속에 모습이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끝이 찢히해지시었다. 왜서인지 김광원의 말이 불만스럽고 그의 립장이 서운하셨다.

인간의 정력이 나이에 정비례하는것만은 아니다. 마라손주로를 달리는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최대의 정신력을 발휘하듯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훌륭히 결속하려는 열망속에 하루하루를 값있게 보내려고 애쓰게 되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알고계시는 최선호는 자기 하나의 편안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가 구실을 못한다고 번민하게끔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장군님께서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시던 때의 일이 떠오르시었다.

1960년대말 아버지수령님께서도 착암기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시 광산기계공장 분공장이었던 이 공장을 찾아주시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도 함께 가시였었다.

공장은 건물도 몇채 안되었고 구내길엔 포장을 하지 않아 먼지가 일었다.

수령님께서도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교통이 편리한 여기에 착암기공장을 일떠세울 구상을 펼치시며 그 대책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의논하시었다. 그리고 현장에 들리시여 기대공들의 작업모습도 보아주시었다.

방금 가공직장을 나서시려 할 때였다. 조금전에 내린 소낙비로 하여 길바닥은 풀어진 팔죽처럼 되어버렸다. 그 길로 수령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

하니 장군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으시었다. 번덕스러운 날씨가 못내 민망스러우시었다.

이때였다. 멀리 않은 곳에 모래바게쓰를 든 한 청년이 나타났다. 잉겔볼같이 타는듯 한 그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어있었다. 청년의 뒤로 노동자들이 저저마다 바게쓰를 들고 뛰어오는것이였다.

길에는 은모래가 곱게 깔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청년의 소행이 무척 고맙게 여겨지시었다.

그후에도 순박해보이는 얼굴에 언덕이마가 인상적인 청년의 모습은 오래동안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장군님께서 그를 더 깊이 아시게 된것은 1970년대 중엽이였다.

그때 우리 혁명은 일대 고조기를 맞이하였고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발전하는 추세에 맞게 석탄생산을 앞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탄광으로 보내시었다. 그런데 탄광들에서 착암기때문에 탄을 제대로 캐지 못하고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문제는 착암기공장에 있었다. 공장에서는 최신형착암기를 많이 만들어 전국의 착암수들에게 한대씩 메워줄데 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새 착암기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계열생산하는 과정에 무리오작을 가져온것이였다. 오작은 허용수치를 조금 벗어나는것으로 하여 처음에는 눈에 잘 띄이지 않았지만 착암기를 만가동시키는 과정에 인차 고장이 나고 마모되어 쓸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착암기공장으로 된지 얼마 안되다보니 기술장비수준이 웅대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기능수준도 아직 어린데 있었다. 일군들이 이런것을 고려함이 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생산을 내민 후과였다.

장군님께서는 생각이 많으시었다. 공장일군들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당비서가 다름아닌 그 모래바게쓰를 들고 뛰어오던 청년임을 아시고서는 더욱 그러하시었다.

그의 발전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번 일을 잘해보겠다는 욕망이 리해도 되셨지만 주관적이며 무책임적인 사업태도만은 묵과할수 없으시었다.

그날 밤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을 뜨지 못하시었다. 요즘 석탄생산때문에 마음쓰시며 밤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시는 수령님 생각에 가슴이 아프시었다.

착암기만 있으면 석탄은 얼마든지 캐겠다는 제대군인들의 열기편 목소리도 들리는듯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창가로 다가가 문을 여시었다. 정원에서는 나무잎들이 설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청색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은하수에 씻기운듯 그지없이 깨끗해보이였다.

그 공장에 가셨을 때 만나보신 노동자들의 순박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시었다. 그들이 지금일을 저질러놓고 얼마나 속을 태우겠는가. 이제 첫발을 댈데 불과한 당비서의 경우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가 경험이 없어 사고는 났지만 수령님을 따르는 그 순결한 마음이야 어디로 가겠는가. 그 마음을 믿고 힘껏 떠밀어주고싶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여 공장을 추켜세울 방도를 모색하시었다.

전화소리가 울렸다. 수령님의 귀익은 음성 이 전류를 타고 흘러왔다.

《자정이 넘었소. 몸을 좀 돌봐야지.》

《전 괜찮습니다. 헌데 아직 주무시지 못하시고...》

《착암기때문에 두루 생각하던중이었소.》

수령님께서는 현현하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 동무들이 좀 덤벼친것 같소. ... 당비서가 젊은 동무인데 주눅이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만.

생각같아서는 그 공장에 한번 다녀오고싶소. 이번에 새 착암기를 만들어내걸 보면 열성들이 대단하거던. 잘 이끌어주면 훌륭한 착암기를 만들어 내리라고 보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었다. 그곳 로동계급에 대한 수령님의 변함없는 믿음앞에 마음이 훈훈해지시었다. 한결 밝은 음성으로 말씀드리셨다.

《수령님, 래일 아침 중앙의 책임일군을 공장에 내려보내자고 합니다. ...》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그후 그곳 당비서한테서 편지가 올라왔다. 자기 심정을 그대로 담은 소박한 편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죄스러운 마음 이룰데 없는데 이렇게 세상에 없는 사랑을 돌려주시니 하늘같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수 있단 말입니까.

불민한 저희들을 위해 직승기가 날고 또다시 강력한 기술집단과 함께 수많은 공작기계와 측정설비들, 끝끝한 제대군인들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종업원들은 신심에 넘쳐 일하고있습니다. 저 역시 힘이 납니다. 꼭 좋은 착암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몸이 한일 락엽이 되어 묻히는 순간까지 오

직 착암기생산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회억에서 깨어나시였다. 고개를 돌려 차창밖을 바라보시였다.

다가오는 벼랑코숭이에 억센 뿌리를 내린 한그루 로송이 정겹게 안겨오시였다. 그것은 애솔나무때의 푸르름을 잃지 앓을뿐더러 더 무성한 아지를 펼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최선희의 심정을 리해하고싶으시였다. 그가 시대의 락오자가 될것 같아 번민하고있지만 일군의 사명감을 안고 모대기는것은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모색하는것이 아닐가?

물론 경제사정은 아직 어렵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보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맡은 일을 창조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 알아야 한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는 여기에 착암기공업을 추켜세울수 있는 비결이 있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지름길이 있는것이다.

그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최선희가 뒤떨어지다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수령님을 받들어 한해에도 수만대의 착암기를 만들어내던 그 정신으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해야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어깨에 실리는 짐을 감촉하시였다. 최선희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시바삐 그를 만나고싶으시였다. 마음은 벌써 공장에 가계시였다.

2

정문안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확 밝아지시였다.

공장은 푸르청청한 숲에 싸여있었다. 쏟아지는 폭열속에서도 구내는 서늘하였고 공기도 청신한것이 알리였다.

오래전에 수령님을 모시고 오셨을 땐 버드나무 몇그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키높이 자란 나무들로 꽉 들어찼다. 그 나무들이 풍기는 싱싱하고 활기로운 기운에 심신이 거뜨해지며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것 같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속에서 최선희를 인차 알아보시였다.

순박해보이는 얼굴에 언덕이마는 예전 그대로이다. 다만 이마에 굵은 주름이 몇줄 건너가고 도수안경에 희석희석한 머리가 빠른 세월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처럼 안겨오시였다.

최선희는 땀뻘치 못한 일때문인지 두손을 맞잡

은채 송구스러워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랜지기를 만나신듯 허물없이 손을 잡아당겨 끌어주신다. 농사꾼처럼 손이 투박하고 찢찢하였다.

《일을 많이 했구만. ... 여기 오니 꼭 수림속에 들어온 기분이요. 그야말로 공원속의 공장이라고 말할수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곁에 세우시고 구내길을 걸으시였다.

길 양옆의 나무들이 한데 엉키여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잣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등이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혼성림을 이루었는데 우듬지엔 잣송이가 조롱조롱 달리고 아지마다 빨간 찹광이열매며 노랗게 익어가는 돌배알들이 손끝에 닿도록 달려 호뜻한 정서를 자아낸다. 여기저기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가공직장앞으로는 키 큰 떨기나무들이 줄지어서 이채로운 광경을 펼쳐놓고있었다. 여기 북부내륙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홍매나무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홍매나무를 떠다 심었구만. 꽃이 참 아름답지. 봄이면 구내가 환해지겠는걸...

누가 이런 생각을 했소?》

곁에 있던 김광원이 말씀드리였다.

《저- 수십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뒤 여기 당비서동무가 남포에 가서 떠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비서동무는 선반공이였습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에 그득히 차오르는 정을 느끼시였다.

공장에서 남포까지는 천리길이다. 꽃나무를 옮겨심자고 그 먼곳을 다녀온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고 뜨거운것인가.

그러고보면 구내의 숲은 그대로 최선희의 한생이였다. 바늘귀같은 짝이 거목으로 자라고 이렇게 무성한 숲을 이룰 때까지 여기에 바쳐진 인간의 정성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정갈하게 포장한 구내길이며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안겨오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최선희의 심장속에 맥박치고있는것이 그대로 감득되시였다.

그를 위해주고 내세워주고싶으신 강렬한 충동이 드시였다.

한편 최선희는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르르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있었다. 장군님의 땀에 젖은 옷깃을 보았던것이다.

지금 이 어느때인가. 무쇠도 옛가락처럼 녹아 내린다는 무더운 삼복철, 남들은 피서지를 찾아가련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끊임없는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쓰게 못하여 장군님의 어깨에 짐을 더해드린다고 생각하니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듯 한 가슴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를 바라보는 도당책임일군의 눈빛도 마주보기 어려웠다. 무엇인가 질책하는듯 한 예리한 눈빛이다. 짐작되는바가 있었다. 장군님께 착암기 공장실패와 함께 당비서가 번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것이다.

이것이 장군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리라는 것을 최선호는 모르지 않았다. 가뜰이나 자격지심으로 안절부절하던 그는 죄의식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지난번 도내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비판을 받던 일이 되살아났다.

회의지도를 나왔던 김광원은 최선호를 일으켜세우고 이렇게 추궁했었다.

《우린 지금 만들고있는 착암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시대는 더 좋은 착암기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를테면 최대의 능률을 보장하면서도 전력소비가 적고 여러가지 작업환경에서 쓸수 있는 현대화된 착암기를 말입니다.

일군들부터 부단히 배우고 전진해야 합니다. ...

우리의 이상이 뭐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이상에 자기를 따라세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최선호의 가슴을 찌르고 들었다.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 들렀던 최선호는 또 한 방망이 얻어맞게 되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린 손자애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가 착암기소리에 고개를 돌려 텔레비존을 가리켰다.

《저거 착암기 뚜룩뚜룩... 엄마가 그러는데 저건 할아버지가 만든됐어, 마-앗지?》

보도시간이어서 방송원은 어느 탄광소식을 전하고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던 최선호는 슬며시 눈길을 떨구었다. 거기 나타난 착암기는 자기네가 만든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철부지손자앞이었지만 태연해지기가 힘들었다. 어린것이 할아버지의 궁근 속을 들여다보는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일었다.

밤... 최선호는 베개머리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오만가지 생각이 어지럽게 엇갈리었다. 명백

한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현대적인 만점짜리착암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만 한 힘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다.

지금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햇병아리같은 애들까지도 다루는 컴퓨터를 그자신은 아직 남들만큼 다루기가 힘들었다.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릴 때처럼 유연하고 경쾌한 동작에 익숙되기에는 너무도 몸이 굳어졌던 것이다. 그러니 고급한 과학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아무리 당일군이라도 현대과학기술을 모르면 사람들을 옳게 움직일수 없다. 얼마전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는 종업원모임에서 공장의 좌상적인 열처리직장장을 칭찬한바 있었다. 경험이 오랜 직장장으로서 로의 온도측정을 육안으로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최근 질문제가 심각히 논의되면서 자체로 온도와 열전대를 장만하여 열처리의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었던 것이다.

모임이 끝나갈 때였다. 애송이청년이 일어나더니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다는것이였다.

《어서 말하오.》

최선호는 웃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애송이는 나오지 않는 헛기침을 두어번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전 로의 온도를 자체로 수감하고 조절할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체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누구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겁니다.

지금 이 어느때이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호는 인차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이것은 직장장에 대한 포괄적인 불만인 동시에 공장일군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판에는 기술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보는 안목부터 얼마나 뒤떨어진것인가. ...

최선호는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홍매나무를 보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내색없이 가공직장으로 들어가시였다. 생산현장이며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다시 밖으로 나오셨을 때이다.

《선호동무, 이번엔 뭘 보여주겠소?》

장군님께서 만면에 웃음을 담고 물으시는 것이였다.

최선호는 잠시 주뭇거렸다. 면목이 없는데다가 크게 자랑할만 한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때 김광원이 조심스럽게 청을 드리는 것이였다.

《장군님, 4시가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좀 휴식하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펍 안타까와하였다. 일군들도 초조한 빛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인들 모르랴.

최선희는 장군님을 잠시라도 편안한 곳에 모시고싶었다.

허나 그이께서는 대번에 만류하시였다.

《나에겐 훌륭한 창조물을 볼 때가 곧 휴식이요. 그러지 말고 마저 돌아봅시다.

참, 선희동무가 축산을 잘한다는데 그리로 가보는것이 어떻겠소?》

장군님께서는 최선희의 등을 가볍게 떠미시였다. 그이를 안내해드리는 최선희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으로 차올랐다.

과연 내가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살고있었는가. 이제 컴퓨터를 배워 무엇에 써먹겠는가 하고 하면서 애써 달라붙으려 하지 않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분발하여 일떠설 생각을 못하지 않았던가.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에 비해볼 때 이것이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나의 종아리를 칠 대신 오히려 칭찬해주신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원심을 쓰시는것이다.

눈물이 콧 쏟아져내릴것 같았다. 최선희는 가까스로 자기를 다잡았다.

고마움에 목이 메일수록 가슴 한구석이 아파났다. 장군님의 넓으신 아량앞에 더한층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3

축사안은 깨끗하고 실리있게 꾸려져있었다.

한쪽으로 색깔고운 외장재를 칠한 사료가공실, 젓가공실들이 아늑하게 자리잡고 길진너쪽에는 뽕족지붕을 한 먹이풀창자와 풀절입탱크들 그리고 7자모양으로 꺾이운 곳에 염소우리, 돼지우리와 토끼우리가 있다. 한가운데는 샘줄기를 리용하여 만든 자그마한 양어못까지 있었다.

최선희는 장군님께 축산반전경도를 보여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한손으로 가볍게 턱을 고이신채 최선희의 설명을 듣고계시였다. 송구해하던 그의 얼굴에 은근한 긍지가 비껴드는것을 보시자 마음이 놓이시였다.

그이께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 들리셨을 때이다. 한 청년이 안침진 곳에서 책을 읽고있었는데 얼마나 열중했는지 사람들이 들어선것도 모르고있었다.

최선희가 다가가서야 벌떡 일어난 청년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수 없었던지 일순 굳어졌다. 다음 순간 두눈엔 환희의 불꽃이 튀었다.

《아버지장군님! 염소사양공 조인국입니다.》

《그래 무슨 책을 읽고있지?》

장군님께서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너그럽게 물으시였다.

《집집승먹이첨가제에 대한 자료가 실린 기술잡집이다. 전 졸업논문으로 손쉽게 만들수 있는 첨가제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통신대학생이란 말이지?》

장군님의 안광엔 만족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괜찮아, 염소사양도 하고 짬짬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왜 대학에 가지 않았나?》

인국이는 곁에 선 최선희를 흘깃 보고나서 뒤더수기를 벅벅 굶었다.

《전…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새였습니다. 당비서동지한테서 육도 많이 먹었습니다.

당비서동진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새형의 저열탄보이라를 세우다가 일터에서 순직한 기술자이다, 너도 아버지처럼 공장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면 배워야 한다, 배우고 또 배우는것이 부모들이 바라는데로 우리 장군님과 뜻도 결음도 같이하는 길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면서 대학에도 추천해주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국이가 기특하고 사랑이 가시였다. 한편 최선희의 진모를 또 한번 보게 되시였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실력이 겸비된 인간들로 키우기 위해 모지름쓰는 그의 애바른 노력이 헤아려지시였다.

벽에 걸려있는 여러가지 걸그림들과 자료카드들 그리고 한옆에 놓여있는 먹이풀견본바구니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지시였다.

《이렇게 방을 마련해놓고 축산반원들이 모여 책도 읽고 전문지식도 넓히니 얼마나 좋소.》

《장군님, 여기서 예술소조편습도 합니다.》

인국이가 또 자랑하고싶어 들썩거렸다. 최선희가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옆구리를 쿡 찔러냈다. 어리광을 그만 부리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소리내

여 웃으시었다.

《그러지 말고 인국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인국이는 사기가 났다. 최선호는 허거픈 웃음을 짓고나서 변명삼아 말씀드렸다.

《장군님, 너무 버릇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게 얼마나 좋소. 난 무슨 말이나 다 듣고싶소.》

인국이는 성미도 쾌활하고 말도 잘하였다.

《혁신자축하모임을 공장회관에서 하군 하는데 그 공연을 우리 축산반원들이 말아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주저했습니다. 신통히도 축산반엔 과묵하고 음악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까.

당비서동지가 매일같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것도 하나의 전투이다, 모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착암기생산을 위해 아글타글하는데 이만한 일에 물러서서야 되겠는가, 우린 무조건 해내여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면서 신심을 주었습니다.

몇달후 명절정축무대에서 우리가 공연의 첫 막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놀랐고 저저마다 공장의 첫 장훈은 축산반에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하, 첫 장훈은 축산반에서 먼저 불렀단 말이지?!》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 웃음소리에 일군들의 얼굴도 환해졌다. 김광원은 눈곱이 쿡 저려움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순간이 그에게는 더없는 행복으로 되었던것이다.

벌써 몇해째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곤 하면서 그이의 눈물나는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김광원이었다. 그래서 장군님께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업어만주고싶었다.

사실 이 공장으로 오면서 김광원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었다. 생산도 시원치 않은데다가 크게 내세울만 한것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공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그리도 애착을 가지시며 마냥 기뻐하신다. 이것이 최선호에 대한 각별한 정에서 오는것임을 김광원은 폐부로 느끼고있었다.

최선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성실한 일군이라는것은 알면서도 육체적로화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관심을 덜 돌리지 않았던가. 아픈 말을 하는 순간에조차 애정보다 동정에 가까운 감정으로 그를 대했었다. 결국 최선호는 자기에 대한 신심이 없이 빈민거리를 안게까지 만든것이다.

그리고보니 책임은 자기에게 있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앞서 일군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어야 할 자기가 그들을 땀땀하게 대하다니.

김광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일행은 밖으로 나갔다. 그는 급히 따라나갔다.

장군님께서서는 축사 한가운데 있는 남새밭머리에 서계시었다. 실하게 자란 배추들을 흐뭇하신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김광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에는 다 몰랐는데 그야말로 실농군의 숨씨가 어디서나 느껴졌다.

축사안엔 손바닥만 한 공지도 없었다. 건물들사이엔 비름과 능쟁이를 비롯하여 돼지가 좋아하는 먹이풀들을 심고 지붕우에는 호박넉출을 올렸으며 울타리마다엔 줄당콩대가 무겁게 서있었다. 돼지우리우에 물동이만 한 호박들이 땀혀 구수한 농촌정서를 불러오고있다.

장군님께서 최선호를 돌아보시었다.

《여기서 나는 남새로 구내식당 찬거리를 보장하겠소?》

《그렇습니다, 장군님.》

최선호는 저으기 활기를 띠었다.

《우린 여기서 세벌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봄배추와 울감자를 심고 그것을 수확하면서 강냉이영양단지 밀식과 함께 사이사이 오이를 심습니다.

그다음 가을배추를 심는데 이때 고랑마다에 무우를 심었다가 일정하게 큰 다음 무우잎을 묶어주면 배추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도 만족하신 안색으로 고개를 끄덕여주시었다.

김광원은 공장의 잠재력을 보았다. 땅속의 지열처럼 흐르는, 만장약된 로동계급의 힘을 보았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고 과학기술의 나래를 달아준다면 그것은 무섭게 폭발할것이다. 이것은 착암기생산의 놀라운 장성을 의미한다.

크지 않은 축산기지에서 우리 장군님 벌써 공장의 힘을 보시였고 그래서 그리도 호탕한 웃음을 지으신것 아닌가!

김광원은 착암기생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회의때마다 강조하면서도 실지 이 공장에 관심이 적었다는것을 심심히 느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축사에 이어 구내식당까지 돌아보시고서야 연혁실로 향하시었다.

김광원은 길옆에 떨기떨기 꽃다발처럼 안겨오는 물앵두나무며 진달래, 개나리들을 보면서 장군님을 꽃피는 봄날에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장군님, 이 공장에 한번은 부엉이란 놈이 내려왔던적이 있습니다. 그만 장애물에 부딪쳐 사람들의 손에 잡히었는데 얼마나 큰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학교에 박제품을 만들어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놈이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김광원도 다소 마음이 가벼워졌다.

《광원동무, 아침부터 강행군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피곤이 다 풀리는것 같소. 정말 기분이 좋소.》

장군님의 말씀에 김광원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즐거운 안색으로 구내의 숲을 둘러보시었다.

《이렇게 원림을 잘 조성한것만 보아도 이 공장에 톡톡한 주인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소. …》

김광원은 큰 충격을 받아안았다.

톡톡한 주인!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시었다.

장군님께서 대번에 알아보신 주인을 자기는 왜 보지 못했던가.

그러고보니 눈앞에 펼쳐진것은 자연의 숲만이 아닌, 성실하고 근면한 참된 인간들의 숲이였다.

그 숲을 가꾸어가는 일군을 보실 때 우리 장군님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고귀한 진리가 다시금 가슴을 두드렸다.

김광원은 자기를 깊이 반성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4

연혁실안은 숨엄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창설과 관련한 자료앞에 서계시었다.

거기엔 노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 오래전의 일을 돌이켜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착암기공장을 내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전쟁시기를 회상하시였소. 그때 착암기가 없어 함마와 정대들로 고지의 굴을 뚫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전투정황에 맞게 굴진속도를 낼수 없었고 인명피해까지 나군 했다고 말씀하시였소.

착암기가 없어 전사들이 피를 흘린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지금도 경제강국건설장들에서 착암기는 하나의 무기와 같소.

착암기가 부족하여 손에 피멍이 지도록 함마와 정대로 일한 청년들을 생각해보오.》

최선호는 울컥 치미는 감정으로 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떤 예리한 아픔이 심장의 연한 살을 사정없이 꼬집는것이였다.

텔레비죤화면에서 본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이 쓰던 모지랑이가 된 정대와 함마…

꽃처럼 웃는 애어린 청춘들이 등뒤로 감춘 부드러운 손에 감겨져있던 피배인 봉대, 바로 그 손에 굳은 바위도 단숨에 맞창낼 위력한 착암기를 쥐여주었어야 할 내가 아닌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더우기 착암기생산때문에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꽃피우지 못하고 속수무책하니 말이 되는가.

지금 당에서는 강성대국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4대선행부문을 하루빨리 추켜세울것을 바라고있다.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석탄, 전력, 철도운수 등 어느 하나 착암기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불원천리 이렇게 찾아오신것이 아닌가.

최선호는 자기의 심장이 툭툭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것을 감각하였다. 죄스러웠던 마음을 장군님앞에 다 더놓고싶기도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듯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언젠가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이 만든 착암기를 보시고 일 잘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소.

그때가 80년대초던가?》

《웁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착암기생산량을 도표화한 자료앞으로 가시였다.

《이것 보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소.

이 도표만 봐도 공장이 걸어온 력사를 알수 있을거요.》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선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80년대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는데 이 공장동무들이 한몫 단단히 했소. 고성능착암기를 증산하여 검덕의 광부들에게도 보내주었지. …

이런 열의속에 80년대속도가 창조될수 있었던거요.》

장군님의 안팎엔 웅건한 의지의 빛이 번뜩이었다. 그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피방을 처럼 최선호의 심장에 흘러들었다.

《우리 가까운 앞날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야 하오.

물론 어려운것은 있소. 그게 크게 아니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새 기준, 새 안목으로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는거요. 여기서도 웅당 일군들이 앞장서야 하오. 70년대의 투쟁기풍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을거요.》

최선호는 뚫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길 없었다.

그는 한발 앞으로 내짚었다.

《장군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락오자였습니다.

최첨단을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이 사업을 다음세대의 몫처럼 생각하면서...》

《됐소, 됐다니까.》

장군님께서는 가슴들먹이며 서있는 최선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동무의 심정을 이해하오. 천리밖에서 꽃나무를 떠온 그 마음이야 어디로 가겠소. ...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뉘바람을 일으켜야겠소. 여기에 늘어나는 착암기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도가 있는거요.

이번에 룡성에 들리니 그곳 로동계급의 사기도 대단하오. 새형의 압축기를 만드느라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소. 이제 착암기까지 팡팡 생산되면 우리 크게 전진하게 될거요.》

최선호는 가슴이 부풀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며 세찬 활력이 융솟올랐다.

결에 있던 김광원이 말씀드리었다.

《도당에서도 힘껏 돕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믿음에 찬 시선으로 그들 두사람을 번갈아보시었다.

《멀지 않아 희천발전소건설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착암기가 필요되오.

선호동무, 마음먹고 달라붙어보오. 인국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최첨단기술로 무장하고 하겠다는 각오만 높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소.

그들에게는 정신적자양을 줄 뿌리가 필요하오. 선호동무와 같은 로장들이 결에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될거요. ...》

이때 최선호의 귀가에는 종업원모임에서 부르짖던 애송이청년의 목소리가 쟁쟁히 살아났다.

자기 세대의 무거운 임무가 심장에 마쳐왔다.

뿌리는 새싹과 거기에 주렁질 열매를 위해 필요

하다. 모진 눈바람이 불어와도 얼지 않는것은 꽃피는 봄, 희망의 봄을 잉태하고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뿌리로 사는 인생은 비옥해진 토양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게 될것이다.

최선호는 인국리와 애송이청년을 비롯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당을 따라 한생을 바쳐온 순결한 량심과 함께 최첨단돌파정신을 가보처럼 넘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연혁실을 다 돌아보았을 때였다.

최선호는 이제라도 장군님께 휴식을 드리고싶어 간절한 청을 드리었다.

《장군님, 옆방이 휴게실인데 좀 앉았다 가셨으면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선선히 그의 청을 들어주시었다. 오후 5시가 되어오는 그때까지 장군님께서 점심식사마저 건넬었다는것을 알았더라면 일은 달리 번져졌을것이다.

그러나 최선호는 이것을 알리 없었다. 소박한 자기의 소망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하여 들떠있었던것이다.

휴게실에는 다래덩굴로 만든 팔걸이의자가 놓여있었다.

《다래덩굴의자로구만!》

장군님께서는 대뜸 반색하시었다. 아까 구내 식당에서 로동자들이 앉는 다래덩굴의자를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장군님이시였다.

최선호는 이 의자를 만들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었다.

그에겐 한가지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공장에 오신 어버이수령님을 험한 길에 모셨다는 뼈아픈 자책이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엔 서늘한 그늘밑으로 걸게 하시자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었다.

허나 무엇인가 부족한것만 같았다. 그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다래덩굴의자를 착상하게 되었다. 천연재료로 만든 이 의자는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좋을뿐아니라 탄성이 있어 편안하리라고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었구만.》

장군님께서는 감복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의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시었다.

최선호는 두손을 모아잡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에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당의 그 품은

류 민 호

너도나도 품에 안아 모든 희망 꽃피우고
그 품속에 이 강산엔 백화가 만발하네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 넘친
당의 품은 화창한 봄이랴오

천만복의 새싹들이 그 사랑에 움터나고
무성하는 창조의 숲 그 품에서 펼쳐지네

우리 리상 찬란히 꽃피나는
당의 품은 화창한 봄이랴오

그 품에서 강성대국 자랑 높이 솟아나고
그 품에서 후손만대 행복이 가꿔지네
천년만년 인민이 안기여살
당의 품은 화창한 봄이랴오

이 의자에 앉아 잠시라도 피로를 푸셨으면 합니다.》

《고맙소.》

장군님께서서는 의자에 앉으시었다. 피로를 푸시려는듯 잠바옷 옷부분을 약간 헤쳐놓으시었다. 옷깃의 젖은 부위가 더욱 드러났다.

최선희는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선호동무, 의자가 참 좋소. 몸이 거뜨해지는것 같구만.

이젠 동무가 앉아보오.》

어느새 일어나신 장군님께서서 최선희의 손을 잡아 따뜻이 이끄시는것이 아닌가.

최선희는 당황해졌다.

《아니,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 의자엔 장군님께서서 앉으셔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렇기때문에 동무도 앉으라는거요.》

《예?!》

최선희는 흥분을 팡 치는 충격을 느끼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커다란 흥분속에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제 숨이 지는 순간까지 장군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박수소리가 터졌다. 수행한 일군들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있었다.

이 격동적인 화폭앞에서 김광원의 눈굽은 축축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시기 앞서 최선희에게 물으시었다.

《그래 내가 풀어줄것은 없겠소?》

《없습니다. 다만...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랄 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직도 뭔가 다 해주지 못하신듯 생각에 잠기시었다. 공장 뒤산쪽으로 눈길을 주시었다.

《아까 보니 풀판이 문제일것 같소. 염소우리는 가까이에 있는데 풀판은 너무 멀리 떨어져있단 말이요.

저 공장 뒤산을 아예 방목지로 만드는데가 어떻겠소. 야산이니 풀판을 조성하기엔 안성맞춤일거요. 그리고 염소목장도 크게 짓고 마리수도 늘여야겠소. ...》

김광원은 둔중한 그 무엇이 코등을 때리는것 같았다. 축사를 돌아보실 때 전경도앞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셨던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진정 장군님의 걸음걸음은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충만되어있었다. 그 걸음이 모여 세월을 이루고 강성대국의 래일이 보다 앞당겨지는것 아니겠는가.

하다면 장군님따라 강행군길에 나선 우리 일군들의 심장은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사랑의 정신, 그 열화같은 감정의 세계에 뛰어들어 천만의 심장에 봄별이 되고 노래가 되는 대오의 기수로 살아야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최선희의 어깨를 잡으신채 인차 놓지 못하시었다.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오.》

장군님께서서는 그길로 평양을 향해 떠나시었다. 김광원은 다가가 최선희의 손을 꼭 그러쥐었다. 그의 손이 것처럼 투박하고 짙은데 놀랐고 그래서 더욱 참을수 없는 걱정이 치밀어올랐다.

더운것이 후둑후둑 떨어져내려 손등을 적시었다. 최선희가 울고있었다.

허나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다. 유정하게 안겨오는 구내의 숲이 끝없이 술렁이고있었다.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총서 《불멸의 향도》장편소설 《청춘대지》에 대하여—

박 춘 태

문학작품이 가지게 되는 사상정서적, 인식교양적가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어떻게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장편소설 《청춘대지》(박태수 작)는 주체조선의 만년초석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한 토지정리구상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혁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나라의 토지를 다 정리하여 이 땅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조국땅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뜻이 꽃핀 행복의 락원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의 의지를 강원도토지정리로 천지개벽의 새장을 펼친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를 가진 생활의 씨앗

작품의 사상에술적풍격과 인간학적가치를 담보한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참된 삶의 심원한 진리를 안고있는 철학적인 무게를 가진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나라의 토지면모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일신시켜 천지개벽을 이룩한 그 불멸의 업적에 대한 의의있는 주제를 바로세우고 그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준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보여주는 방향에서 종자를 잡고 사상과 주제를 밝혀야 한다.》

국토는 민족의 생존과 나라의 흥망을 조건짓는 바탕이며 국토관리는 부강조국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에는 곧 국토애이다. 땅은 민족의 삶을 이어주는 어머니품, 어머니대지이다. 국토가 그러럼 귀중하기에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의 한치의 땅을 지켜 피의 투쟁을 벌리며 사람들은 조국땅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바친 고뇌와 땀을

그 무엇보다 값높고 자랑스럽게 간직한다.

국토중시, 국토애호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때문에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이다.

애국심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기희생적인 헌신에서 표현되는것일진대 이 땅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시려고 대규모의 토지정리를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애국의 최고 화신이신것이다.

소설에 깊이 심어진 국토와 최대의 애국에 대한 생활의 씨앗은 선군령장의 위대한 성격을 감명깊게 형상하는 심오한 철학적인 종자로 되는것이다. 작품이 틀어쥐고 꽃피워나간 기본문제는 토지정리를 현명하게 이끄시어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활동세계가 펼쳐질수 있도록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울수 있게 하였다.

종자뿐아니라 주제와 사상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탐구하였다.

장편소설 《청춘대지》에서 의의있게 탐구한 주제는 나라의 토지를 희한하게 변모시켜 이 땅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조국땅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뜻이 꽃핀 행복의 락원으로 꾸려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의 위대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토지정리구상아래 선군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토지정리, 그것은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올망졸망한 뽕기논밭을 없애고 큰 규모의 규격포전으로 만듦으로써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라의 토지의 면모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일신시킨 하나의 혁명이였다. 이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으로 하여 올망졸망한 뽕기논과 다락밭자리에 넓은 규격포전들이 시원하게 펼쳐졌고 번듯한 땅에서 기계로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던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이 실현되는 천지개

벽이 이루어졌다.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크나큰 심장, 사회주의조선을 세계에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실천력에 의해 이 땅에 사회주의맛이 나는 토지정리의 변혁이 펼쳐진것이다.

소설은 이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부각하는데로 형상이 지향되고 심화되도록 함으로써 대지의 놀라운 변혁, 희한한 전변을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할수 있게 하였다.

소설은 심오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나라의 토지를 일신시키기 위한 토지정리전투과정에 사람들도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었다.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선군령장의 숭고한 형상

소설은 우리 시대발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가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함으로써 형상의 높은 품위를 보장하고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령도의 위대성이며 그것은 주로 사상과 정치, 령도예술을 통하여 발현된다. 작품은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력,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 내세워 선군정치의 위력을 펼쳐가시는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 작품이 안고있는 사상정서적합력의 하나가 있다.

온 나라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이 땅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과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꽃피우기 위하여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혁시킬데 대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강원도토지를 1년동안에 정리하자면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강원도토지정리를 결심한것은 긴장한 식량문제를 풀자는 목적과 함께 인민들에게 신심과 희망을 주고 일군들을 새 세기의 능숙한 지휘일군들로 준비시키자는 의도도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토지정

리에서 견지해야 할 전투방식을 밝혀주신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원도토지정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치르어야 할 사회주의 수호전의 한 전역이라고 하시며 인민군대가 토지정리전투에 참가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당 지역의 토지정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전권대표로 파견하신다. 아직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강원도토지정리를 결심하신것은 인민군대를 믿으셨기때문이었다. 소설은 이것은 토지정리가 짧은 시일안에 와닥닥 해체겨야 하는 바쁜 사업이고 한개 도의 많은 토지를 한번에 다 정리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인 조건에서 이 사업을 전투력이 강한 인민군대가 틀어쥐고 내밀어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음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이 벌어진 초기기에 일부 일군들은 조건타발을 하면서 혁명적으로 일을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명령만 받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뛰어들어 무조건 해내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군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친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전압판계로 불도젤을 실은 수송렬차가 거차령을 넘지 못해 며칠째 머물러있을 때에는 인민군부대에서 수송전투를 벌려 화차에 있는 불도젤들을 강원도토지정리전투장에 집중수송하도록 하시고 정세가 긴장하여 토지정리에 동원한 군부대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철원지역의 방어가 우려된다면 내가 거기를 맡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최전연으로 나가시면서도 그대신 토지정리전투에 동원된 부대들은 그냥 두어 토지정리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토지정리현장에서 방대한 작업과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을 때에는 완공기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땅크운전병들을 선발하여 불도젤운전수로 동원시키고 여러개 사단의 병력을 토지정리전투장에 더 투입하신다.

정세가 긴장한 때에 많은 군인들을 또 떼어낸다는것은 참으로 큰 용단인것이다. 바로 이런 용단을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자기 군대와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었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철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강원도의 토지정리가 성과적으로 수

행되고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창조되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작품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도 감동깊은 형상적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토지정리규모를 300평이 아니라 800평, 1 000평으로 크게 잡도록 하시는데서 우리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여도 인민의 목소리를 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인민의 지향과 리익이 담겨지도록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를 감동깊이 새겨안는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을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할 **김일성**조선의 청춘대지로 가꾸시면서 강원도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를 위한 전투과정에 사람들의 운명과 성장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애와 그이의 아름다운 정의 세계를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에 형상된바와 같이 농업성 부상 조만규는 강원도토지정리를 책임지고 지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옳게 받들지 못하여 토지정리규모를 작게 잡고 소극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그가 인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소심성과 주관주의에 빠졌기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자책을 느끼면서 사임을 제기한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지금 어려운 현실만 크게 보고 좀 락후해지긴 했지만 이제 일어설것이라고, 그 동무의 실력이면 아직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결에서 조만규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하신다.

주저앉지 않고 신심을 가지고 일하여 토지정리를 해서 땅의 주름살도 펴고 그 과정에 마음의 주름살도 펴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뜨거운 은정속에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일군의 모습을 되찾는다. 임성춘이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전의 파오로 하여 아직 당원의 영예를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이번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진심을 바쳐 일한 그의 깨끗한 량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며 그는 떳떳이 당대렬에 들어설수 있고 공훈불도젤운전수도 로력영웅도 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다.

국가재산이 위협에 처한 순간에 제 한몸을 던져 사고를 막은 불도젤운전수 홍산옥의 희생에 대해

아시고는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토지정리전투장으로 탄원한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의 소망대로 훌륭한 원예사로 키우자고 말씀하신다. 또한 땅을 못쓰게 만든것으로 하여 법앞에 나서게 된 안변군 상업관리소 소장 조옥에 대해서도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여 그 땅을 원상복구하도록 하여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수 있게 하신다.

작품은 이런 감동깊은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인정이 깊으시고 의리가 두터우시며 도량이 넓으신 희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영원한 태양의 그 품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가를 다시한번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

장편소설 《청춘대지》가 인간학으로서의 총서작품의 미학적요구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실현하게 된것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하고 묘사한데 있다.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있는 구체적인 인간개성이다.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에게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이 있게 된다.

초강도강행군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길우에서 토지정리전투현장에 나가있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류광선, 조만규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시기 위해 한시간이나 점심식사시간을 늦추시였다가 그들이 교원역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시고 《동무들이 먼길을 오느라 점심전이었는데 식사부터 하고 봅시다. 동무들과 같이 하려고 나도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하시며 한식탁에 둘러앉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자신께서도 길우에 있는 몸이라 차린것은 없지만 많이 들라고, 토지정리를 끝내고 다음해 태양절에는 자신께서 별도로 푸짐히 한상 차리겠다는걸 약속한다고 소탈하게 말씀하시며 반찬그릇들을 밀어주시고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도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사실들과 국제정세의 최근 변화들을 알려주시면서 좌석의 분위기를 흥그롭게 하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식사가 끝났을 때에는 류광선에게는 후두질환을, 조만규에게는 위병을 주의해야 한다는것을 재삼 강조하시고서야 열차를 출발시키신다.

바로 여기에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에 진행하는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에서 일꾼들이 신심을 가지고 배심있게 일하도록,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공지와 의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마음, 전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인간이신 그이의 아름다운 생활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있다.

소설은 형상을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나가고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도를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소설의 서두에 형상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가 그런 실례로 된다. 야전차를 타시고 강원도의 어느 한 산골마을로 가시면서 새 세기에 맞는 새로운 비약의 토대를 마련할데 대하여 사색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부적체험세계.

우리 수령님께서 말기교가신 인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 그 인민이 새 세기의 문어구에서 바라는것은 과연 무엇이고 줄수 있는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두어깨에 실려오는 크나큰 중하를 느끼신다.

(수령님께서 계시었더라면... 수령님이시라면...)

산나물의 향기며 송진냄새, 지어 풀짜기의 물소리며 산새소리까지 다 담겨있는듯 한 산골특유의 맑고 청신한 새벽공기에 가슴이 짹 하고 열리는듯 함을 느끼시며 사색을 이으시는 경애하는 그이.

(우리는 반드시 새 세기에 어울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변모된 모습으로 세계앞에 등장해야 할것이다.

무엇을 안겨줄것인가? 우리 인민에게...)

그것은 번쩍거리는 화려한 생활만도, 부러운것 없는 풍족한 살림만도 아니다. 우리 인민은 보다 큰것을 요구한다, 큰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존엄과 긍지, 래일에 대한 낙관과 의지를 주기 위해 거창한 토지정리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는것이다.

어느 이름모를 령마루에서 췌기밥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한 마을이 바라보이는 야산둔덕에 오르시여 마을전경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체험세계.

특지장만 한 이런 다락논과 뚝기논에서 쌀이 나

와야 얼마 나오며 이런 막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의 수고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언제까지 이런 두렁치장만 한 부침땅에 매달려 살게 할수 없다. 허물어야 한다. 달리 살아야 한다. 새 세기를 앞둔 지금 조국은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마지막지경을 허물고 사회주의적인 새 지경을 긋기 위한 토지정리를 할것을 결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오한 체험세계묘사는 선군령장의 특출한 령도품모와 애국의 의지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토지정리구상을 받들고 현장에서 일한 농업성 부상 조만규의 심리체험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오, 력사여! 너 오늘을 기억하라! 얼마나 거대한 힘이 뚫기논뿐이던 이 땅을 광야로 변모시켰는가를, 선군시대 인간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이 땅에 강성국가를 안아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크나큰 심장을 이 땅이 닳고 인민이 닳아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음을 력사여! 부디 잊지 말아다오. ... 위대한 애국자의 참된 귀감을 세세년년 칭송해다오. ...)

이것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다.

작품은 심리를 충분한 생활적정황과 계기에 기초하여 생활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게 그리고있다. 여기에 이 소설이 그린 심리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가 있다.

소설에는 강원도토지정리전투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집약화되어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작품의 형상은 철저히 이에 기초하여 실현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게 창작에서 력사적사실에 충실하고 대규모의 토지정리로 나라의 국토를 일신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 그 하나하나를 후세에 길이 전할 귀중한것으로 여기고 소설에 풍부하고의의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총서 《불멸의 향도》장편소설 《청춘대지》는 사회주의국토건설에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추억에 대한 생각

리명현

추억!

이는 이미 흘러간 나날에 있는 일들을 류다른 감회속에 애뜻한 정서로 돌이켜보는 감정이다.

누가 말했든가.

기쁨의 추억은 벌써 기쁨이 아니지만 슬픔의 추억은 의연히 슬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때로는 가슴을 찢는 희생과 상실의 아픔도 있었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단순히 슬픔의 감정으로 추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신념과 의지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긍지높이 떳떳하게 그 시기를 추억하고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먼 후날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깊이있는 생활화폭속에 가르쳐주고있는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오늘을 추억하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면 행복의 래일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것이 부족한 그 곤난을 박차고 가슴아픈 희생도 이겨내며 자체의 힘으로 중소형발전소를 끝끝내 일떠세우는 어느 한 산간군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추억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주며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오늘을 추억하리!

이 말은 그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비록 오늘은 어려워도 광명한 래일을 굳게 믿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깡그리 다 바쳐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만이 이 말을 떳떳하게 할수 있다.

래일을 굳게 믿는 불굴의 인간은 오늘에 시련이 겹쌓이어도 주저않지 않으며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강의한 의지로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간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미미한 자욱이 아니라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 고귀한 추억을 안겨주는 자욱을 새기며.

《어머니! 난 송희가 죽는 장면에서 너무도 눈물이 나와 손수건이 푹 젖었어요.

나도 송희처럼 그렇게 허기져 쓰러지면서도 나를 위해 자기를 바칠수 있을까요?》

《너는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 고난의 행군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할게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마 그때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것이 우리 어머니들일게다.

나이기도 어리고 키도 작지만 송희가 얼마나 장하냐. 그때 술한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며 자랐지.

우리도 그들처럼 후날 떳떳하게 오늘을 추억할수 있도록 일을 더 잘하자.》

공연을 보고 극장의 계단을 내리며 나누는 어머니와 딸의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감동깊은 연극의 장면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쌀을 다시 석태기사에게 주고 량정파에서 탄 강냉이마저 동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허기져 다시는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송희!

딸을 잃은 그 뼈아픈 상실의 아픔을 가슴에 묵새겨두고 통나무를 끌며 발전소건설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주인공 강산옥!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고난의 행군시기 어떻게 살며 일했든가.

그들처럼,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살며 투쟁했다고 떳떳하게 말할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렇게 떳떳하게 어제를 돌이켜볼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우리의 추억은 단순히 어제 있던 일을 돌이켜보는 그런 추억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며 한번 선택한 그

추억이 아름다우려면...

김 춘 길

무대의 막은 내리였건만
흘러간 어제날이 눈앞에 펼쳐지고
주인공들은 무대를 내리였건만
우리의 형제며 이웃인 그대들
나에게 묻는구나
그대는 래일을 위한 삶을 어떻게 빚내고있는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자기의 한몸도 가늠하기 힘든 때
온 군의 살림살이를 말아안고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삶을 빚내인
그대들처럼 나는 살고있는가

고난의 행군!
추억도 뜨거운 고난과 시련의 나날이어
우리 무엇을 믿었기에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승리의 오늘을 안아올수 있었던가

죽음을 이겨낸 불사신의 힘
시련을 맞받아 일떠선 아 그 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떠메시고
고난의 행군을 앞장서 이끄신
우리 장군님의 그 의지 그 신념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초강도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으시며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에나 찾아
운명을 함께 하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이여라

길로만 변함없이 걸어온 어제에 대한 공지와 자
랑이며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영원히 그렇게 살
며 투쟁하리라는 자각이며 의지가 아니겠는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드립
없는 신념과 의지로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오
늘에로 전진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래일도 이
렇게 뿔뿔이 추억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손으로

장군님만 계시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확신
그것을 간직한 이 나라 인민모두가
산옥이 되고 석태가 되고 로당원할머니가 되어
장군님 한식술된 행복이었거니

신념은 의지를 낳고
의지는 승리를 가져와
오늘은 긍지높이 추억할 권리를 가진 그들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형제며 이웃들 아니었던가

아, 인생의 추억이 아름답자면
오늘이 어렵다 해도
래일의 행복을 확신하며 살 때
고난과 시련은 웃음에 불타고
천만리 고난의 행군길 장설우에
오고야말 봄날은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려니

추억이여!
고난과 시련의 령마루를 딛고올라 그려보는
어제날 추억도 아름답지만
래일의 추억은 또 얼마나 환희로울것인가

그 추억의 환희속에
고난을 이겨낸 주인공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도 보여온다
신념은 아름다운 추억을 낳는다는
생활의 진리, 시대의 진리를 새기며
주인공들은 우리와 함께
강성국가 래일의 광장으로 가고있어라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웠다고—

우리의 가슴속에는, 피끓는 심장속에는 어제
날의 슬픔이 아니라 승리자의 공지와 자부가 소
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있다.

우리 그 추억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영원히
안고살리라! 래일에도 뿔뿔한 추억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그때처럼...

최 정 남

오늘도 나는 퇴근시간을 리용하여 어느 한 신발 공장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한생을 보내고있는 홍아바이를 찾아가고있었다. 그는 공장적인 창고의 고안명수였으며 많은 일을 한 선군시대의 공로자였다.

며칠전부터 신발공장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나는 그 과정에 홍아바이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끌리었다. 지금 그를 찾아가면서도 나는 머리속으로 그를 원형으로 한 실화문학을 구상하고있었다.

이윽고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그의 집에 들어서니 아바이는 유보도에 나갔다는것이였다.

나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며 가벼운 걸음으로 아바이를 찾아 유보도로 갔다. 취재를 하기에는 그런 곳이 더 좋을수 있기때문이었다.

어둡이 깃들기 시작한 강변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멀리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 들려오는 건설의 동음소리와 별무리처럼 쏟아져내리는 용접불꽃들로 하여 밤은 더욱 벅차고 아름답다 못해 신비롭게까지 느껴졌다.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명상에 잠긴듯 앉아있는 아바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아바이는 내가 옆에 와 선것도 모르고 무엇인가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아바이.》

나는 조용히 그를 찾았다.

《아니?! 기자선생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 연극이 너무도 충격이 커서...》

그러면서 아바이는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본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웃음을 지었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줄 알았습니다.》

아바이는 나의 웃음에는 아랑곳없이 심중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큰일이면 큰일이지... 난 지금 취재때 기자선생에게 한 말이 막 부끄럽게 생각되오. 지난날의 자그마한 성과를 가지고 마치 큰일이나 한것처럼 자랑을 했던 말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온 공장이 떠받들어주고 내세워주니 어느새 우쭐해졌거던.》

어제날 위훈을 세운것처럼 오늘도 계속 위훈을

세워야 그 어제가 더 값있는것으로 되는게 아니겠소.》

아바이의 말을 들으니 문득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고 몹시 흥분되어있던 나는 극장에서 뜻밖에도 옛 동창생을 만나게 되였다.

그로 말하면 지난 시기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하여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고 높은 국가수훈도 받은 동무였다. 그도 연극에서 받아안은 충격이 컸던지 나에게 격정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연극을 보니 그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다 나왔다. 정말 생각되는게 많아.》

그런데 두려운것은 내가 지금 그때처럼 살지 못하고있는걸세. 고난의 그 나날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젠 어른이 다 되였네. 그동안에 난 무엇을 해놓았는가. 그때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네. 먼 후날 땀땀이 추억할 오늘이 없단 말일세.》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두드렸다.

10여년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해 백두산지구를 혁명의 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618건설돌격대가 무어졌다. 나도 그 돌격대에 탄원하였다.

사나운 북방의 추위속에서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우리 돌격대원들은 많은것을 건설해놓았다.

독산물길, 답사도로, 현대적인 삼지연군 살림집, 삼수발전소... 힘겨웠지만 벅차고 긍지높았다.

나의 돌격대나날은 이렇게 흘렀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의 생활이 그때처럼 보람차고 긍지높이 흘러가고있는가.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연극의 주인공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것만 같았다.

돌격대시절처럼 오늘도 살고있는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것을 바쳐보았는가, 노력은 적게 들이고 평가는 남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생각한적은 없는가.

나는 그날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홍아바이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내가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하고있을 때

우리의 추억은 아름답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면서—

리 영 철

가슴속에 피가 고인 아픔들만은
내 애써 잊으려 한 고난의 행군
준엄했던 그 나날앞에
다시금 나를 세워주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이여

나는 본다
심장을 저미는 옛상처를 불안고
고난을 신념으로 이기고
슬픔을 의지로 이겨낸 나날을
나는 듣는다
슬픔을 딛고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주인공 강산옥의 젖은 목소리에서

저들은 과연 누구들이었던가
역풍이 불수록 신념과 의리를 지켜
붉은기아래서 맹세의 주먹을 쳐든 저 사람들
발전소건설장에 덮쳐드는 큰물을 맞받아
철탑을 들어올리고
행복할 때일을 보는 참된 삶의 창조자들

나는 안다 흘러간 세월은 다시 오지 못함을
허나 추억은 시간속에 우리와 함께 있어
내 지금 연극을 보고있지 않노라
어려웠던 그때에 조국앞에 비쳐진
나의 모습 내 지나온 생활들을 보고있노라

오, 어찌 잊으랴
우리 옆집 한 탐사대원
풀뿌리와 산열매를 먹으며
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끝내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찾아내교야

숨진 그 사연...

힘겨웠던 그만큼 강해진 사람들이었다
기나긴 겨울 눈보라가 회오리치던
언 방안에서 풀죽을 끓이면서도
넋을 버려 최첨단과학세계의 돌파구를 연 과학
자들

장군님의 믿음을 이 세상 전부로 여기며
철령과 오성산... 이 나라의 모든 전선길들을
그리움의 노래 안고 따라나선 기자들과 언론인들

다름아닌 그들이었다
고난이 겹쌓여도 래일을 믿는
그 신념을 지니였기에
웃으며 밝은 미래를 마중가는 저 주인공들은
못 잊을 그 나날 내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병사들이었다 일군들이었다
우리 인민모두였다

행복하구나 궁지롭구나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
오늘도 그 추억 빛내감이
한생을 그때처럼 살며
조국의 영원한 추억속에 남는다는것이

아, 피가 고인 아픔들은 가슴속에 묻어두며
붉은기를 지켜온 고난의 행군
그날에 간직한 신념 오늘은 더욱더 심장에 불타
고있거늘
강성대국대문을 연 그날에 가서도
우리는 승리자의 추억을 안고살리라

우리 장군님께선 변함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
지지도의 강행군길을 걷고계시지 않나.

기자선생, 난 취재대상이 될수 없소. 먼 후날에
도 오늘을 당당히 추억하자면 그때처럼 살아야 한
다는걸 난 오늘 절실히 깨닫게 되었소.》

그렇다, 어제날의 위훈도 오늘의 위훈이 있어야
더욱 빛나는것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은 그때만 못
지 않게 어렵고 중요하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살고있으
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가.

홍아바이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평양의 밤을 새로운 눈
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승리를 떨쳐온 내 조국은
어제도 아름다웠지만 래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
늘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전선길에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의 형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기념단편소설집(4) 《전선길》을 두고 —

안 희 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은 사랑과 믿음, 신념과 담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불러일으켜 고난과 시련을 뚫고헤치며 승리와 위훈을 떨쳐온 자랑스런 영웅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기념단편소설집(4) 《전선길》에는 조국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을 겪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선군령도의 길에 자욱자욱 수놓아진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적품모와 결출한 위인상을 감동깊게 형상한 단편소설작품들이 실려있다.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의 숭고하고 결출한 위인적품모의 가지가지 감동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력사적사실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에는 우선 인덕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펴나가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작품들이 많이 실려있다.

작품집에는 인민군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형상한 단편소설 《병사들을 위한 날》(문상봉 작), 《파도치는 기슭에서》(정기종 작), 《수리봉》(김동호 작), 《전선길》(조상호 작), 《오늘이 가면》(박운 작)이 있는가 하면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 대한 사랑을 형상한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리희남 작)도 있다.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 과학자, 예술인, 녀성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을 형상한 단편소설 《정든 고장》(김대성 작), 《절정》(김진경 작), 《삼봉풍경》(리영환 작), 《설령의 등대》(박찬은 작), 《영원》(김영근 작), 《통일아리랑》(리령철 작), 《봄향기》(박혜란 작)가 있다.

단편소설집에는 또한 비범한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선군령장의 결출한 령도품모를 형상한 작품들도 많이 실려있다.

이는 단편소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송출언

작), 《10월의 밤이야기》(최영조 작), 《축하명령서》(김석범 작), 《비상작전》(김룡연 작), 《칠보산의 봄우뢰》(김도환 작), 《동해의 진주》(방정강 작), 《미래에 살자》(현승남 작)와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최전연초소로부터 외진 바다가초소와 깊은 산중초소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다.

단편소설 《병사들을 위한 날》은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2년전 전선시찰의 밤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나의 병사들을 부탁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칠봉산의 한정수소속구분대를 찾으시였다. 부대에 이르신 장군님께서 부대병사들의 훈련모습과 자체로 꾸려놓은 후방시설들을 다 보아주시고 전투력강화와 병사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해온 부대지휘관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어서는 조리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병사들의 식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중대정치지도원의 작은 수첩도 펼쳐보시고 《병사들을 위한 날》을 운영하면서 친혈육의 정으로 병사들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는데 대하여 부대지휘관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지휘관들의 따듯한 보살핌으로 병사들은 날마다 고향집어머니의 살뜰한 정을 느끼며 식탁에 다가앉았고 군관들을 친혈육이상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기풍이 구분대의 면모를 일신시켰고 전투력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던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전투력완성을 위한 지휘관과 병사의 일심동체의 모범을 이 부대의 경험에서 배우도록 전군적인 방식상학을 이곳에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장군님의 우리 병사들에 대한 사랑, 숭고한 품모와 위대한 구상으로 전군에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활짝 꽃피나고있었다.

단편소설 《파도치는 기슭에서》는 외진 바다가 기슭에 있는 해안포대대를 찾으시여 부대지휘의

귀중한 진리도 깨우쳐주시고 부대관리의 빈구석도 찾아 메꾸어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훌륭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워주신 내용을 담고있다. 단편소설 《수리봉》은 평범한 용해공의 아들인 병사를 위하여 해발 천메터가 넘는 수리봉 꼭대기 통신중계소까지 찾아오시여 은정깊은 사랑과 신임을 베풀어준 이야기를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파오를 범했거나 곡절을 겪으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다심하고 뜨겁게 안겨주는 은혜로운 사랑이며 크나큰 믿음이다.

단편소설 《오늘이 가면》에서 형상된 엄중한 파오를 범하고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동생문제로 고민에 시달리고있는 김무전부대장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격정의 눈물없이 읽을수 없다.

철령최우등졸업증을 이미 받으시고도 남음이 있 으련만 또다시 눈보라 사나운 철령길에 오르신것은 고민속에 빠져있을 혁명동지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잠시도 견딜수가 없으시여서였다. 그래서 험한 령길을 뚫아오르시다가 눈사태로 차질이 아예 막혀버리자 걸어서 령길을 넘으시였다. 그이께서 부대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부대장이 자기비판서를 써서 정치위원에게 맡겨놓고 도로공사장에 나간 뒤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절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위험천만한 최전연지대 공사장에까지 나가시여 김무전부대장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넓은 포용력, 숭고한 의리심으로 그를 따뜻이 위로해주시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설사 동생이나 친부모가 반역죄를 짓고 혁명을 배반해나선다고 해도 함께 먼길을 걸어오며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한 혁명동지는 우리곁에서 떨어질수 없소. 아니, 이 최고사령관이 그걸 허용 안해! 나는 이미전에 선언했소. 우리는 본인의 충실성과 실력만을 인정하오. 그래 김무전이 동생이 변질됐다고 붉은기앞에서 물러설 사람인가!》라고 하시며 그가 쓴 종이장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내시였다. 신임이면 이보다 더 큰 신임,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장군님의 그 대해같은 믿음과 신임에 강철의 사나이 김무전은 끝내 격정을 터치며 장군님의 품에 안기였다.

단편소설 《전선길》에서 군사복무중 씻을수 없는 파오를 범하고 제대된 박태삼청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사랑과 믿음은 보답과 충정의 열정을 낳기마련이다. 우리 장군님의 폭넓은 도량, 은정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복대된 박태삼청년은 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초급지휘관으로, 온 중대의 신망높은 정치지도원으로, 대대정치지도원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험한 매운령을 넘어 삼봉산 부대를 찾으시고는 그의 충정의 열정이 스며있는 중대의 면모와 모든 창조물들을 돌아보시고 최대의 신임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도록 하시였으며 먼저 영웅이 된 동생과 함께 평양에서 진행되는 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시였다. 진정 우리의 장군님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천만자식모두를 사랑과 믿음으로 한품에 안으시여 위훈의 상상봉에 나란히 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로동계급과 과학자,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들에게도 다같이 뜨겁게 미치는 은혜로운 사랑이며 믿음이다.

단편소설 《설령의 등대》에서 형상된 로성근연구사에게 돌려주신 숭고한 의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그 어느 위인의 력사기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도로정을 보좌해드리고있는 로성근박사의 어머니생일 80돛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아시고는 혹한의 외진 령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시여 그를 끝내 집으로 떠나보내신다. 그가 탄 승용차가 떠난 다음에도 주변군 부대에 전화를 거시여 그가 넘을 눈덮인 령길을 열어주신 이야기, 당중앙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하시여 80돛생일상을 보내주신 이야기, 그가 어머니에게 술 한잔 붓고는 선자리에서 돌아선것을 아시고는 수원들을 마중보내여 눈덮인 령길을 오르면서 해매이지 않도록 령마루에 승용차불을 환하게 켜놓게 하신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을 금할수 없게 하는 화폭들이다. 눈덮인 령길을 비쳐주신 그 사랑의 불빛은 로성근연구사의 인생길을 환히 밝혀주는 영원한 사랑의 등대였다.

단편소설 《정든 고장》에서는 자강도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도 안겨주시고 닭고기와 닭알을 푸짐히 공급해주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절정》에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외진 산골농장 관리위원장 한선화동무를 친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애국자, 영웅으로 영광의 절정우에 세워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단편소설 《삼봉풍경》은 우리 나라 북변에 새로 일떠선 삼봉발전소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베푸신

아버이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와 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통일아리랑》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통일장을 담당한 림진우창작가와 그의 옛친우 전상음해의교포음악가에게 베푸신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을 펼치고있다. 단편소설 《봄향기》는 현대적인 신의주화장품공장건설과 최고급화장품 《봄향기》생산을 위하여 기울인 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그것을 우리 여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신 은정어린 조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여성들을 행복의 절정우에 세워주시고 영원한 봄을 안겨주시 태양이시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강의한 의지와 비범한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특출한 령도풍모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단편소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은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지략,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감동깊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고 만전쟁에서 《승리》한 미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전쟁은 확정적인것이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총참모부책임일군인 최광무는 난국을 타개할 신통한 방책을 찾지 못한채 작전방안을 장군님께 보여드리였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작전방안의 빈구석을 꿰뚫어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명방안을 가르쳐주신다. 그러시고는 몹시 피로해지고 수척해진 최광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신다. 이와 함께 그곳에서 한밤을 같이 지내시면서 난국을 타개할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백전로장으로서의 담력과 배짱도 되찾게 해주신다.

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한 조치로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침략자들과 맞서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보여주자고 하시며 그래도 적들이 계속 발악하며 전쟁까지 강요한다면 《그때엔 칩시다, 무자비하게. 다시는 침략자들이 영영 소생하지 못하게 씨도 없이 쓸어버립시다.》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그 단호한 선언은 빈말이 아니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공화국정부성명으로 자위적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전승 40돛이 되는 7월 27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장엄한 열병식이 거행되였다. 세계는 선군령장의 의지와 담력, 조선

의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지략, 담력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당면한 경제건설이 아니라 총대를 틀어쥐고 변함없이 선군의 길로 나가는 로선을 선택하시는것을 보여주는 단편소설 《10월의 밤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보여준다. 또한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던 실전과 똑같은 위험한 지대에서의 훈련을 계획한 땅크부대장 정명길의 훈련계획을 적극 지지해주시고 현지에서 그 훈련을 지도해주시 내용을 형상한 단편소설 《축하명령서》를 통해서도 확증해준다. 또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엄중한 고난을 겪고있던 시기에 전국에 국토건설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칠보산을 인민의 명승지로 꾸리며 동해안의 은하만에 큰 규모의 소금밭을 건설하는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일군들에게 신념과 배짱, 담력을 키워주시는 내용을 형상한 단편소설 《미래에 살자》, 《칠보산의 봄우회》, 《동해의 진주》를 통해서도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장군님은 사랑과 믿음으로 천하를 얻으시며 신념과 지략, 담력으로 천만대적도 취락파락하시고 무릎꿇게 하시는 절세의 위인,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작품들의 높은 사상예술적품격과 형상적견인력은 다양한 형상수법의 적극적인 탐구활용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단편소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우선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격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용적이 작은 문학형태이다. 따라서 많은 사건이나 폭넓은 생활내용을 담을수 없으며 생활의 한 계기에서 한 단면의 생활을 그린다. 우에서 배증한 작품들을 보면 단편의 이러한 형태적특성에 맞게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어느 한 작은 구간에서 한 단면의 생활을 소재로 선택하여 형상하고있다. 하지만 생활의 한 계기, 한 단면에서 작고도 큰 문제,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략과 로선적인 문제를 틀어쥐고 형상을 격이 있게 심화시켜 풀어나가고있다.

단편소설 《10월의 밤이야기》한 작품만을 놓고도 이야기할수 있다. 작품은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문건 하나를 앞에 놓고 수포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말하자면 어느 길, 어떤 로선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하나의 문건비준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

령도로정에서는 극히 한순간의 업무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비준하셔야 할 이 자금문건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망과 관련된 무겁고도 책임적인 문제가 실려있다. 그것은 이 하나의 문건비준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인민생활과 나라의 경제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처한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 정치방향, 정치로선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작가가 제기한 문제는 오직 수령만이 감당해낼수 있는 무거운 형상과제이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오르시어 김정숙어머님과 항일의 로투사들과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들의 절절한 삶의 호소와 자신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합쳐 당면한 경제건설이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쓰는 길, 선군의 길로 변함없이 나가시는데로 형상을 이끌어내감으로써 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를 격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생활의 한 계기, 한 단면의 생활에서 무거운 형상과제를 탐구하여 그것을 격이 높고 깊이있게 풀어내어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보여준데 이 작품의 형상수법리용상 특성이 있다. 다른 소설작품들인 경우를 놓고도 같은것을 말할 수 있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작품들은 내면심리세계의 묘사와 생활세부묘사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의 철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위인의 품모를 감동깊게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지도로정에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순간도 사색활동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장군님의 끊임없는 사색속에서 원수들의 반공화국기도가 결음마다 짓부셔지고 강성국가의 휘황한 설제도가 펼쳐졌으며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마련되였다.

단편소설 《정은 고장》에서 깊은 밤 명문고개를 넘는 렬차안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나날 자강도를 수없이 찾으시였던 잊을수 없는 지난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깊은 추억의 세계에 대한 묘사는 가슴을 뜨겁게 젖어 들게 한다.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을 향하여 새벽길을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학원을 찾아가셨을 때의 가지가지 잊지 못할 추억들에 대한 묘사는 또 얼마나 감동을 금치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사색의 세계, 추억의 세계에 대한 묘사는 단편소설집에 실려있는 어느 소설작품들의 갈피갈피에서나 다 찾아볼수 있다.

특색있게 탐구활용된 뜻깊고 인상깊은 생활세부

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강한 력점을 찍어 부각시켜 보여준다.

단편소설 《병사들을 위한 날》에서 탐구활용된 갯도식랭장고, 부엉이고간, 조개젓사기단지, 《병사들을 위한 날》의 도표 세부형상은 병사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애써온 구분대지휘관들의 힘겨웠던 걸음걸음을 값높이 사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정세계, 위인적품모를 부각시켜주고있다. 단편소설 《수리봉》에서 탐구활용된 병사의 배낭속에서 나온 땅크병표식 한조와 군사우편엽서뭉치, 채쓰지 못한 한장의 편지, 교환대앞의 매장세부형상은 병사들의 리상과 희망, 속생각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풀어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고결한 인간적품모와 친아버지의 사랑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단편소설 《절정》에서 자강도의 삼덕농장 관리위원장 한선화동무의 험한 작은 손을 잡으시고 앞뒤로 짚어보시는 세부형상, 단편소설 《영원》에서 만수대창작사 공예사 강형범의 똑살이 박힌 투박하고 거치른 두손을 쥐어서 펼쳐보시는 세부형상은 한생을 성실한 육체적로동과 충정의 한마음으로 조국과 수령을 받들어온 참된 애국자, 일군들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정세계, 의리의 세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여주는데 이바지되고있다.

단편소설집에 있는 작품들은 예상을 뒤집어엎는 극구성수법, 이야기조직수법을 효과적으로 탐구리용하여 극적흥미를 돋구고 형상의 견인력을 높이고있다.

단편소설 《비상작전》은 이러한 형상수법을 탐구리용한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우리 장군님의 이번 전연부대의 시찰을 두고 정세에 대처한 새로운 비상작전이 펼쳐질것이라고 예상하고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전연구분대의 한 소대장이 외국실화소설 한권을 분실하여 군민관계로까지 엄중하게 야기된 문제를 놓고 마음쓰시며 친히 현지에까지 나가시어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다. 료해과정에 군인들이 즐겨읽을수 있는 도서부수가 결정적으로 적은데서 그 원인을 찾으시고 군인들의 한생의 정신적량식으로 될수 있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혁명적인 소설의 부수를 대폭 늘리고 최상의 수준에서 시급히 출판하여 전군의 모든 중대들에 보내주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신다. 이것이야말로 예상을 뒤집어엎는 비상작전이었다.

내 녀의 어머니

김 철 혁

넥타이도 곱게 매어주고
바지주름도 칼날같이 세워
학교 가는 이 아들 단장시켜주시던
내 어머니 그 정성이런가

당이어 그대는
이렇듯 내 정신의 모습 가꾸어주었노라
내 억센 전사로 자라도록
뼈심을 들어
심혈을 다 기울여

길가에 떨어진 벼이삭 하나에도
고귀한 땀 스며있다 날 일깨워주며
소중한 마음의 씨앗을 심어준 그대
식수철 심은 나무에 정도 함께 묻게 하며
내 가슴에 애국의 싹을 틔워준 그대

최전방 진지굴설에 폐장을 지고 달릴 땀
내 녀의 진지도 함께 다져주었다
최전연초소근무 몸은 눈속에 있었어도
용맹은 솔처럼 푸르청청
나래치게 해주었다

그대였어라 당이어
내 청춘 때일찍 그날의 전호를 떠났어도
이 침상에 그날의 진지만은
그대로 옮겨올수 있게 해준것은
입술 깨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뺨을 틀어쥐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것은

시가의 총창을 버려가는 내 창가에

고난의 성에는 두렵게 불려도
그대가 준 불덩이를 안은 나의 녀 나의 붓
정의엔 불길로 타고르고
불의엔 퇴성으로 울부짖었나니

용광로는 아닌가 나의 타는 녀
그대의 주체철이 끓는 용광로
성돌은 아닌가 나의 정신력
그대가 지켜가는 사회주의성새의...
조국의 분렬은 내 녀의 아픔이며
통일의 원썬들은 내 붓대의 제일과녁

아, 당이어 그대는
어머니라도
내 녀를 낳아준 어머니
녘이라도
시대의 폭풍으로 숨쉬는 녀를
가꿔주고 키워준 그런 어머니

만약 나에게
이 녀가 없다면
나는 정신의 고아
설사 억만재부를 안았다 해도
녘은 외로워 울리

천만리 먼길에
천만자식 뜻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당이어
어머니 그 심장에 이어진
내 녀의 이 피줄은 뉘뉘리라
한생토록 그대의 박동따라 숨결을 따라

×

단편소설 《전선길》에서 군사복무중 엄중한 파
오를 범하고 제대된 박태삼의 운명에서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극구성수법, 단편소설 《미래
에 살자》에서 국토관리에서 엄중한 파오를 범하
고 책벌을 받게 된 행정경제일군들의 운명에서의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한 극구성수법의 활용을
놓고도 그것을 실증해준다.

예상을 뒤집어엎는 형상수법의 이러한 활용은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폭넓은 인
덕정치를 베푸시는 우리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
을 감동깊은 극적형상으로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하
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기념단편소설집에 들어있
는 단편소설작품들은 선군령장의 숭고한 위인적품
모를 다양한 형상수법의 탐구활용으로 품위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리며
커다란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소설
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해냄으로써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국
가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
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엄 호 삼

1

동쪽하늘이 흰해지더니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철국은 하루밤숙영을 위해 가독나무가지들로 일추 지었던 가설초막에서 빠져나왔다.

아래입술을 사려문 그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그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두손으로 왼쪽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어제 뜻밖에 맞다든 적들과의 충격전때 상한 다리가 텅텅 부어있었다. 총알이 스쳐지나간 상처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장마철의 습기탓인지 화농될 기미가 보였다.

《음—》 신음소리를 내며 바지가랭이를 내린 철국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하여 수림속의 이갈나무와 떨기나무들은 물기에 폭 젖어있었다. 이갈나무의 껍질은 거무칙칙했고 떨기나무의 잎들은 물방울이 맺혀 반짝거렸다.

철국은 용기를 내어 걸음을 내짚었다. 젖은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기 말쑥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쭈룩— 하는 소리가 나며 가랑이에 고였던 물이 솟구쳤다. 신발은 순간에 폭 젖어버렸다. 동시에 상처의 아픔이 강해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다.

《아—》

그 소리에 초막에서 자던 장섭이가 권총을 뽑아들며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어설피게 지은 가설초막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무가지들을 뒤집어쓴채 장승처럼 우뚝 서있는 장섭을 보니 상처가 아픈 속에서도 철국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다.

《으하하하...》

넘어져있는 철국과 자기의 주제를 번갈아보고 벌어진 사태의 진상을 깨달은 장섭이도 뒤따라 웃었다.

《허허허.》

《하하하.》

실컷 웃고나니 피로와 잠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머리와 어깨우의 나무가지들을 털어버린 장섭은 철국이 일어나도록 부축해주었다.

《상처는 어떻소?》

《일없습시다. 날도 밝았는데 이젠 떠납시다.》

장섭은 머리를 끄덕이며 길떠날 준비를 했다. 보통이를 앞으로 멘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서있는 철국에게 다가와 널직한 잔등을 내렸다.

《업히오.》

《내가 뭐 3살난 아인줄 압니까? 내 발로 가겠습니다.》

《좋소, 그럼 나한테 의지하오.》

장섭의 말은 나직했으나 철국은 더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두먼(도문)과 앤지(연길) 시내의 적정을 정찰하러 가는 길이다. 오늘중으로 중간지점인 미강거우(밀강구)쑥새골에 도착해야 했다.

1943년에 이르러 일제의 전쟁마차는 과중한 부하와 험한 길로 인하여 당장 주저앉을듯 파멸의 벼락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해전에서 련이어 패한 일제는 그 회복을 위해 조선주둔군과 관동군의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다. 허나 그것은 밀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고말았고 《대일본제국》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일제의 패망과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다. 이번의 정찰도 사령관동지의 조국해방작전구상에 따라 진행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그런데 뜻밖의 부상으로 지장을 주다니... 장섭에게 의지한 철국은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다.

아침해빛이 서서히 수림속으로 비쳐들었다. 며칠만에 해빛을 보니 기분이 거뜨해졌다. 어둑침침

하던 숲속의 만물은 햇빛을 받아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나무들사이로는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급한 비탈길로 내려가며 장섭이가 한마디 던졌다.

《보기와는 달리 철국동무가 꽤 무겁구만.》

《...》

자기의 마음을 능쳐주려는 장섭의 심정을 모르느바 아니었지만 철국은 대답할수 없었다. 목덜미로 땀이 줄줄 흐르는 장섭을 보니 마음이 고통스러웠던것이다. 한여름에 혼자몸으로도 걷기 힘든게 산길인데 자기를 부축해가자니 그가 얼마나 힘들랴.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의 속생각을 헤아려주고있지 않은가. ...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 철국에게 장섭이가 다시 말을 건넸다.

《철국동무, 미강거우엔 가재가 많다지? 이번에 가재구이를 멋지게 해보세. 어때?》

《...》

《아 이거, 대답이 없다. 갑자기 병어리가 되었나?》

《장섭동지, 이젠 혼자 걷게 해주십시오.》

철국은 두손으로 장섭의 어깨를 밀며 떨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어렵도 없었다. 장섭이가 히죽히 웃으며 철국의 허리를 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던것이다.

철국이보다 7살 우인 장섭이는 몸집이 우람한 힘장사였고 펄펄나는 싸움꾼이었다. 소대별 씨름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1등은 독차지하곤 했고 술한 왜놈들이 그의 손에 목뼈가 부러졌다. 이번 적후정찰에 그와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철국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 매사에 침착하고 웅맹한 장섭이와 함께 가니 마음이 든든했던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짐이 될줄이야...

불쑥 유격대를 찾아 떠날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난다.

《네가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원이 되겠다니 정말 기쁘다. 한때는 나도 독립군에서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웠지만 똑똑한 령도자가 없어 종당에는 권력쟁탈만 벌리다가 흩어지고말았지.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이 이끄시는 유격대는 다르다. ...

부디 남들의 짐이 되지 말고 잘 싸우거라.》

소박한 심정을 담은 아버지의 말에 얼마나 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는가를 철국은 새삼스레 깨달았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계실까?...)

2

미강거우가 바라보이는 산골이를 돌아선 임로인

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젠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자 자기의 옷차림을 살피게 되었던것이다. 먼길을 걸으며 며칠동안 비와 진탕물에 어지러워진 차림이었다. 도로옆의 강기슭에 내려선 로인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섰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물들이 합쳐진 강물은 여름철에도 차거웠다.

《어- 차다, 어허 차다.》

산골물의 차거움에 로인은 비명비슷한 탄성을 연방 내질렀다. 온몸에 느껴지는 시원함에 로인은 옷동마저 벗어던졌다. 비와 땀으로 얼룩진 몸에 물을 끼얹으니 그 상쾌함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되었다.

《어 시원하다, 어허 시원해.》

옷몸에 연거퍼 물을 끼얹던 임로인은 문득 두손을 물속에 잠근채 굳어졌다. 로인의 소동에 와플놀란 가재들이 물속의 돌썩새기로 황급히 도망치고있었던것이다. 옛 습관이 되살아난 로인은 허리를 굽히고 돌밑을 더듬기 시작했다.

잠시후 가재 한마리를 잡은 임로인은 조심히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감회가 새로왔다.

예로부터 미강거우는 가재가 많기로 유명하다. 10여년전 임로인은 7살이 되도록 걷지 못하는 아들 철국을 업고 이곳으로 왔었다. 아들의 병치료에 가재가 특효라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병약한 아들을 업고 가재를 잡느라 시내물과 강을 따라 오간 길은 그 얼마이고 잡은 가재는 또 얼마였는지 모른다. 마침내 병을 털고 제발로 대지를 활보하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고생끝에 락이라고 이제는 제 자식도 사람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감격에 울며 웃던 나날이 떠올라 로인의 눈굽은 축축해졌다. 아들이 무척 보고싶었다. 항일유격대로 떠나간 아들을 못 본지도 이제는 여러해가 잘된다.

불시에 며칠전의 일이 떠올라 로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

초복이 지난지 닷새가 되었어도 날씨는 그리 덥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의 뒤산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다. 마당에 나선 임로인은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았다.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이 드문드문 떠있을뿐이다.

《장마가 늦어지는가. ...》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로인은 호미를 찾아들었다. 수수대울바자를 벗어나는데 시가지쪽으로 뻗어간 길에서 낫선 사나이가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저 임철국군의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임로인은 쪼프린 눈으로 낮선 사나이를 살펴 보았다. 누런 옷을 입은 사나이의 팔에는 흰 완장이 끼여있었다. 사나이의 차림새가 어딘가 왜놈 《토벌》대놈들 비슷하여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웁수다, 그런데 뉘신지.》

《몇년전에 철국군과 함께 유격대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협화회에서 일합니다.》

임로인은 사나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협화회라면 왜놈들밑에 붙어서 살아가는 놈들이 모인데가 아닌가. 그럼 혹시 이놈도...

의문은 인차 풀렸다. 의아해하는 로인에게 사나이가 구체적인 자기 소개를 했던것이다.

《내 이름은 림창수인데 유격대를 찾아가다가 그만두고 산을 내려 자수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팬찮게 산답니다. 그런데 철국군의 아버지가 여기서 산다기에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습니다.》

임로인은 긴장해졌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열뒤 살쥔 되어보이는 소녀애가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다. 한창 피여날 나이였건만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색이 창백했다. 소녀애를 띄여본 림창수가 히죽이 웃더니 들고온 가방에서 불룩한 종이봉투를 꺼내들었다.

《받아라. 맛있는 사탕이다.》

누덕누덕 기운 몽당치마에 어른의 웃저고리를 걸친 소녀애가 토방으로 나왔다. 사탕봉투를 받아든 소녀애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임로인은 아무 말없이 호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들며 음, 음 하고 마른 침을 툇았다.

림창수가 임로인의 곁으로 바싹 다가붙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의 살림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철국군도 산에서 고생하고있을겁니다. 만일 철국군이 산에서 내려오면 잘살수 있겠는데... 판동군에서는 자수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과 땅을 주지요. 그러니 아버님이 철국군에게...》

《어험.》

임로인은 헛기침을 짓고 곰방대를 토방들에 대고 탁탁 털었다. 불시에 무엇인가 먹지 못할것을 삼킨듯 심한 구토감이 치밀어올라왔던것이다.

그 바람에 림창수의 말은 동강이 났다.

임로인은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림창수를 쏘아보며 씹어뻘듯이 말했다.

《난 바쁘오. 당신도 일찌감치 돌아가는게 좋겠소.》

토방에 놓았던 호미를 집어든 로인은 딸애에게 말했다.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는게 아니다. 그걸 돌려

주거라.》

로인은 더 다른 말없이 수수발으로 향했다. 딸애도 사탕봉투를 사나이앞에 내려놓고는 자기의 자그마한 호미를 찾아들고 타박타박 아버지를 뒤쫓아갔다.

림창수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화려한 생활과 돈의 맛을 전혀 모르는 무지렁이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다니... 그자는 이발을 사러몰며 씨벌거렸다.

《어디 두고보자.》

그날 저녁 로인의 집에 헌병대놈들이 달려들었다. 로인을 헌병대로 끌어간 놈들은 류치장에 가두고 며칠동안 매질을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림창수란 놈이 류치장에 나타났다. 뻘뻘스럽게도 그자는 피투성이된 임로인을 보며 놀라는척 했다.

《아니, 늙은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개자식들!》

임로인은 퍼렇게 멍이 든 눈을 가늘게 떴다. 림가를 알아본 로인은 쓰겁게 웃으며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렇다고 물러설 림가가 아니었다.

《아버님, 이제라도 생각을 달리하는게 어떻습니까. 철국군이 이따금 미강저우쪽에 나타난다는데 아버님이 가서 그를 설복해서 데려오면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을것이고 집살림도 편이게 될 겁니다. 내 경우만 봐도...》

림가의 역설이 듣기 역겨워 임로인은 한마디 내뱉었다.

《그렇게 살아선 뭘하겠소.》

림가는 검질긴 놈이었다. 히죽이 웃으며 그자는 계속 지껄었다.

《어찌겠습니까. 사실 유격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황군〉의 〈토벌〉에 대부분이 전멸되고 몇사람이 요행 살아남아 산속에 숨어 풀뿌리와 산열매로 연명해가는 형편이지요. 승산도 없는 싸움에 청춘을 썩이느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는게 좋지요. 누가 뭐라든 말입니다. 사실 얼마전 판동군사령부에서는 각지의 헌병대들에 유격대의 가족들을 몽땅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에 살길을 찾자면...》

(유격대가 전멸하다니...)

임로인은 가슴이 섬쩍해졌다. 상처의 아픔보다 눈앞이 캄캄해져 로인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으음—》

《그러니 잘 생각해보십시오.》

컴컴해진 임로인의 얼굴색을 띄여본 림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임로인을 설복하는가 못하는가에 일제의 하수인으로 굴러떨어진 그자의 운명

이 달려있었던것이다. 교활한 일제는 몇년전부터 혁명의 배신자, 도피분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별의별 수단과 수법을 동원하여 유격대에 대한 귀순공작을 벌이고있었다. 그 수법의 하나가 유격대원들과 가족들의 혈육의 정을 악용하려는 악랄한 심리모략전이었다. 놈들의 이러한 술책을 간파하지 못한 임로인은 한동안 얼마나 사람처럼 멍청해있었다. 림가놈이 사라진 뒤 임로인은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었다. 로인이 받은 정신적충격은 어지간히 큰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이 이끄시는 유격대가 있는 한 조국은 해방되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마음의 기둥으로 안고 굴함없이 살아온 로인이였다.

(과연 저놈의 말이 사실인가?)

현병대놈들이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다. 림가놈처럼 왜놈의 개가 되어 사는것보다 죽는 편을 택할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임로인은 아들이 나타나군 한다는 미강거우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속 시원히 유격대의 소식을 알아보고싶었다.

...

뭔가 손가락을 따끔하게 깨무는 바람에 임로인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크!》

손에 잡힌 가재가 불쑥 집게발로 로인의 손가락을 물었던것이다. 그 서슬에 물에 떨어진 가재는 날래게 뺨소니쳤다. 빙그레 웃고난 임로인은 물가로 나와 옷을 입었다.

3

얼마쯤 갔는지... 울창한 수림속을 헤쳐나가던 두사람은 크고작은 바위들이 널려있는 공지에 이르렀다. 공지의 웃쪽에는 절벽이 있었다. 비에 젖어 거뭇하던 바위들은 해빛을 받아 본래의 재빛으로 변하고있었다. 평퍼짐한 바위에 다가간 장섬은 철국이가 편안히 앉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서 좀 쉬지요.》

《후- 이제야 숨이 나가누나.》

바위에 걸터앉은 철국은 막혔던 숨길이 열린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모양을 본 장섬이가 싱긋 웃었다. 얼굴과 목의 땀을 훔친 장섬이는 철국의 바지를 걷어올렸다. 부었던 상처가 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빨갧게 독을 쓰고있는것이 알렸다.

《이젠 혼자서 걸을수 있습니다. 보겠습니까?》

철국은 바지가랭이를 내리우려 했다. 허나 장섬이가 손가락으로 상처부위를 누르는 바람에 비명

을 지르고말았다.

《아야-》

《엄살두 많다.》

《아니, 그렇게 힘주어 누르면 성한 사람도 아우성을 칠겁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난 장섬이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높이를 보니 정오때가 다가오고있었다. 그가 보통이속에서 손칼을 꺼내들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철국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어찌자는겁니까?》

《겁두 많다. 쉬거나 하오.》

눈을 찡긋해보인 장섬이가 가까이의 잣나무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손칼로 잣나무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한뼘가량 벗겨낸 부위에서 진물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철국은 그가 잣나무진을 얻기 위해 그런다는것을 깨달았다. 외상치료에 잣나무진이 좋다는것은 혁명군 누구나가 잘 알고있는터였다. 하건만 철국은 눈곱이 찌릿하여 눈을 감고말았다. 자기를 부축하고 험한 산길을 건느라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랴, 그인들 어찌 휴식하고싶지 않으랴... 허나 동지를 위해 찜시간의 휴식마저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뜨거운 동지애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사람들이기에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림창수는...)

문득 몇년전의 일이 눈앞에 떠올라 철국은 입술을 깨물었다.

철국이와 림창수는 원래 미강거우일대의 지하혁명조직인 반일청년회의 성원들이였다. 조직의 결성때 처음 낯을 익힌 그들은 서로 사는 마을들이 멀리 떨어져있어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몇번 만나는 과정에 인차 가까운 사이로 되였다. 두사람이 동갑인데다 반일투쟁에 대한 토론이나 론쟁때에는 경쟁적으로 참가하여 자기들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서로가 리해하고 더욱 투철한 혁명가로 준비하여갔던것이다. 그리하여 두사람이 유격대에 입대시켜줄것을 제기했을때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한결같이 지지찬동했다. 그런데 것처럼 혁명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던 림창수가 유격대를 찾아가다가 도망칠줄이야... 혁명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림창수는 단 며칠 동안 산속에서 행군하며 피로와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버린것이다.

그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철국은 가슴이 아팠다. 이때 잣나무진을 받다가 벼랑쪽으로 달려갔던 장섬이가 흡족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붓으로 찍은

듯 한 질은 눈섭을 꿈벅이며 싱글벙글 웃는 장섭의 얼굴을 보니 철국의 마음은 한결 개운해졌다.

《어디 갔었습니까? 쉬지 않구.》

《자, 내가 어떤 보약을 가져왔는지 좀 보오. 나 한텐 이렇게 휴식이거던.》

《아니, 이진...》

철국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섭이가 그의 눈앞에 내민것은 꿀벌둥지였던것이다. 그속에는 한사발가량의 꿀이 들어있었다.

벌들한테 쏘여 부어오르기 시작한 손등과 목덜미의 부위들에 잣나무진을 바르며 장섭이가 재촉했다.

《빨리 마시게. 벌들이 날아오겠소. 난 실컷 맛보았으니 미안해할건 없소. 어- 열열하군.》

그가 맛보았으면 얼마나 맛보았으랴... 그가 판전을 피운다는것을 알면서도 철국은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동지의 뜨거운 진정이 깃든 꿀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삼켰다.

《자, 남은것은 상처에다 바르지요.》

바위밑에 털썩 주저앉은 장섭이가 철국의 상처를 처치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에 듬뿍 묻힌 꿀을 정성스레 상처에 발라주는 장섭을 보며 철국은 아버지 생각을 했다. 동네애들은 마음껏 뛰놀건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식의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였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어머니와 동생들이랑 모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아들이 훌륭한 동지들의 뜨거운 보살핌속에 조국해방을 위해 굴함없이 싸운다는것을 아시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것이다.

꿀을 바른 상처에 붓대까지 감고난 장섭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됐소. 오후쯤엔 훨훨 날아다닐수 있을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뒤따라 일어서는 철국을 장섭이가 제껴 눌러앉혔다.

《아직은 안되오.》

《야, 걸을수 있습니다. 장수보약까지 먹었더니 아픔도 없어지구 힘이 막 솟구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상처가 나으면 신세값음으로 날 업어주는게 어떻소?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 잠을 자보는게 내 소원이거던. 그런데 동무같은 약골이 나를 꽤 업어낼가?》

한쪽눈을 찡긋해보이는 장섭에게 철국은 툭 내쏘았다.

《그럼 둘러메지요.》

《좋소. 하하하.》

《하하하.》

그들의 웃음소리는 벼랑에 부딪쳐 수림 저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4

미강거우는 그리 크지 않은 부락이다. 주변의 수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고장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웃마을에 도착한 임로인은 마을의 뒤산쪽으로 향했다. 몇년전까지 수풀이 우거졌던 뒤산은 거의 벌거숭이 되다싶이 되었다. 비탈이 심한 산이었지만 여기저기에 조밭을 일구었다.

마을입구에 자리잡은 음식점을 지나는데 구수한 우동냄새가 풍겨왔다. 임로인의 얼굴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돌려졌다. 김이 문문 나는 기름진 우동이 눈앞에 떠올라 군침이 저절로 넘어갔다. 허나 돈이 한푼도 없는 로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길량식이 떨어진지도 며칠이 잘된다.

보통이에는 수수엿판대기가 하나 있었다.

딸애가 저도 먹지 않고 오빠를 만나면 주라고 넣어준것이었던것이다. 아직은 철부지이지만 오빠를 생각하는 딸애의 애뜻한 정이 담겨진것이였다. 임로인은 눈길을 내리칸채 걸음을 옮겼다.

《임성님이 아니우?》

노루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은 사람이 다가왔다. 임로인은 누군가 하여 자세히 살피보았다. 마침내 쪼프렷던 눈가의 주름살이 확 퍼졌다.

《아니, 류동생이 아닌가?》

두 로인은 너무 반가와 서로 와락 부둥켜안았다. 몇년만에 만난 두 로인의 주름진 눈가엔 물기가 내배이고있었다. 미강거우의 쪽새골기슭에서 서로 이웃하고 다정하게 살던 로인들이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들의 걸모습과 산천도 변했지만 그때의 친근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성님, 그새 무고하시우?》

《...》

임로인은 말없이 고개만 두어번 끄덕였다. 입술이 갈라터지고 당장 쓰러질듯 한 임로인의 초췌한 행색을 살펴본 류로인이 그를 무작정 음식점으로 이끌었다.

《보아하니 점심전 같은데 우선 요기부터 합시다.》

점심때가 펍 지난 뒤여서 음식점안에는 손님이 없었다. 류로인은 우동 두그릇과 막걸리를 두사발 청했다.

《난 육고집에서 한끼 잘 먹었으니 많이 드시

우.》

날라온 우동 두그릇을 임로인의 앞에 놓아주며 류로인이 말했다.

《아, 글썸 오늘 아침에 몇달째 숨박꼭질하던 오소리란 놈이 내 손에 걸려들지 않았겠수. 그놈 두 성님이 오는걸 알았는가 보우다.》

《고마우이.》

머칠을 굶었던차라 임로인은 사양하지 않고 우동 두그릇을 말끔히 요정냈다. 시원한 막걸리까지 한사발 쪽 마시고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것 같았다. 임로인이 막걸리사발의 밑굽을 내자 류로인은 흠족해했다.

《식성은 여전하군요.》

《아무렴, 못산다구 식성과 조선사람의 근본까지 버리겠나. 어험.》

두 로인은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헌데 성님이 무단강(목단강)에서 산다는 소릴 들었는데 무슨 일루 여길 오셨수?》

음식점안을 둘러본 임로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그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류로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임로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류로인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니 성님은 철국이를 데리러 왔수?》

《예끼 이 사람, 날 뭘루 보는건가.》

별걱 성을 낸 임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서둘러 음식값을 치른 류로인이 뒤쫓아 나왔다.

《성님, 어딜 가시우?》

임로인은 못 들은척 하고 가게방쪽으로 걸어갔다. 류로인이 그냥 뒤쫓아왔다.

《거기엔 가지 마시우. 성님이 이전에 알고 지내던 가게방주인은 다른 곳에 이사가고 딴 사람이 운영하고있수다.》

임로인의 걸음이 떠졌다. 류로인이 따라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어이구, 그 성미두 여전하군요. 여하튼 우리 집에 갑시다. 혹시 알겠수, 그 집 아들을 만나게 될지...》

《뉘라구?...》

임로인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류로인쪽으로 돌아섰다. 류로인이 히죽이 웃는다.

《성님의 성을 가라앉히느라 해본 소리우다.》

아닌게아니라 류로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임로인은 어느 정도 성이 가라앉았다.

얼마후 두 로인은 쪽새골로 들어가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샘터의 물도랑을 건널 때 임로인은 류로인의 걸음이 부자연스러운것을 보게 되었다.

《여보게, 다리는 왜 그 모양인가?》

《나두 성님처럼 류치장신세를 졌수다.》

《무슨 일루?》

《다시 생각하고싶지 않수다.》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것 같았다. 짐작되는바가 있어 임로인은 더 캐묻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임로인은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여보게, 자네 근간에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를 본적이 있나?》

《있수다.》

래연스러운 대답이었다. 허나 임로인의 심장은 높뛰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철국이는?》

《그 애두 봤지요.》

류로인의 표정은 여전히 천연스러웠다. 괜한 걸 묻는다는 말투였다. 흥분한 임로인은 두손으로 류로인의 한팔을 와락 부여잡았다.

《동생, 우리 철국이를 봤다는게 사실인가?... 좀 만나게 해줄수는 없겠나?》

《글썸요. 헌데 철국일 왜 만나려구 하시우? 성님 나이에 총 메구 왜놈들과 싸울수는 없는거구. 혹시 아들을 데리다가 농사일을 시키자는건 아니우?》

《또 또...》

성을 내려던 임로인은 류로인의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어려있는것을 발견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임로인은 펍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약할지고. 자네 내 심정을 알기나 하나. 그때, 나라를 찾겠다고 총을 멘 아들을 돕지 못할망정 자식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애비가 어디 있어? 자네라면 그러겠는가 말이야. 대답해보게.》

걱정이 북받친듯 임로인의 목소리는 저절로 높아졌다. 그의 솔직한 토로에 감동된 류로인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성님, 내 잘못했수다. 노여움을 푸시우. 그리구 우리 집에서 머칠쯤 푹 쉬시우. 내 인츰 철국이의 소식을 알아볼테니...》

《자네 정말 철국이 소식을 알아볼수 있나?》

임로인은 깜짝 놀라 류로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류로인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한순간 굳어졌던 임로인은 불쑥 류로인을 들어올렸다.

《동생, 정말 고마우이, 정말 고마워.》

《아— 성님, 그러다 넘어지겠수다.》

류로인을 내려놓은 임로인은 한동안 물기가 내뻗 두눈을 습벽이었다. 그러다 문득 팔소매로 눈굽을 닦더니 물도랑쪽으로 걸어갔다.

《아니, 어딜 가시우?》

《가재를 잡으려구 그러네. 그 애가 오면 가재 구이를 실컷 먹이겠네. 아이적부터 그걸 제일 좋아했거든.》

《그래요?! 그럼 나와 함께 합시다.》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 두 로인은 승벽내기로 가재를 잡기 시작했다.

5

저녁해는 서쪽산봉우리에 걸려있었다. 산기슭에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할무렵 철국이와 장섭은 쪽새골에 도착했다. 류로인의 초막이 바라보이는 뒤산에 이르러 철국은 손에 쥔 지팡이를 버렸다. 이제는 지팡이신세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걸을수 있었다. 두사람은 산우에서 잠시 지체하면서 초막과 그 주변의 동정을 살폈다.

주위는 저녁고요에 잠겨있었다. 다만 지붕위에 털가죽을 널어놓은 초막안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다.

철국은 엎드리며 장섭에게 몸을 숨기라고 신호했다.

《초막안에 누가 또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앤지시내에 있는 아들이 온게 아니요?》

《그러면 정황이 달라졌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철국은 긴장하여 초막을 주시했다. 문득 문이 열리더니 웬 로인이 밖으로 나왔다. 얼핏 보기에 류로인 같지 않았다. 로인의 거동을 보니 저녁준비를 하는것 같았다.

(누굴가?)

긴장하여 로인의 거동을 눈여겨 바라보던 철국은 깜짝 놀랐다.

(아니, 아버지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철국은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분명 아버지였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보고싶던 아버지였던가. 헤어져 어느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철국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아니, 왜 그러오?》

옆에 엎드려있던 장섭이가 눈이 휘둥그래져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철국은 자기의 리성을 되찾았다. 임무를 망각하고 감정만을 앞세운 자신을 탓하며 그는 다시 엎드렸다.

《제가 실수할번 했습니다. 사실 저 로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소?!》

철국은 머리를 끄덕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곳에 오셨을까?》
제일처럼 기뻐하던 장섭이도 그 말을 듣고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일제는 신문과 뼈라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을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을 비방증상하는것과 함께 악랄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으로 귀순공작에 인민혁명군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고다니고있었다. 그러나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라찾는 성스러운 싸움에 나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거기에 넘어갈리 만무했다. 립창수와 같은 혁명의 배신자, 동요분자들은 그야말로 한줄도 못되었다.

철국은 만약 아버지가 그런 일로 자기를 찾아왔다면 만나지 않고 돌려보내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가 간절한 기대감을 안고 초막쪽을 지켜보는데 류로인이 초막안에서 나왔다. 손을 입에 가져간 철국은 새울음소리를 냈다. 약속된 신호였다. 이소리를 들은 류로인이 그들쪽으로 달려왔다.

로인이 다가오자 철국은 잡판목속에서 일어섰다. 그를 본 류로인은 희색이 만면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철국이가 왔구만. 반갑네, 반가워.》

《그간 잘있었습니까?》

《그래, 그래. 여보게, 기뻐하게. 자네 아버지가 여기에 와계시네.》

《...》

《자, 어서 가세.》

류로인이 손을 잡아끌었으나 철국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철국이의 눈빛에서 사연을 꿰뚫어본 류로인은 임로인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었다.

혈육의 정을 악용하려는 일제의 음흉한 모략책동과 변절자 립가놈의 비렬한 행위에 철국은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한편 놈들의 책동에 말려든것 같은 아버지가 야속스러웠다.

《저, 아버지님. 저의 아버지를 돌려보내주십시오.》

고통스럽게 내뱉는 철국의 말을 들은 류로인은 흠칫 놀랐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류로인은 입을 열었다.

《자네 심정은 이해되네. 하지만 자네 잘못 생각하고있어. 자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자넬 어떻게 키웠나? 난 지금도 임자를 유격대로 떠나보내면서 자네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나네. 그때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이렇게 말했지.

〈철국아, 내 걱정은 말아. 너를 키워 이렇게 장군님유격대로 떠나보내니 내 옛날 독립군에서 왜놈들을 죽이지 못한 한이 풀리는것만 같구나.

다만 아쉬운것은 너처럼 총을 메구 왜놈들과 싸우지 못하는것이다. 늙은 이 애비의 뒤통까지 합쳐 나라 찾는 싸움에서 용감하거라.)

그런 아버지가 변할수 있다고 보나?》

류로인의 말이 끝났지만 철국은 여전히 움직일념을 안했다. 이때 장섭이가 다가와 그의 잔등을 떠밀며 말했다.

《나도 동무의 아버지를 민소.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거요. 어서 가보오.》

《알았습니다.》

장섭은 주변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그곳에 떨어지고 류로인과 철국은 초막으로 내려갔다. 초막에 이른 류로인은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성님, 누가 왔나 보시우. 철국이가 왔수다. 아들이 말이요.》

《뛰라구?!》

래일 놓을 옹노를 손질하던 임로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철국은 아버지의 앞에 나섰다.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잡힌 아버지를 보니 눈곱이 찌릿해졌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임로인의 손에서 사냥도구가 스르르 떨어졌다. 로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더듬어잡은채 말없이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참만에야 가슴속의 쌓이고 쌓인 회포를 한마디의 말로 러치였다.

《철국아, 죽기 전에 너를 보는구나.》

임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토록 보고싶던 아들이, 연약한 어린시절의 모습으로만 안겨오던 아들이 림름한 대장부가 되어 자기의 눈앞에 서있지 않는가.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철국도 목이 짹 메여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들은 오래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그 얼마였던가. 허나 정작 만난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하긴 다른 말이 필요없었다. 마주잡은 그들의 두손으로는 혈육의 정이 뜨겁게 오가고있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임로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그래, 몸은 일없느냐?》

《일없습니다.》

철국은 밝게 웃으며 두다리를 힘있게 움직여보였다. 만족한 웃음을 짓던 임로인이 불시에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다.

《이크, 제정신이 없군. 내 제격 가재구이를 해주마.》

아버지의 다심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릴적

의 심정으로 돌아간 철국은 응석꾸러기마냥 머리를 끄덕였다.

6

밤은 깊어갔다. 달빛이 환히 비쳐드는 쪽새골은 고요에 잠겨있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네 사람은 인차 잠자리에 들었다. 밤중에 길안내를 맡은 류로인의 아들이 오면 철국이네가 떠나가야 했던것이다.

철국은 아버지와 초막안에 누웠고 류로인과 장섭은 마당에 퍼놓은 멍석우에 잠자리를 정했다. 몇년만에 아들옆에 누웠건만 임로인은 잠들수 없었다. 상봉의 감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뒤엉켜 돌아갔다. 이제 몇시간후에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언제 다시 만나랴 하는 근심, 자식에 대한 금지감과 자신에 대한 불만... 로인은 자기옆에 누운 아들의 얼굴을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철국도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와 일가의 앞으로의 운명이 걱정스러웠던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놈들이 어떤 행패질을 하겠는지, 늙으신 몸 에 놈들의 탄압을 견디어낼수 있겠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쪽으로 돌아누웠다. 순간 두사람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세요?》

《어쩐지 잠이 오지 않누나.》

임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초막의 피창으로 비쳐드는 달빛에 로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철국아, 나도 래일 떠나려나.》

《아니, 래일 말이예요?》

《그렇다. 마을사람들에게 하루빨리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사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지금껏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가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줄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헌데 왜놈들이 유격대가 망했다고 떠드는 바람에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있지. 내가 류치장에 갇혀있을 때 림가란 놈도 찾아와 그따위 수작질을 하더구나.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더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지더구나. 하지만 생각할수록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죽기 전에 진실을 알아보려구 이런 걸음을 한거다. 이제 모든것을 잘 알았으니 마을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아마 모두가 기뻐할게다.》

《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난 아버지가 나보고 집에 가자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가고 근심하겠어요.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한 조국은 반드시 해방됩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을사람들에게 왜놈들의 모략선전에 속히우지 말고 가슴펴고 땀땀이 살아가라고 하십시오.》

《오냐, 알겠다. 철국아, 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갈번 했던 이 애비를 용서해라. 이제부터는 제정신을 가지고 꾀꾀이 살아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면 적들이 어떤 행패질을 하겠는지 걱정스럽군요.》

《내 걱정은 말아. 왜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조선사람을 다 죽이지는 못한다.》

철국아,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라를 찾기 전에는 살아서 집문턱을 넘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모든것을 각오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철국은 눈굽이 찢릿해움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바깥에서 류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정신차리게. 누가 오누만.》

자리에서 일어난 철국은 긴장하여 귀를 강구었다. 초막안이어서인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냥군인 류로인의 예민한 감각을 잘 알고있는지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조심히 밖으로 나갔다. 그때 오솔길쪽을 살피던 류로인이 말했다.

《가만, 덤비지들 말게. 우리 개가 짖지 않는걸 보니 우리 아들녀석인것 같네.》

모두가 주위의 동정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씨엉씨엉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소리를 들으니 우리 애가 분명하이.》

류로인이 반가와 소리쳤다.

《용진이나?》

《예, 접니다. 아버지!》

어둠속에서 젊은이의 대답소리가 울려왔다. 철국은 다가오는 류로인의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류동무, 수고했소.》

《그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눈 후 류로인의 아들이 앤지시의 적정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요즘 일제의 군수철차의 편성과 운행이 강화되고 본토로 이동하는 관동군의 병력수도 계속 늘어나고있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 일제는 철길과 역들의 경계를 강화하고있었다.

류용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국과 장섭은 자기들이 맡은 정찰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길떠날 차비를 했다. 날밝기 전에 목적지인 앤지시 교외의 남산에 도착하기로 결심

했던것이다.

여름밤은 무더웠다. 환한 빛을 뿌리던 둥근달도 어느새 먹장구름뒤에 차취를 감추었다. 폭우가 쏟아질것 같았다. 철국은 캄캄해진 하늘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부디 몸성히 계십시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내 기어이 살아서 나라를 찾고 돌아오는 너를 기다리마.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그때 가서 그 림가인지 뭔지 하는 놈과 결산도 하구.》

《아마 그자는 그때까지 살지 못할겁니다. 배신자치구 잘살고 오래 사는 놈이 없거던요.》

《네 말이 옳다. 아차, 내가 중요한걸 잊었겐군. ...》

급히 초막안에 들어갔던 임로인은 인츰 보통이를 들고 나왔다. 로인은 보통이속에서 옛판대기를 꺼내 철국에게 넘겨주었다.

《받아라, 순애가 보내는 수수엿이다. 가면서 먹도록 해라.》

철국은 녀동생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수수엿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순애한테 보낼게 아무것도 없군요.》

《일없다. 순애나 우리모두에게는 장군님소식이 기쁘이고 나라의 해방이 제일 큰 선물이다. 철국아, 나라를 찾으려면 **김일성**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것을 부디 잊지 말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이때 그들쪽으로 류로인이 다가왔다.

《참, 성님, 가족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사는데 어떻게? 왜놈들한테 아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구 말이우다.》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하지만 왜놈들이 얼마나 교활한 놈들인지 자네도 알지 않나. 난 죽어서도 내 고향, 내 땅에 묻히고싶네.》

《성님, 그 심정은 나도 같수다. 허지만 약은 참새가 방아간을 지나간다는걸 모르시우?》

《약은 참새라... 허허, 어허허허.》

《하하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적에 잠겨있던 쪽새 풀안에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잠시후 철국의 일행은 출발했다.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임로인과 류로인은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세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누가 그랬던가, 상봉은 기쁘이고 작별은 슬픔이라고... 두 로인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쁨속에 그려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높 아 가 는 집

리 정 옥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그 추억이 얼마나 값있고 긍지높은가 하는것은 그 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시대앞에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나는 20대 처녀시절에 광복거리건설에 참가했으며 지금도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광복거리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땀과 정열을 다 바치며 뛰고 또 뛰던 그 시절, 밤새 또 한층 키를 솟군 고층살림집의 층막우에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향해 희열에 넘쳐, 환희에 넘쳐 마음껏 웃음을 터치던 그 시절...

어느덧 20여년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광복거리를 거닐며 내가 세운 고층살림집을 바라보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때면 나도 이 웅장화려한 거리를 일떠세운 건설자의 한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뿌듯해지곤 한다.

얼마전 나는 취재를 위해 나갔던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 잊지 못할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을 되새겨보게 되었다. 들끓는 건설장의 전경은 단번에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낮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기초를 파던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고층살림집들이 하늘을 치뿔듯 저저마다 키를 솟구고있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힘있는 구호가 눈길을 끄는 살림집들의 층막우에서 붉은 기발들이 힘차게 펄럭이고있었다. 골재를 싣고 연방 들이닥치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경적소리, 혼합물을 쉼새없이 쏟아내는 혼합기들의 우렁찬 동음소리, 건설장을 들었다놓는 방송선전차의 힘찬 노래소리... 정말 온 건설장이 우리의 기상, 우리의 본때를 보라고 소리치며 들끓고있었다.

그 힘찬 음향, 그 놀라운 속도에 어리둥절해 한동안 서있던 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세계적인 도시로!》라는 속보판의 주먹같은 글자가 눈길을 끌어 가까이 다가갔다. 새로운 평양변영기, 평양속도의 자랑스러운 창조자들의 모습을 소개한 영에게시판

의 사진들속에서 나는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꽃목걸이를 척 걸고 환하게 웃고있는 잊지 못할 그 얼굴... 흘러간 청춘시절, 보람찼던 광복거리건설장에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사람... 돌격대 시절 나의 옛 중대장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일숨씨를 배우고 그에게서 돌격대원-건설자의 긍지와 영예를 배우며 자랐다. 또 진정한 위훈이란 무엇인지,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어떻게 꽃피워야 하는지도 그에게서 배웠다.

똑하면서도 인정미 많고 때로는 지나치랄 정도로 엄하기도 한 그때문에 눈물을 흘린적도 여러번 있었다. 한번은 내가 친 모래속에 섞인 몇개의 감탕덩어리를 놓고 어떻게나 꾸짖던지...

《동무는 이 살림집들이 단순히 콩크리트기초에 떠받들려 서있는다고 생각하오? 아니, 우리 건설자들의 량심에 떠받들려 드물지 않고 서있는거요.

물론 이 감탕덩어리 몇개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하고 생각할수도 있소. 하지만 우리는 이 살림집들에 자그마한 티 한점도 남겨서는 안되오. 그것은 이 살림집들에 우리 인민을 남부러운것 없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어려있기때문이요. 이걸 모른다면 동문 이 건설에 참가할 자격이 없소. ...》

그때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해 손수건이 폭 젖도록 눈물을 흘리던 일이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고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대한 추궁이기 전에 그의 뜨거운 진정의 토로였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었다.

청춘의 희열과 환희, 랑만으로 가득찼던 그 시절,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던 그 시절에 나는 진정 무엇을 배웠던가, 무엇을 깨달았던가.

그 나날 나의 스승이었던 옛 중대장을 오늘은 여기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그가 어느 살림집건설장에서 일하고있을가?

나는 서둘러 주위를 살펴보았다. 저기 아아하니 솟아오른 살림집건설장 층막우에서 붉은 신호기를 휘저으며 기중기를 지휘하는 저 건설자일까? 아니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글발이 눈길을 끄는

저 살림집건설장에서 진동다짐기를 틀어잡고 혼합물을 다져가는 저 건설자일까?...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높이 솟아오른 살림집건설장에 그가 꼭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저도 모르게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옛 중대장에 대한 추억을 또다시 이어갔다.

《건설자는 집이 높아가는 재미에 일한다.》, 《건설물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건설자의 땀과 열정으로 높아지고 양심으로 굳건하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그였다.

언젠가 우리가 건설하던 살림집의 마지막충막을 덮은 날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다. 사진을 찍고나서 한 대원이 웅장화려한 광복거리의 모습에 흥분하여 시를 읊듯이 《오, 희한한 살림집이여, 만년대계의 살림집이여, 너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은 더는 없으리라!》하고 웨치었다.

모두들 즉흥시가 그럴듯하다고 박수를 칠 때 중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앞으로 우리는 이 광복거리의 살림집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살림집을 보게 될거요. 그것은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는 끝이 없기때문이요.

그 사랑에 떠받들려 앞으로 우리 평양에, 온 나라에 솟아오를 래일의 살림집들을 한번 그려보오. 그것이 얼마나 웅장화려하고 아름답겠는지 아마 상상도 할수 없을거요. 그래서 난 앞으로도 영원히 집을 짓는 건설자로 살것을 결심했소.》

우리는 중대장의 말을 긍정하며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솟아오를 래일의 살림집,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살림집의 모양을 그려보았었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여기 눈부시게 변모되는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에서 그때 중대장이 하던 말을 돌이켜보노라니 정말 충격이 컸다.

그날에 한 옛 중대장의 말이 오늘 여기 만수대지구건설장에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선군시대의 희한한 새 거리로 일떠서는 여기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지난날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웅장화려하면서도 아름답게, 문명한 모습으로 건설되는 저 살림집들.

이제 저 살림집들에서 누려갈 우리 인민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할것이며 창가들마다에서 울려나올 기쁨의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즐거울것인가.

문득 지난해 선군혁명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로 입사한 우리 예술인들의 가정을 뚫어 보았으니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와 눈곱이 절로 젖어든다.

정녕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경이적인 전변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불멸의 헌신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이 땅우에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그 결심, 그 의지로 우리의 생활은 더 행복할 래일로 쉬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그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고있다.

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펼치시는 원대한 구상이,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리상이 여기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의 하루가 다르게 키를 솟구며 높아지는 살림집들에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지 않는가.

그렇다. 저 살림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을 위하시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높아지고 그이의 리상을 기어이 실천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건설자들의 충정의 열정으로 높아지고있다.

나는 저 높아가는 집들에서 래일을 보고있었다, 웅장화려하고 훌륭하게 일떠설 여기 만수대지구의 새 모습, 우리 평양의 새 모습을. 그리고 더 행복하고 휘황찬란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래일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꽃피날 그 래일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한사람이 나의 앞을 막아나섰기때문이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작가선생이 아니요?》

나의 앞에 20여년전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옛 돌격대 중대장이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겉모습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했어도 그날의 맹세를 지켜 오늘도 건설장에서 사는 그였다.

그는 손을 들어 키돋움하는 살림집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혹시... 저 집을 보면서 추억과 래일에 대한 글을 쓰려는건 아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맞혔습니다. 나는 지금 래일의 우리 평양과 그속에서 살게 될 우리들의 행복에 대하여 그려보고있답니다. 중대장동지는 나의 글의 주인공이구요.》

우리는 웃으며 높아가는 집을 향해 나란히 걸어갔다.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의 당원증

김 용 엽

당원증번호 ○○○
30대 그날부터
90대 운명의 그 순간까지
당대렬의 그 번호 생명으로 품었던
아, 어머니의 조선로동당 당원증

내 선듯 가볍게 들수 없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도
당원의 그 박동 지금도 툭툭
이 당원증에서 울려오는것만 같아

두손에 받쳐드니 삼삼해라
전쟁승리에 기여하는 보잡이명수라고
전쟁의 포화속에서
당원의 숨결을 받아안은 나의 어머니
포연서린 동구길로 무명치마자락 날리며
환희에 넘쳐 달려오던 그 모습이

그날부터 긴긴 세월
그 숨결로 가슴끓이며 지켜오지 않았던가
당대렬의 제자리
기관차가 달리는 철길의 침묵처럼 묵묵히
불타는 고지를 사수하는 병사처럼 굳건히

몸은 비록 체소해
그 모습 언듯 눈에 띄우지 않았어도
보람을 틀어쥔 그 용감성 그 신념앞엔

피했더라 폭탄도 기총탄도
물거품 되고말았어라
협동화의 첫 뺑상모 깃뭉개려
칼을 물고 날뛰던 반동놈들의 그 망상도

분명 높뛰고있구나
이 당원증번호의 수자마다에선
그 피땀스민 비탈밭 석축에서
한몸 내대여 구원한 저수지의 뚝에서
지금도 울려오는 그 불같은 심장의 고동이
90대에도 한치한치 새땅을 찾아
애국미를 마련하던 로당원의 그 맥박이

이런 어머니였기에
자식들이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면
절절히 타이르지 않았던가
당원증의 이 번호는
그 누구도 대신 못할 네 정치적생명의 위치
묵숨바쳐 지켜야 할 네 한생의 자리라고

아, 그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한몸 짱그리 바쳐온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결을 떠났어도
고동치리라 정치적생명의 숨결 당원의 그 박동
우리 당대렬과 함께 영원히
우리 자식들의 심장과 함께 대를 이어

숫 구 치 라

김 경 남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달려오는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
천연암반을 차고 숫구쳐오르는
고층살림집벽체에 나붙은 글발이어
《숫구치라》

바라보면
이 몸에 나래돌쳐
창공에 숫구쳐오르는가
내 마음은 벌써 완공된 살림집창가에서
어제와 오늘과 래일을 속삭인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바위마저 녹아버린 이 거리에
미제를 쳐부신 조선의 본때를 보이며
대동강반에 숫구쳐오른 거리
극장과 영화관 백화점과 옥류관...

오늘 또다시
선군조선의 사랑의 기념비마냥
대동강반에 숫구쳐오르는 살림집이여!
시간을 박차고 숫구쳐오르는
극장이여 상점이여 유원지여!

마치도 지층을 뚫고 솟구치던 용암이
 솟아 그대로 굳어진듯
 멀리서 보면 강반에 솟은 층층절벽인듯
 가까이에서 보면 자라는 성벽인듯
 땅을 딛고 시간을 딛고 솟구치는 살림집들

솟구치라!
 불타는 저 글밭
 누가 보라고만 쓴 글밭이라
 어버이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위에 꽃피가는
 군민건설자들의 불타는 심장

솟구치라! 나래치는 저 글밭
 누가 보라고만 쓴 글밭이라
 우리의 위성이 솟구쳐올라 우주를 날고
 희천의 언제 솟구쳐솟아 산중호수를 펼친
 군민건설자들의 담대한 모습이거니

기어이 솟구쳐오르리라
 수령님탄생 100돐 4월의 광장을 향해
 활짝 열린 새집들의 창문들에서
 행복의 웃음 축포의 꽃보라마냥 쏟아져내릴
 그날을 약속한 글밭이여

오, 솟구치라!

백 시 4편

천년만년앞에 오늘이 있다

조 영 일

먼 후날 후회하는 삶에는
 찢어진 오늘이 없고
 먼 후날 후회없는 삶에는
 찢어진 오늘이 있다

하나의 휘틀을 조립하고
 한삽의 혼합물을 다져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가를 새기여보자
 천년만년세월앞에 오늘이 있다

땀과 콘크리트

김 정 연

물과 자갈 세멘트
 이것으로만 이루어졌던가
 우리가 다져가는 콘크리트기초는

기초는 땅에 묻혀 보는 사람 없어도
 내 조국의 창조물을
 천만년을 떠받들 량심의 기초

우리는 그속에 묻었다
 물이 아닌 진심의 땀을
 자갈 아닌 애국의 심장을

병사의 휘파람

주 광 일

간밤에 또 한층
 살림집층막을 엮은 병사
 새벽바람에 땀을 식히며
 휘파람 신나게 부네

종구나 이제 고층만장을 단숨에 덮고
 대동강을 굽어보며 휘파람 부는 그날엔
 저 병사의 휘파람소리
 승전가로 하늘가에 울리리라

불보라 꽃보라

전 수 철

창공을 떠받들며 솟구친 고층살림집
 만장우에 날리는 용접의 불보라
 볼수록 멋있구나 환희롭구나

강성대국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에 터쳐오를 축포의 꽃보라
 내 벌써 여기서 다 바라보는듯!

비 날 론

주 명 옥

(전호에서 계속)

5장. 장군님 정말 또 오셨다!

그날이였다
하루가 지난
이월 초아흐레
바로 그날이였다

아침도 이른아침
비날론공장 종업원처럼
스스럼없이 방사직장에
또다시 들어서시는
아, 장군님

무척 기분이 좋으시여
즐겁게 웃으시며
다정히 물으신다
—비날론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비날론이 막... 나옵니다
죄송스러움에 오열을 터뜨리는가
토막토막 끊기우는 지배인의 대답
하지만 비날론이 나오면
어서 가보자고
지배인의 등을 떠미시는 장군님

무드기 쌓여있는
비날론숨무지앞에 멈춰서시여
숨 한웅큼 손수 손에 드신다
그리고 생각에 잠기신다

—이게 비날론숨이란 말이지...
한참만에야
이렇게 조용히 뇌이시는
그이의 음성은 젖어있었다

전선길 달리시던 그밤
차창에 날아들던 함박눈에
조용히 엿어보시던

비날론숨 생각 떠오르시는가

북방의 심산계곡을 가시는 현지도길
감돌아흐르던 젖빛안개에
비날론필을 드리워보시던
그 새벽을 마음에 그려보시는가

다시
숨 한웅큼 크게 드시고
또 만져보시며
기쁨넘친 어조로 하시는 말씀

—어서 다들 오시오
이앞에서 다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숨이랑 다 잘 보이게
크게 찍읍시다

아, 무한한 감격이여
아, 최상의 행복이여
세차게 들먹이는
일군들 방사공들 그 가슴가슴에
얼마나 큰 파도가 도도했더냐

마음에 비날론을 새기시려는듯
오래도록 걸음 못 떼시는
우리 장군님
비날론을 품에 안으시고
기울이신 정 바치신 사랑
무슨 말로 다 전하랴

우리 수령님 은덕으로
인민들과 정을 맺은 비날론이
그 비날론이
그이의 가슴속에선
기쁨으로 설레이지 않았더냐

그래서였구나
나라의 국사가 놓여있는
장군님의 집무실
그 집무탁우에 비날론전망도를
작전도마냥 펼쳐놓으시고

주체적인 비날론공장건설을
엄숙히 선포하시던 수령님처럼
새 세기 비날론공장의 현대화동음도
높이 고동치게 하심은...

진정 장군님은
수령님의 비날론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빛내주신분!

정녕 비날론은
붉은기 높이 들고
만난을 헤쳐온 우리 인민
제일 행복하게 내세우고싶으신
그이의 념원은 아니더냐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건만
비날론을 뽑는 봉애네들
또 보고싶으셔 계단을 오르신다
마음 먼저 앞서시여
다시 쿵쿵 구르시며 기대앞으로 오시는데

봉애를 가리키는
도당책임일군의 보고
-장군님! 이 동무가
여기서 30여년동안
일해온 방사공입니다

장군님 못내 대견하시여
환한 미소 보내신다
그리고 그의 수고
따뜻이 헤아려주신다
-30여년?!
정말 장하오 장해!

제 손으로 뽑아낸 비날론
가슴가득 안고
자나깨나 뵈고싶었던 그 소원 풀리는가
몸가까이 모시고
파분한 치하까지 받는 봉애

백번도 더
천번도 더
맘속으로 곱씹어보던
인사말도 못 드린채
목이 메여 머리만 깊이 숙이는데

아, 봉애 그에게
신심을 안겨주시는가
온 비날론사람들에게
담력을 키워주시는가
찌렁찌렁 울리는 장군님의 음성이어

-비날론이 쏟아지는
이 위대한 승리는
혁명의 불길속에서 백배천배로 억세어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파시한 역사적진리요!

아, 얼마나 가슴후련하냐
얼마나 배짱 든든하냐
넋이 되고 신념이 되어
피줄속에 도도히 맥박치는 그이의 말씀은
우리 삶의 환희 승리의 기쁨

치하도 주시고
힘도 북돋아주시고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앞날의 전망도 밝혀주시며
또 시간은 흘러가건만

비날론을 두고
그리도 쉬이 떠나실수 없으신듯
다시 솜앞으로 가시여
솜을 만져보시는 장군님
취셨다가는 놓으시고
놓으셨다가는 또다시 쥐여보시고...

비날론아
엄마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마냥 어리광치는 아기인양
바쁘신 장군님 발걸음 붙들고
너 무엇을 자꾸만 그이께 속삭이느냐

끝없이 깊어지는
그이의 생각의 바다
아, 그 바다의 시작과 끝에 수령님 계시는가
조용히 되뇌이시는 말씀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쿵
지구의 울림인가
가슴치는 그이의 말씀

아, 어쩌면 장군님
그리도 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것이냐

온넛이
온 심장이
그리움으로 짱그리 불불는데
끝없이 끝없이 더 뜨거워만지는
그이의 그 절절함이어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이 비날론숨을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아버이수령님께 어서 가지고갑시다

아, 가슴속 웅어리진
그 크나큰 그리움이
걱정의 세찬 파도되어
창창 솟구치며
방사공들 가슴을 치는데
우리 장군님
벌써 수령님앞에 서신듯

—이게 비날론숨이요
그래그래
비날론이 나온다니 됐소
둘이 이렇게 보배가 되거던
이게 주체요 주체!
라고 기쁨에 넘치실
아, 수령님 그 음성 들으시는가

수십년전 못 잊을 그날
수령님을 우러러 꽃다발을 흔들던
봉애 채금이
가슴속 그리움으로 안고살던
그 꽃다발 삼가 다시 엮느나

눈처럼 희고
명주처럼 부드러운 비날론숨
한줌 또 한줌 마음에 싸안아
정히도 담는다
정히도 담는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그날을 못 잊어
날에 날마다 하루와 같이
쌓이고쌓여온
그 그리움을 다 담아...

방울방울 젖어드는
그 그리움의 무게인가
비날론숨 두손에 받쳐드니
아, 너무도 무거웁구나

우리 장군님
수령님께 가져다드릴 그 숨
그 숨을 운명의 숨인듯 안아보는 봉애
심장을 터치고터치는
그의 절절한 아뢰임이어

—수령님!
삼가 드리는 이 비날론숨
선군세월의 비바람 눈바람
다 맞으신 우리 장군님
하루빨리 아버지수령님께 드리고싶어하시던
그 비날론숨입니다

차는 떠나가도
수령님품으로 달려가는
그 비날론과 함께 가는
봉애네들의 마음
비날론지구의 마음

아, 가고있다
장군님과 함께
온 비날론지구가 가고있다
비날론,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비날론, 아버지수령님 품으로!

6장. 비날론영웅

장군님은 떠나가시고
일군들과 방사공들
그이를 바래드리고...
그러나 비날론의 노래는
어이 끝나지 못하느나

같은 해 같은 달
초이페
초아흐레
너무도 꿈같은 날들에
평생소원 다 이루었건만
그 어인 일이나

기슭에 가득 차오르는 물결인양
더 북받치는 그리움은
날마다 날마다 더해만지고

아마도 장군님
너무도 많은 정
남겨두고 가심이 아니더냐
방사공들의 날과 달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나 봉애
아직 알지 못한다
얼마전 갓 입직한
덕화며 춘애 옥실이도
그리고 책임비서 지배인까지도

이월초라 날씨는 찬데
차창을 내리신채
오래도록 손 흔드시며
않지들 말고 잘있으라고
거듭 당부하며 떠나신 장군님

아, 또다시
자신의 존함으로
특별감사문 보내주셨으니
어찌 그뿐이라
훈장수훈식도 크게 하라고
가르치심도 주셨으니

명절을 맞는 아이들마냥
서로 열싸안고
기쁨에 젖는 방사공들
걱정의 파도에 떠실리는 온 비날론지구

그날 공업도시 중심에
웅장하게 자리잡고있는
함흥대극장의 관람석은
온통 비날론공장사람들로
한자리도 비지 앉았다

대극장이 그대로 환희의 바다런듯
오늘처럼 이들이
환해진 얼굴 높이 든적 있더냐
오늘 위해 아껴오던 옷 떨쳐입은 그들

물을 뿌린듯 정숙해진 수훈식장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부르니
온몸이 그대로 귀가 된 비날론사람들

홀릴세라

놓칠세라
새기고새기는 그들
자주 눈가에 손길이 간다
조용히 어깨가 흔들리며 오르내린다

아, 어찌먼
비날론로동계급
이토록 아껴주시고
온 나라앞에 이리도 떳떳이
내세워주신단 말인가

너무도 평범한 이름들 불리우는데
—림봉애
순간 봉애 제 귀를 의심했다
(혹시 이름을?
무슨 실수는?
내가 정말?...)

울렁이는 가슴 애써 누르며
주석단앞으로 나간다
로력영웅메달
그의 앞가슴에
조용히 조용히 없어진다

여러대의 촬영기들
은백색섬광 번쩍번쩍
얼굴이며 앞가슴이며
렌즈의 초점을 맞추니
차마 물을수도 없는 일

도무지 가늠되지 않았다
어떻게 계단을 밟고
주석단위로 걸어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자리에 와앉았는지

다만 이름 못할
크고 뜨거운것이
가슴속을 마구 풀무질하며
심장이 겨웁도록
온몸을 달군다

(꿈은 아닐가?
내가 영웅이라니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스스로 부인해보려 애쓰는 속생각

저도 몰래 지그시 감았던 두눈
다시 크게 뜨고 훈장증서 펼쳐드니
—로력영웅 림봉애
또다시 보아도
—로력영웅 림봉애

(내가 영웅이 되다니?!)
하지만 증서엔
뚜렷이 밝혀졌거니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나라의 정령으로 적혀진 그의 이름이!

—우성봉
그가 일어서자 더 요란한 박수소리
우아бай를 못 잇는 그 마음은 아니냐
애티나는 20대의 그의 아들
얼마나 대견하나

하나밖에 없는 비날론총각영웅
그에게서 떨어질줄 모르는 눈길들
하지만 지금 류달리 방망이질하는
은희의 가슴

비날론 새로운 출생과 함께
더 깊어진 그들사이
누가 모르랴
주석단앞에 서있는 성봉이보다
더 빨강게 익는 은희의 뺨을!

누가 엿볼세라
때늦은 퇴근길...
비날론필 그 은무지개우에서
견우직녀로 만나자 약속하던
황홀한 청춘들의 그밤을!

고사총은 자신있어도
방사기는 아직 서툴러
성봉의 기술전습 받더니
비날론처럼 깨끗한 그 맘에
어느새 반했던가

성실하다 마음곱다
좋은 말만 곧잘 하는걸 보니...
그러나 처녀는 제대군인당원
총각은 청년동맹원

끌리면서도 멀어지려 애쓰던 성봉
하지만 사랑은 불길

그 고민도 산산이 태우는...
방사기에 감기는 실발마냥
늘 함께 감겨돌며
더 붉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아, 이 나라 처녀들이여
부러워하라
그리고 아낌없는 축복을 보내주자
비날론총각영웅을 사랑하는
우리의 은희에게

나의 마지막글줄까지
따라서는 사람들이여
웃차림마저 너무 수수해
출근길에선 더욱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주인공들
이렇게 나라의 영웅 되었거니

그후 어느날
영문을 알수 없어
마음쓰는 봉애에게
뜨거움에 젖어 전하는
련합기업소 책임비서의 이야기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그 이야기

일군들이 올린
수훈자명단을 보시던 장군님
—30여년을 방사공으로 일한
림봉애동무의 이름이 왜 없소?
라고 못내 마음쓰시며

어려운 속에서도 일터를 떠나지 않고
기대를 지키며
방사공들을 이끌어온
그 소행 기특히 여기셨는가

그런 동무가
바로 영웅이라고
자신께선 그 동무를 추천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연

눈앞을 가리우며
호르고호르는 눈물이어
너무도 가슴벅참에
언어가 무색해지는 순간
너는 고마움의 말을 대신하는가

방사기앞에서

잠깐 만난 그를
이처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일터를 지킨
그것이 값높은것이라고

아,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꿈같은 이야기
전설같은 이야기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인민에게 있다더냐

물어보자 우리 조국력사
그 언제 그 어느때 이렇듯
하나의 전쟁사에 기록될수 있는
74명의 영웅이 배출된적 있었더냐
그들은 바로 그대와 나처럼 평범했고
공장속보판에 나붙어도
얼굴 붉히는 소박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애지중지 아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은혜로운 장군님 품속에서
이렇듯 대견하게 자라났거니

전례없는 이 경사 이 기쁨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랴
비날론의 영원한 흐름과 함께
길이 전해갈 이 전설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른대도
내 어이 다 노래하랴

7장. 군중대회

그해
삼월 초엿새
류다른 봄눈이
꽃잎마냥 고요히 날리는
함흥시군중대회장

아침바다처럼 일렁이는
그 경축광장에
하얀 비날론솜
축하의 은빛보라 되어
내리고내리느냐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만져보고 또 만져보실 때

비날론솜에 스며들던 온기
오늘도 고이 간직하고 내리고내리느냐

생각도 깊어지는 광장에
한송이 두송이
뜨거이 내려앉는 함박눈 함박눈
비날론의 승리를 위해
오늘의 이 기쁨을 위해
맞으신 눈
헤치신 눈
앞앞에 다 헤아려져

아, 목메이는 생각이여
비날론은 정녕 돌에서
태어나지 않았구나
장군님어깨우에 내리고내린
그 찬눈이 모이고모여
그 열기에 덥혀져 따스한 솜이 되었구나

행사행렬
맨앞 중심에 모셔진
두상의 대형사진
사람들의 시선
확— 끌어당기는 그 사진

한상은
반세기전 못 잊을 그날
비날론조업식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연단에서
만면에 환한 미소 뿌리시는
수령님모습

또 한상은
얼마전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온
쏟아져내린 비날론솜 손수 손에 드시고
그리도 기쁨에 넘치시던
장군님모습

새 세기의 비날론
온 나라 대경사로 맞이하는
력사의 이 광장에
이렇게 함께 높이 모셨으니
우리 어이 눈곱이 젖지 않으랴
우리 어이 마음이 젖지 않으랴

말해주노라
두상의 사진이
우리 비날론을 안으시고

마음도 많이 써오신
걸음도 많이 걸으신
불멸의 애국애민의 헌신을...
빛나고빛나라 두상의 사진이여
아버이의 그 영상이여

복받은 땅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 먼먼 앞날까지
아, 그 사진은 약속하노라
언제나 비날론이 흐를것을!
그리고 길이 영광이 있을것을!

도시가 생겨 오늘처럼
꽃이 많아본적 있었더냐
이날처럼 많은 사람들
기쁨에 설레본적 있었더냐

손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이른새벽부터 물밀듯이 모여든
각계층의 남녀로소들
시간이 흘러 시간이 박두해올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저도 몰래 움트는
꼭같은 소원이여

새로운 비날론 출생을 경축하는
온 나라의 대경사
높은 연단에
그날의 수령님처럼
장군님을 모셨으면...

아, 어찌 비날론도시
그 사람들뿐이라
이 경축광장으로 굽이쳐오는
이 나라 천만군민
그들의 념원은 아니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
다발마다 담았느냐
평양하늘을 향해
жат을줄 모르며 파도치는
꽃의 바다, 꽃바다의 설레임

하지만 어제 밤
누구나 알지 않았더냐
예서 또 천리 먼
북방의 철의 기지

그 일터에 계신다는 장군님현지도소식

아쉬움속에 시간이 흐를 때
꿈이라면 깨지 말고 한생 그 꿈속에 살고싶은
순간!

경축대회 시작의 환영곡이 울리고
꽃다발이 파도치고
만세의 폭풍이 솟구칠 때

—장군님 오셨다!
—장군님 오셨다!
아, 민심은 천심이였거늘
그 천심의 하늘이신 그이
인민의 심정 어이 모르시리

파도쳐설레이는 꽃다발우에
태양의 모습으로
력력히 비쳐오는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모습을!

오직 주석단 그 한가운데로
눈길이 쏠리고
얼굴이 돌려지고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더 가까이
장군님모습 새기고싶어
마음쓰는 사람들
앞으로 앞으로만 조여지는 행렬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또 발돋움하는 군중들
그이의 시선이며 손짓이며
잇을세라 눈동자에 새긴다
그 모든것이 너무도 귀중했기에...

초봄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쌀쌀한데
진눈까비마저 점점이 흘날리니
차츰 차지는 날씨

겨우내 쌓인 눈
아직 채 녹지 않은
그 추운 북방길에서
한달음으로 오셨건만

비날론도시사람들

어서 만나고싶으시여
어서 축복해주고싶으시여
먼먼길 오신 그 걸음으로
연단에 나서신 장군님

어서빨리
더운 곳에 모셔야지
어서빨리
찬품 녹여드려야지
바재이는 가슴가슴들

그러나 그이께선
비날론도시사람들과
오래 있고싶으시여
마지막토론까지 다 들으셨고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니

더욱 목메어
뽀얗게 흐려지는 눈길들
주석단 높이높이 우러른다
젖어드는 목소리로
만세를 부르고부른다

어느덧 경축대회는 끝났으나
더욱 고조되는 만세의 함성
꽃다발의 파도
하건만 장군님 발걸음 못 떼시고
다시 군중을 향해 손 높이 들어 흔드시며
아, 또 인사를 보내신다

그러시고도 헤어지기 아쉬워
주석단 끝에서 끝으로 오가시며
자신의 정을 다 담아
오래도록 손 흔드시니

아, 그것은 진정
떨어야 떨수 없는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부모자식들간의 꾸밈수 없는 애뜻한 정

장군님 마음속에 안고가실
만민의 열화같은
감사의 메아리인양
하늘땅을 떨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고마움도

기쁨도
그 한마디에
비날론사람들은 다 담았고

영광도
소원도
맹세도
그 한마디에
비날론도시는 다 담았거니

축복받은 도시의
때늦은 함박눈 함박눈
달아오른 얼굴들에
송이송이 내려앉는다
불타는 마음들에
끝없이 내리고내려앉는다

×

오늘도 아침출근길 서두르는
봉애와 채금
어이 알리 그날처럼
장군님 또 오실지...
그들의 가슴속에선
그이의 말씀이 오늘도 뜨겁게 울린다

비날론공장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내가 지나다니다
아무때나 들릴수 있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의 그 뜻
그날엔 다 몰랐어도
봉애 어찌 모르랴
그해 삼복철에도
다음해 정월 대소한계절에도
또 장군님 오셨으니...

—비날론대문을 열어놓으라
얼마나 생각 깊어지느냐
어느때나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를
그토록 바라고바라시는
그 불타는 념원은 아니신가

—비날론대문을 열어놓으라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느냐

인민의 기쁨 넘치는
이 만복의 대문을 열고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서실
그 확고한 결심은 아니신가

아, 비날론공장대문이어
우리 장군님 어찌하여
정든 집 문처럼
그리도 자주 그리도 때없이
너를 열고 들어서시는것인지
가슴헤쳐 말해줄수 없느냐

그러나 비날론사람
그 누가 모르랴
그래서 이 아침도 간단다
장군님 기쁘게 들어서실
그 대문을 세월의 끝까지 열려

활기넘친 발걸음 다그치는데
그들앞에서
저기 앞서가는 은희와 성봉이
—저것 봐 호호…
봉애를 쿡 찌르는 채금이

이렇게 그들의 출근길은 시작되거니
이렇게 비날론사람들의
보답의 길은 날마다 계속되리라

맺 음 시

성천강
고향의 달디단 물줄기여
내 태어난 첫날부터
너의 맑은 물 마시고 자랐건만
그러나 그 풍만한 흐름
어제도 오늘도 줄지 않았구나

그러하더라
나의 노래 부르고불러도
이제 시작이나 한듯
어인 일이나 붓을 놓으려니
많고많은 노래
너의 흐름처럼 더 풍만해지는것은…

허나 내 아노라
내 한생 불려도
못다 부를 노래여라
비날론의 노래는…

날마다 더해지는 사랑의 전설로
고향의 강아
사랑하는 강아
아름다운 너의 노래는
영원한 네 흐름처럼 마르지 않으리라!

가 사

나 의 복 순 이

성 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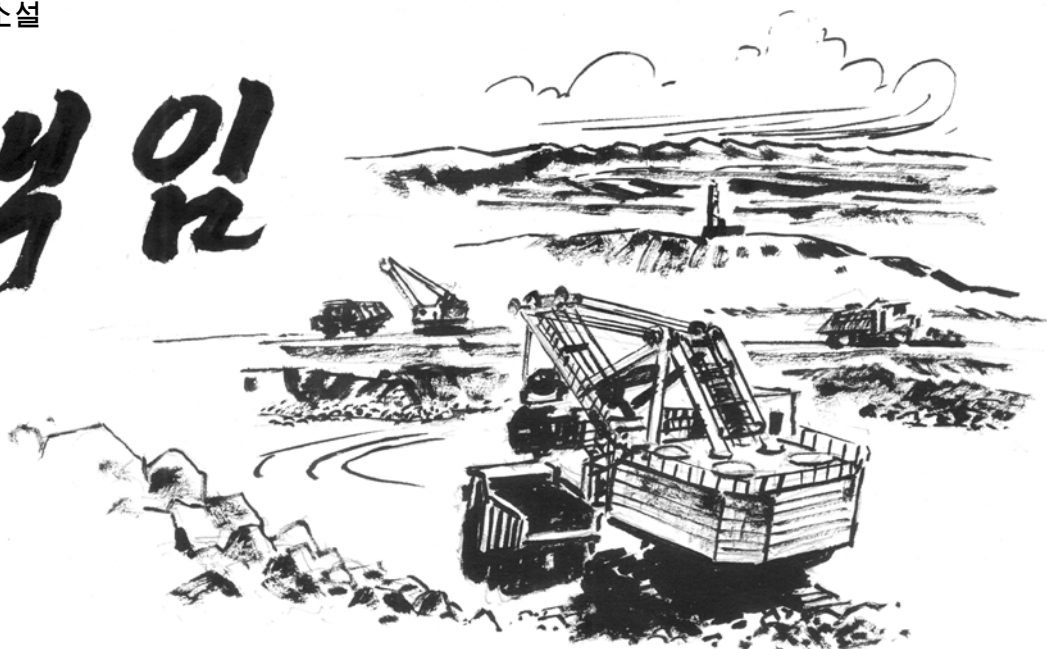
휘휘 호호 휘파람 노래부르며
해질녘 들판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 분조 처녀들이 날보고 묻소
아바이의 복순이 누구이냐고
어허허 이것 봐라 나의 복순이
아직도 모르다니 나의 복순이

더운 땀 땀 흘린 들길을 가면
가슴속에 휘파람 절로 난다오
아지치는 벼포기 설레일수록

내 기쁨도 저 멀리 파도쳐가오
오늘은 말해줄가 나의 복순이
내 사랑 말해줄가 나의 복순이

꿈에도 푸른 곡식 자라는 들판
그게 바로 내 사랑 복순이라오
그랬더니 처녀들 웃음 터치며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답대요
아무렴 이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한생을 바쳐가라 내 고향벌에

책임



라 광 철

1

쿵— 쿵쿵— 발파소리가 철무봉의 하늘가를 뒤 흔들며 울려 퍼졌다.

《거 발파소리 여물었는걸. 역시 성남소대장이 할줄 알거던.》

리철석광구장은 두툼한 솜장갑을 낀 손으로 벌거우리하게 얼어든 너부죽한 얼굴을 썩썩 문대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곁에 서있던 유철이도 발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긴장했던 월생산계획때문에 현장에 노상 나가 살다싶이 하던 김유철은 리철석과 함께 방금 사무실로 들어서는 길이었다.

《거 날씨가 보통이 아닌데!》

광구장은 눈가루가 하얗게 달라붙은 털모자와 솜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흥그러운 기분으로 말했다.

《하여튼 올해날씨는 류별나군. 질질 끌던 강추위가 좀 수그러드느가 했더니 이젠 우수가 지나서 별안간 또 기승을 부리는군, 예예.》

철석은 두덜거리듯 말하고나서 난로우에서 김을 물물 뿜어올리고있는 주전자의 물을 한고뿌 따라 두터운 입술로 훌훌 불며 마셨다.

순간 사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경쾌한 음향의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철석은 틀진 걸음으로 전화기앞으로 다가가 특특 마디가 불거진 손으로 우유빛이 도는 송수화기

를 들었다.

《다섯시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광구장은 송수화기를 놓더니 미소를 짓고 유철을 바라보았다.

유철은 창문에 성애가 끼기 시작한것을 보고 창문가에 놓여있던 화분들을 난로가까이에 있는 원탁우로 옮겨놓고있었다.

《부문당비서동무, 다섯시부터 이달 생산총화를 한다누만요!》

《그렇습니까. 그럼 광구장동무야 가슴을 짝 펴고 참가해야지요.》

유철은 준수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철석도 환히 웃었다. 그는 얼어붙었던 몸이 어지간히 풀리는듯 두손을 썩썩 부비며 자기의 책상에 마주앉았다.

생산실적기록부를 짚 훑어보던 철석의 입이 또 다시 빙글서해졌다.

《이달에도 아마 광산적으로 우리 광구가 최고 실적일거요. 참, 이번에 부문당비서동무가 성남이네 굴진소대에 나가 정말 수고를 했수다. 역시 굴진이 앞에서 땀다 달리니 채광, 운반 모든 뒤공정들이 얼음판에 박밀듯 쭉쭉 나가거던. 그저 우리 광구에서는 성남이 그 사람네 굴진이 한몫 제껴주거던요.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광구별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은 문제없다니까.》

철석은 흐뭇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나야 별로 한 일이 있습니까. 굴진소대동무들

이 수고를 했지요!》

《그게 다 부문당비서동무가 현장에서 정치사업을 잘했기때문이 아니요!》

광구장은 유철에게 담배를 권하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었다.

《진짜 정치사업은 나보다도 로광부인 덕배아바이가 잘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아바이가 소대원들을 불러일으키곤 했지요. 난 이번에 우리 오랜 로동계급의 고상한 정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구 참, 광구장동지! 이번에 성남소대장동무가 창안한 그 확공정일이 큰 은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발한 창안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앓아 뭇개고있을지 모릅니다.》

유철의 말을 듣던 철석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넘실거렸다. 그는 두볼이 움푹 패이도록 깊숙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었다가 기분 좋게 내뿜었다.

《정말 성남소대장이야 우리 광구의 보배덩이지요. 앞으로 틀림없는 영웅감이지요. 기술에 밝지, 탐구심이 있지, 일욕심두 있지. 게다가 사람이 말없이 진국이거던. 앞으로 광구장 아니, 광산지배인도 할수 있는 진짜재목감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소? 부문당비서동무!》

웅글은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기가 키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랑이 한껏 풍겨나오고있었다.

《...》

유철은 대답없이 저르기 들떠있는 철석광구장의 얼굴을 쳐다보며 시뭇이 웃기만 했다. 왜선지 선뜻 철석의 말을 긍정하게 되지 않는 자신을 느꼈기때문이었다. 무엇때문일까?... 유철의 머리속에는 이 순간 막장에 혼자 석상처럼 앉아있던 성남소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업이 끝난지 한참이 되어서도 성남소대장이 소갱안에서 나오지 않아 유철은 무슨 일인가 하여 갱입구로 다시 다가갔다. 성남을 소리쳐 찾으려던 그는 류다른 느낌이 들어 소갱안으로 들어갔다.

알싸한 화약냄새와 돌가루냄새가 떠도는 막장안에 안전등빛이 불그레하게 비치고있었다. 살펴보니 무엇에 홀린듯이 까닥없이 앉아있던 성남이 착암구멍을 한동안 들여다보고는 정대를 들어 정날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기를 몇번 반복하더니 별안간 주먹을 부르쥐고 뒤 흔들며 《찾았다!》하고 굴간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저르기 흥분된 소리를 질렀다.

《?!...》

무릎걸음으로 덩벼치며 나오던 성남은 유철과 마주치자 손을 덥석 잡았다.

《됐습니다, 부문당비서동지!》

유철은 어리둥절해졌다.

《도대체 무엇이 뻘다는거요?》

소대는 굳고 불이 잘 안 받는 특수한 암석에 부딪쳐 발파구멍을 보통때의 곱으로 뚫으며 힘겹게 전진하고있었다. 그래도 발파효율이 떨어져 소대는 애를 먹고있었다.

무슨 방도가 있어야 했다. 뒤에서 채광이 바짝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있는 형편에서 그들이 굴진 속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광구의 전반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유철은 소대원들과 거둡 방도를 토의했으나 뽕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다. 오랜 광부인 덕배아바이도 안타까와할뿐 신통한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그래도 바라볼것은 광업전문학교 졸업생인 소대장 성남이었다. 성남이도 머리를 싸쥐고 생각을 거둡하곤 했다. 그러더니 끝내...

성남은 손세를 써가며 자기의 착상을 설명했다.

지금 쓰는 일자형의 정날을 날개식으로 개조하여 발파구멍의 안쪽을 확공해주게 되면 착암구멍수를 줄이면서도 발파효율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 것이었다.

《될수 있겠소, 소대장동무. 정말 수고했소. 사람들이 동무를 두고 박사머리, 박사머리 하길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하하!》

유철은 너무 기뻐 성남의 넓은 어깨를 와락 그러안았다.

헌데 성남은 왜서인지 시무룩해서 유철의 손을 떼놓았다.

《저같은게 무슨 박사겠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한치 앞밖에 못 보는 눈쁜 소경이지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저 해보는 소립니다.》

성남은 허거프게 웃기만 했다.

유철은 그러는 성남을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갑자기 왜 저렇가? 혹 마음속에 무슨 사연을 안고있는게 아닐가? 방금전까지 그리도 빛나던 눈이 저렇듯 어두워지다니... 유철은 가슴이 묵직해나는 것을 느꼈다. ...

《참, 그 동무의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내 보기엔 연구사가 되면 정말 큰일을 할 사람같아 보이더군요.》

유철은 생각에 잠겨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러자 철석은 꺄꺄 소리내어 웃었다.

《그 사람이 광업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인데 정말 재간둥이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엔 몇년 일하면서 창안을 몇가지 하더니 공업시험소엘 가겠다고 뽕을 씹디다. 그래 내 그 사람을 안착시키느라고 꽤 품을 들였지요. 내가 그렇게 쓸만 한 사람을 쉽게 놔줄것 같습니까.》

부문당비서동무! 우리 일꾼들이야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잘 보고 적재적소에 쓸줄 알아야지요. 내 광구장 10여년에 광맥 보는 눈에다 사람 보는 눈

은 뒀다니까요, 하하…》

철석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유철은 그러는 철석을 바라보며 웃었다.

《지금은 가겠다고 안합니까?》

철석은 부리부리한 두눈을 슬쩍거리더니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내 눈에 들고 손탁에 들면야… 이제 는 그런 생각은 없어진지 오래지요. 그 사람에겐 이제 오직 생산밖에 생각이 없습다.》

《그래두 사람의 희망이라는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철석은 굴착기바가지삽날같은 큰 손을 휘휘 내 저었다.

《아, 희망이라는데 별거요. 여기서 일을 잘 해 혁신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일군으로 발전하면 그게 곧 희망이 실현되는게 아니겠소. 사람은 그 저 일을 잘해야 모든게 다 잘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도 자기 앞날에 대한 생각이 다 있지요.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구 우리 광구에 확고히 발을 붙였다니까요. 그건 내가 장담하오. 오죽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던 애인과 갈라지면서까지 끄떡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광구장은 쓰거운듯 입을 꾹꾹 다시었다.

《그 동무한테 굴진공을 그만두고 다른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처녀가 있었습다, 허참!

그 처녀의 눈이 멀었지요. 처음엔 우리 성남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길래 사람 불줄을 좀 안다 했는데, 예예. 사람이야 현재만 볼게 아니라 앞날을 봐야 할게 아니겠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소대장이 영웅이 되는 날엔 아마 가슴을 좀 앓을거 우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유철은 심중해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도 서로 사랑했었는데 성남동무의 가슴에 상처가 남지 않았을가요?》

《원, 무슨 소릴. 이제 그 처녀 잊어버린지도 오래오. 그리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남소대장이 그 처녀한테대 대면야 과분하지요. 아예 갈라지길 잘했소.》

《그래도…》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처녀가 도대체 누구니까?》

유철은 책상앞에 바위처럼 딱 앉아있는 광구장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부문당비서동무도 생각날게요. 언젠가 여기 왔던 그 처녀의사 있지 않소? 인물은 괜찮은데… 눈은 틀렸소.》

유철은 대번에 그 처녀가 생각났다.

…그래도 광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조심스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눈같이 흰 숨 옷에 위생가방을 멘 단아한 얼굴의 처녀의사가 들어섰다. 정기가 흐르는 그의 두눈과 몸가짐에서는 어딘가 지성적이면서도 도담한 체취가 풍겼다. 그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말했다.

《병원에서 돌림감기 예방접종을 나왔습다.》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다. 우선 여기 와서 몸이나 좀 녹이십시오.》

유철이 의자를 난로앞으로 끄당겨놓으며 권했다.

《괜찮습다. 교대시간에 광구사람들을 다 예방접종하자면 시간이 바쁩니다.》

처녀의사는 벌써 위생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여 들고있었다.

《그럼 할수 없구만.》

유철은 먼저 예방접종을 했다.

철석은 갑자기 무엇이 그리 바쁜지 문건에 눈길을 박은채 처녀의사쪽을 쳐다볼념도 안했다.

그는 처녀의사가 자기에게 몇걸음 다가서자 손을 뻗 내저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난 감기를 앓지 않소.》

처녀의사는 입술을 감쳐물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의 얼굴이 단박에 해쓱해졌다. 그러더니 쌀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예방접종에는 누구나 다 참가해야 합니다.》

철석은 문건을 뒤적거리며 시끄럽다는듯 물풍스레 말했다.

《시간이 바쁜데 다른 사람들한테나 빨리 가보오.》

처녀의사는 잠시 원망어린 눈길로 철석을 바라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사무실문을 나섰다.

유철은 광구장의 그러한 태도가 민망스러워 나무람조로 말했다.

《아니, 이 추운날 우리 광부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철석은 기분이 상한다는듯이 이마살을 찌프렸다.

《내 그럴만한 일이 좀 있습다.》

유철은 그때 광구장이 기분나빠하는것을 구태여 캐묻고싶지 않아 그냥 스쳐지났었다. …

《그랬됐군요.》

유철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끄덕였다.

《까짓 차라리 잘됐지요. 우리 성남소대장이 그 처녀 아니면 장갈 못 가겠소. 내 지금껏 보니 얼굴만 뻔뻔하구 속이 깊지 못한 처녀하고 살면 속만 썩인단니까요. 더 생각지 마슈.》

철석은 쓰겁다는듯 입만 다셨다.
이윽고 철석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책상우에 놓인 사업일지를 오후리에 끼며 일어섰다.
《난 회의에 가겠소. 부문당비서동무도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구려.》

유철은 머리만 끄덕이었다.
《팅!》
문닫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뒤흔들어놓았다. 하지만 유철은 이윽도록 자기 상념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혁신자로 소문난 성남소대장한테 무척 똑똑해보이는 그 처녀가 왜 그랬을까? 광구장의 말대로 성남이가 공업시험소로 가지 않았기때문에?... 그 처녀도 우리 당의 품에서 자라난 새 세대 청년이 아닌가? 유철은 어쩐지 그렇게만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듯 서운한 마음이 점점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문을 나섰다. 밖에 나서자 눈바람이 한결 더 기승스럽게 불어쳤다.
유철은 정신이 번쩍 들며 자신이 왜 밖으로 나왔는가를 생각했다. 성남이를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때일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긴지도 아닌데...)

유철은 자기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것이 단순히 성남의 사랑문제가 아님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똑똑히 이름할수가 없었다.

(내가 소대에 내려가있었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었구나. 그 동무가 나한테 무엇을 제기한것은 없었던가?)

이번에 그 소대에 나가있는 기간의 생활을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별다른 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도 잘하고 나무랄데 없는듯 한 그를 보거나 생각할 때면 어쩐지 마음이 늘 이렇게 개운치 못한것은 과연 무엇때문일까?)

성남소대장의 눈에 이따금 비끼곤 하던 괴로운 눈빛, 그것이 단순히 처녀와 갈라진 그때문일까? 그는 언젠가 자기를 한치 앞밖에 못 보는 눈쁜 소경이라고 했었지. 내가 생산이 올라가는것은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비껴있는것은 보지 못했구나.

발길은 어느새 굴진소대현장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백설에 뒤덮인 철무봉은 지금따라 더욱 웅장해보이며 늘 걷던 현장길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세찬 눈보라는 파도처럼 몰려들곤 했다. 하늘땅이 온통 눈보라속에 잠겨버렸다.

소대휴게실에 들어서니 안전등을 손질하고있던 성남이 주춤 일어섰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

성남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쌍꺼풀이 진 인상적인 두눈을 보며 그는 속으로 웃었다.
(허참, 처녀라면 저 눈에 홀리워 여기까지 왔다고 하겠는데 나는 무엇에 홀리웠담.)

한동안 서로 일상적인 생산이야기가 오간 뒤에야 유철은 웃으며 속에 있던 생각을 던지시 물었다.

《소대장동문 애인과 왜 갈라졌소?》
뜻밖의 물음을 당한 성남은 놀라며 앉았던 자리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한순간일뿐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버림을 받았지요.》
《허허, 성남동무가 마음에 꼭 들면 그래 처녀하나 휘여잡지 못한단 말이요? 광부답지 않게. 그 처녀를 보니 똑똑해보이던데.》

《똑똑하구 또 미인이지요!》
그는 주먹으로 지그시 자기가 앉은 참나무의자를 내려누르며 비양조로 말했다.

유철은 성남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았소?》
《내가 공업시험소엘 가길 바랐지요. ... 굴진공이 싫다는겁니다.》

그의 눈빛에선 애달프고 무엇인가 원망스러워하는 빛이 확연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그 빛은 가느다란 한숨과 함께 인차 사그라들고말았다.

유철은 비로소 성남의 눈빛에 청춘의 랑만과 희열이 결핍되어있는듯 한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미래에 불타는 생신한 빛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체념한듯 한 세계가 비껴있었다. 저런 눈빛을 가지고서는 무슨 일이든 잘될수 없는것이다.

유철은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었다. 그것이 단순히 부문당비서로 온지 일년도 채 안되어서이겠는가?!

유철은 성남에게서 심장이 들여다보이는듯 한 눈빛을 두번째로 보았다. 처음은 확공정알에 대한 착상을 설명하던 때였고 두번째로 바로 이 순간이었다.

《소대장동문 여적 그 처녀를 사랑하겠지?》
《...》

한동안 눈보라 몰아치는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던 성남은 후 긴숨을 내쉬더니 《아마 내가 그 처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놈인가 봅니다. 설향동무는 내가 공부도 더 하구 연구를 해서... 아니, 그 만합시다. 이런 말을 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광구장동지 말대로 일을 팡팡 하는게 장짱이지요. 그래서 영웅도 되고 광구장도 되고…» 하고 맥없이 말했다.

그러는 성남을 지켜보는 유철의 가슴은 무거웠다. 저것이 단순한 몸부림일까.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진것때문에?... 아니, 그런것만 같지도 않다. 성남은 그런 사내가 아니다.

유철은 휴게실에서 나와 퇴근하려던 걸음을 돌려 다시 사무실로 왔다.

광업전문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지금까지 굴진소대장으로서 매해 계획을 앞당겨 끝낸 혁신자, 그것밖에는 더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내가 성남소대장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이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결국 나는 그의 결모습만 보아왔지 깊은 속마음은 하나도 아는것이 없었구나.

유철은 어쩐지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더듬어보았다. 과연 자기자신처럼 알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그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만졌다.

2

유철은 이튿날 병원으로 갔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위생복을 가뿐히 차려입은 설향은 의사실에 들어선 유철을 야릇한 미소를 짓고 맞이했다.

《설향동무지요?》

《예,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래서가 아니요.》

유철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궁해졌다. 한순간 어성버성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만에야 유철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동무하구 할말이 좀 있어서 왔소.》

《저하구요?... 그럼 어서 말씀하세요.》

설향은 그때까지 서있던 유철에게 의자를 권하며 무엇인가를 예감하는듯 눈길을 살쾅이 내리깔았다.

유철은 의자에 앉으며 직방 물었다.

《우리 성남동무와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이젠 그 동무와 영 멀어졌는가요?》

뜻밖의 물음에 설향이도 어지간히 당황한듯 했다.

《예?!...》

설향이의 맑은 두눈에 의문의 그림자가 비껴들었다.

《그건 왜 물으시는가요?》

《물론 의사선생의 사적인 문제에 간섭한다고 노엽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무때문

에 한사람이, 일 잘하는 한 소대장이 고민하구 괴로워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설향선생 하나의 문제이겠습니까?》

설향은 눈을 내리깔고 책상우의 한점을 바라보며 이윽토록 말이 없었다. 하지만 청진기를 매만지는 그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유철은 발기우리하니 상기된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또다시 물었다.

《그렇게 훌륭한 청년을 마다한데 대해서 왜 그랬는지 비밀이 아니라면 좀 알구싶구만!》

설향은 빨간 입술을 감쳐물며 류달리 긴 속눈썹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한참 있더니 랭정한 표정을 머금고 되뇌어였다.

《훌륭하대구요?》

《?!...》

《물론 훌륭하지요. 광구장동지나 부문당비서동지의 눈에는 그가 훌륭해보이겠지요. 일 잘하구 기술에 밝구 앞날의 영웅감이요... 하지만 남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나도 훌륭하게 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유철은 한동안 처녀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진중하게 물었다.

《혹시 성남동무가 굴진공을 한다고 그런건 아니요?》

그의 이 말은 부지중 처녀의 그 어떤 속마음을 건드려놓은듯 했다. 잠시 당황한듯 하던 설향은 유철의 눈길에 부딪치자 도전하는듯 한 자세로 얼굴을 쳐들었다.

그는 흥분을 애써 누르는듯 자기의 두손을 피가지도록 짹 맞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유철은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그만 아연해졌다. 유철의 가슴속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다니?!...

《우리 시대에 아직 동무같은 처녀가 있다는것이 정말 놀랍구만.》

유철은 저도 모르게 언젠가 하던 철석광구장의 말을 되받아외우고있었다.

순간 처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쓱해지더니 몸을 떨었다.

《그만하세요! 그런 모욕을 하자고 찾아오셨나요? 부문당비서동지두 광구장동지와 꼭 같군요. 어찌면... 어찌면 그럴수 있어요? 영웅?! 영웅이 되라지요, 그토록 부러운 영웅이!》

설향은 그만에야 것처럼 도고하던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책상우에 쓰러지듯이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철은 이 순간 처녀의 가슴에 아직도 애뜻하게

간직되어있는 성남에 대한 사랑을 잊볼수가 있었다.

그는 흐느끼는 설향을 보면서 자기가 그만 실수를 했다는것을, 그것도 한 처녀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있는 소중한 감정을 모독하는 큰 실수를 했다는것을 느꼈다. 결국 설향은 성남을 사랑하면서도 원망하고있는것이였다. 무엇때문에? 굴진공일을 그만두고 공업시험소로 가지 않는것때문에? 아니, 그것만이 아니였다. 보다 심중한 원인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유철은 설향을 어떻게 달랬으면 좋을지 몰라 말없이 서있었다.

이윽해서 한참 울고난 설향은 머리를 들었다. 어느덧 마음도 좀 진정된듯 했다. 눈굽에는 아직도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비서동지, 용서하세요! 사실 전 비서동지에게 언제든지 하고싶은 말이 있었어요.》

설향은 천천히 흐트러진 귀밑머리를 바로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엇인가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유철은 진실한 마음이 비낀 설향의 두눈을 마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설향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그 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우리 병원에서 현장에 이동치료를 나갔던 몇해전 어느날이였어요. 나는 소갱굴진막장에까지 들어가보았어요. 나는 그때까지 대형화된 현대적인 채굴기계가 숲을 이룬 채굴장에 아직 그런 일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들이 바로 광산의 명맥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사람들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비록 땅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광산의 선구자들임을 알았을 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가슴에서 막 솟구치더군요.

그래서 나는 자주 시간을 내어 병원에서 만든 보약들을 가지고 그들의 현장에 나가곤 했어요.

그러면서 성남동무와도 자주 만나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는 그때 원격조종 소형착암대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있었어요. 그것만 성공하면 소갱굴진도 아주 험하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동무가 얼마나 돋보였는지 몰라요. 사실 그에게는 남다른 탐구심과 기발한 착상들이 있었거든요.》

설향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동심한 어깨가 김빠지듯 꺼져내리며 《호-》하고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원격조종 소형착암대차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것이여서 능력이 모자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그는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공업시험소에 가서 일하고싶다고 하더군요. 그의 훌륭한 지향을 잘 알고있던 저는 적극 지

지해주었지요. 그가 성공하는 그날을 생각해보십시오. 광산에서 가장 힘든 소갱굴진이 완전히 기계화되어 흥겹게 일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광구장동지가 막아나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동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쇠돌은 누가 캐는가, 물론 일을 험하게 하면 좋은줄은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기계설비로 한톤의 쇠돌이라도 더 캐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광부로서 조국앞에 량심적이고 보람찬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또 그리구 피가 뚫어넘치는 시절에 한번 본래있게 땀을 흘려 영웅이 될 결심을 가지는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남동무네 소대에 일부러 유리한 작업조건도 마련해주곤 했지요. 광구장의 손탁에 잡힌 다음부터는 정말 영웅감으로 되더군요.

이제 그는 정말 영웅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소갱굴진로동은 힘든대로 계속 남아있게 되겠지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친 영웅인가요?!...

비서동지! 전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그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량심과 리상을 안고 모대기던 그 동무가 지금도 그리워지곤 해요. 하루에도 몇번씩... 꿈속에서도 막...》

설향은 중시 말끝을 흐리었다. 그러더니 그만에 그의 두눈에서는 또다시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참느라고 아래 입술을 옥물었다.

유철의 가슴도 찢르르해났다. 그는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슬며시 돌렸다.

이윽하여 겨우 자신을 진정한 처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지금의 그 동문 자기를 잃은 다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 사람에게 고상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명예도 정말 허울뿐이지요.》

유철은 처녀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주고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할말이 없었다. 과연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

병원을 나선 유철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걸어갔다. 눈보라가 우우- 소리를 지르며 그의 얼굴을 얼얼하게 후려갈겼다. 온 천지가 뾰얀 눈보라속에 묻혀 길을 가려보기도 힘들었다.

애어린 나무들이 눈보라속에서 몸부림을 쳤다. 어디선가 멀리에서 눈보라의 기승부리는 소리를 타고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렇게 쓸만 한 사람을 쉽게 놔줄것 같소?》

눈앞으로 육박해오는 산악같은 눈파도우에 불쑥

리철석광구장의 너부죽한 얼굴이 환영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그 얼굴은 웃음을 짓고있었다.

(아, 광구장동지!)

유철은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있던 자신이 더없이 불만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곧장 광구장의 사무실로 찾아들어갔다. 사무실에는 회계원처녀 혼자 책상에 마주앉아 무슨 계산에 열중하고있었다.

《광구장동지를 못 봤소?》

《좁전에 압축기실로 나갔습니다.》

유철은 문가에서 돌아서 압축기실로 발길을 옮겼다.

압축기실에서는 거칠은 고탐소리가 들려왔다. 광구장의 목소리였다. 한창 누군가를 호되게 추궁하고있었다. 바람소리에 그의 음성은 도간도간 끊어졌다.

《엄중하단 말이요, 엄중해. ... 동무의 무책임성으로 일어난 설비고장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압축기실에 들어서던 유철은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손을 허리에 척 올려붙인 우람찬 체구의 광구장앞에 압축기운전공이 고개를 수그리고 서있었다. 추궁은 계속되고있었다. 자그마한 설비사고나 자재랑비를 두고서도 엄하게 문제를 세울줄 아는 광구장, 언제인가는 갓 들어온 굴진공이 정알을 하나 잃어버린 문제를 두고 저렇게 닦아세운적이 있었지. 그때 유철은 그의 설비와 자재관리에 대한 칼날같은 립장을 두고 감탄했었다.

《에익, 내 속이 상해서...》

리철석은 투덜거리며 돌아섰다.

《아, 부문당비서동무요?》

그는 문가에 서있는 유철을 보자 금방 성내던 사람같지 않게 험헌한 미소를 지었다.

《사고가 크게 생겼습니까?》

《아니, 기름뿔프가 고장났됐습니다. 그것때문에 압축기를 한시간이나 세우게 됐지요.》

유철은 광구장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참.》

무슨 말을 하려고 유철을 쳐다보던 리철석은 의아해했다.

《부문당비서동무, 얼굴색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 아픈게 아십니까?》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유철은 무겁게 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요. 몸조리를 좀 해야 되겠수다. 비서동무가 앓으면 정말 야단이에요!... 참, 아까 당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더랬소.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우리 광구에서도 한명 추

천하라는 반가운 소식이요.》

《그렇습니까?》

유철은 책상앞으로 다가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래 광구장동지 생각엔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철석광구장은 그런 문제야 더 생각해볼것이 있느냐는듯 선뜻 대상을 찍었다.

《성남소대장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성남동무를요?》

유철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모저모로 성남이를 내세워주려고 원심을 쓰는 광구장의 마음은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성남소대장을 옳바로 키워주는것인가. ... 유철은 철석광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다음엔 누굴 보내잡니까?》

철석의 커다란 두눈은 연신 습벅거렸다.

《그다음이라니요? 우리 광구는 한명이라는데.》

철석은 유철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어긋날가봐 몹시 바재이었다.

유철은 입을 꼭 다문채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심장이 느닷없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비서동무 생각에는?》

이윽고 유철은 입을 열었다.

《그 동무는 좀 보류합니다.》

광구장은 놀라움을 표실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두손을 벌려 책상을 누르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왜 보류해야 한단 말입니까. 뭐니뭐니해도 그런데야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철은 그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한동안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서로의 심중을 꿰뚫어보려는듯 한두 시선이 부딪쳤다.

《그 동무는 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동무가 지금까지 흘려온 땀이 그 아무리 많아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한 처녀의 한방울의 눈물보다도 못한것입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광구장은 점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동무는 로동계급의 량심과 지향을 이 쇄돌발에 버럭처럼 내던진것만 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광구장은 그제서야 유철비서의 말뜻을 어느 정도 알아차렸는지 긴장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더니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힘껏 담배연기를 빨아들었다가 후- 하고 내뿔었다.

《범잡는게 포수라구 한덩이의 쇠돌이라도 더 캐면 그게 광부의 량심이구 지향이지 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리철석의 어조에는 불만적인 기운이 내뿜졌다.

유철의 얼굴은 모욕을 받은듯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흥분을 누르고 준절히 말했다.

《바로 그런 견해로 하여 그 동무는 자기의 재능까지 잃고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누구나 광구장동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래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자그마한 집안을 덤히겠다고 기동감으로 자라야 할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광구장의 얼굴도 별절게 달아올랐다.

《비서동문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를 적극 내세워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유철은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남동무의 땀방울에 혼장이나 주고 영웅으로 내세워준다고 해도 그의 재능을 물어버린 과오야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앞에, 조국의 미래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를 대학으로 보내 최첨단과학기술을 배워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운명과 광산의 래일, 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철석은 금시 두눈을 껌벅거리더니 두툼한 입술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부문당비서동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행정일꾼들은 참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현행생산문제도 생각해야지요. 그 동무를 훌쩍아내면 그렇게 기술있고 경험있는 훌륭한 소대장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성남동무만큼 지금 굴진소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과연 누군가 말입니다.》

물론 그의 장래운명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광구의 현행생산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당앞에 쇠돌생산계획을 책임지고있단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목소리는 떨리고 주름진 얼굴에는 그늘이 비졌다.

유철의 마음도 괴로웠다. 광구장은 지금까지 그의 비판을 성근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언제인가 굴착기가 이동할 때였다. 그때 그 주변에 널려있던 거석들때문에 굴착기가 주행을 멈추었다. 광구장은 착암을 하고 발파를 하자면 계획수행이 바쁜때에 시간이 걸린다고 거석우에 그냥 화약을 놓고 발파를 해치웠다.

유철은 이 문제를 놓고 비판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남에게는 자재랑비를 놓고 엄격하면서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허심

히 반성했었다.

그러나 지금 유철을 바라보는 광구장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야속함이 짙게 비껴있었다.

(비서동무가 내 위치에 있다면 그래 어떻게 할것 같소? 비서동무는 지금 원칙만 지키자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런 일군을 내놓으면 내 몸의 피가 빠지는것과 같단 말이요, 피가. 내 립장을 좀 봐주구려.)

그의 입에서는 맥빠진 한숨만이 흘러나왔다.

유철은 그러는 철석을 이윽도록 지켜보다 물었다.

《광구장동지, 우리 광구에 성남소대장을 대신할만 한 사람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철석광구장은 서글픈 표정만 짓고 유철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미 불이 죽은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비벼대고 움쭉 일어서서 말없이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자 유철은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광구장은 지금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뻔히 알면서도 리해를바라고있었다.

그러나 유철은 당일군으로서 자기의 립장을 양보할수 없었다. 우리는 래일을 위하여 오늘의 곤난을 이겨낼수 있지만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수는 없는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패배의식과도 같은것이다.

창밖에는 아직도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유철은 당사업이 결코 실무적인 사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3

며칠동안 울부짖던 눈보라도 차츰 속어들더니 해빛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내리는 잠풍한 날씨에 눈까지 녹아 땅이 질펀해졌다. 계절은 역시 계절인 모양이다.

유철은 성남의 후임문제를 오랜 굴진공출신인 덕배아바이를 만나 의논해보려고 현장으로 나가고있었다. 이제는 환갑나이에 이르러 젊은이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고문격으로 일하고있지만 고속도굴진명수로 이름을 날리던 아바이였다. 성남이도 처음 덕배아바이에게서 굴진을 배우며 성장했던것이다.

유철은 새로 이동한 대상구역의 소갱입구에서 동발목을 세우고있는 덕배아바이를 먼발치에서부터 알아보았다. 등허리가 구부정해보였지만 아직 일숨씨가 여물었다.

《수고합니다, 아바이!》

유철을 알아본 덕배아바이는 반색을 하며 미소

를 띄웠다.

《또 나오셨소?》

《예. 담배나 한대 태우고 하십시오.》

덕배아바이는 목에 두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는 병어리장갑을 탁탁 동발목에 털어 비서에게 권했다.

《자, 이걸 깔고앉으시오.》

《아니, 난 팬찮습니다. 여기에 앉으면 되지요.》

유철은 주변에 널려있는 동발나무토막을 하나 주어다 깔고앉아 담배를 한대 권했다.

《아니, 난 이 독초담배가 더 좋습니다. 부문당비서동무두 이 담배를 한대 피워보시겠소?》

아바이는 평퍼짐한 돌우에 장갑을 깔고앉으며 자기 담배쌈지를 꺼냈다.

《그럼 나도 그 담배를 한대 피워봅시다.》

유철은 주머니에서 꺼냈던 가치담배를 도로 넣고 아바이가 말아주는 담배를 받았다.

《한모금만 빨아도 아마 한잔 마신것처럼 핑 할거우다, 허허.》

《그래요?》

그들은 맛갈스럽게 담배를 한모금씩 들여마시고는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나오셨소? 그러다 아예 우리 굴진소대사람이 되고말겠수다.》

덕배아바이는 웃음이 가셔지지 않은 얼굴에 정이 폭 뻗 목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무릎관절을 툭툭 쳤다.

《소גע굴진이 힘들지요? 사실은 아바이와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철의 얼굴을 쳐다보던 아바이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목을 움츠리며 옆으로 픽 돌아앉았다.

《또 굴진을 그만두고 험한 일을 하라는 소리겠지, 음!》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끝을 후비며 제풀에 노여워 애꿎은 담배만 뽁뽁 빨았다.

《허허 참, 아바이두 그런게 아닙니다. 성남소대장 후임문제를 좀 의논해보자구 그러니다.》

유철은 덕배아바이의 무릎을 쥐어흔들며 웃음을 지었다.

덕배아바이는 그제서야 좀 멧적은듯 뒤머리를 석석 긁으며 다시 돌아앉았다. 그리고는 두눈을 습벅거렸다.

《아니, 성남소대장 후임문제라니요?》

《예, 성남동무를 어디 좀 보내자고 그러니다.》

《우리 소대장이 어디 조동되여가는데 아닙니까? 하긴 발전성있는 사람들이야 발전해야지요. 우리 광산에도 굴진공출신간부들이 많지요. 부

기사장동무두 그렇구 생산과장동무두 그렇구 또 우리 광구장동무만 해도 그렇지요.》

덕배아바이는 담배연기를 훌훌 날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성남동무를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키자고 그러니다.》

《대학에요?! 그런걸 난 또 허허.》

그는 어쭙게 웃더니 신중한 안색을 짓고 아무 말도 없었다. 담배를 천 손만이 가볍게 떨렸다. 타들어가던 담배불이 그의 손을 파겁게 해서야 정신이 편득 든듯 아바이는 큰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그가 대학엘 가겠다고 할가요. 언젠가는 공업시험소엘 가서 연구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본인이 마음을 달리 먹었다고 하던데!》

유철은 그 소리에 피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성남동무를 보면 재능은 있는데 공부를 더 하지 못해 그 아까운 재능이 크게 빛을 내지 못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를 위해서두 그렇구 우리 광산의 래일을 위해서도 대학엘 보내 공부를 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생각에 음해있던 덕배아바이가 유철의 무릎을 툭 쳤다.

《비서동무 생각이 옳수다. 그 사람이 공부를 좀더 하면 큰일을 할거우다. 사실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야 공부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크게 덕을 볼수 있을거우다. 이걸 좀 보시겠소?》

그는 서둘러 작업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몇장 번지더니 유철에게 보였다.

《이게 그 사람이 언제인가 창안하다 실패한 기계인데 정말 아쉽게 됐수다.》

덕배아바이는 자기의 수첩장에 그려진 기계를 놓고 설명했다.

유철은 흥미를 가지고 주의깊게 덕배아바이의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아바이가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있습니까?!》

덕배아바이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비서동무도 알겠지만 소גע굴진이라는데 그리 험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기계만 성공하면 우리 광부들이 흥겹게 일할수 있다니 어찌 구미가 당기지 않겠소. 그런데 끝내 실패하고말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지만 너무 아쉬워 나로서도 뭘 도움이 될가하여 생각해보느라고 했는데. 성남이 같은 재능아도 못하는것을 내같은것이야

어림도 없지요. 그저 욕망뿐이지.》

유철은 수철을 전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 부문당비서동무! 그럴것없이 그 기계를 한번 보지 않겠소?》

유철비서는 그 말에 자기의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 기계라니요?》

《그 실패한 기계 말이우다.》

《아니,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소대장이 집어던진것을 내 버리기 아까와서 창고구석에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소대장은 이제 그걸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하거던요.》

덕배아바이는 성남소대장이 나타나지나 앓을가 저어하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앞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철은 아바이를 따라갔다.

소대휴계실뒤에 달려있는 창고에는 예비부속품들과 작업 공구들이 그쫘하게 들어차있었다. 그 뒤구석에 고사기판총같이 생긴것이 있었다.

그것을 주의깊게 살펴보던 유철이 물었다.

《전문가들의 방조는 받아보았습니까?》

《허허, 전문가들의 방조가 뭘니까. 이것을 하느라고 현행생산에 좀 지장을 주었다고 오히려 비판만 받았지요.》

창고에서 나온 유철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의 옆으로 대형자동차가 질풍같이 내달리며 질적한 눈덩이들을 날려보냈다. 덕배아바이는 그걸 피하느라고 경충 뛰어오르며 운전사에게 주먹을 흔들며보였다.

젊은 운전사는 그 모양을 보고 장난꾸은 웃음을 날리며 손까지 흔들었다.

아바이는 명랑하게 웃으며 투덜거렸다.

《흠, 그녀석 인사법도 교악하군.》

유철은 바지가랭이에 눈덩이가 날아와 붙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현장에 자주 나와보면서도 이것을 모르고있었다.

《비서동무, 소대장을 찾을가요?》

덕배아바이는 침묵을 지키고있는 유철에게 물었다.

《아니, 그만두십시오.》

유철은 머리를 수긋하고 휴계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바이생각에는 소대장이 빠지면 당장 소대장 사업을 지금처럼 원만히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덕배아바이는 자기와 그런 문제까지 허심히 의논해주는 유철을 한결 더 친근하게 느끼며 자기 생각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글쎄, 지금 소대사람들은 다 젊구 일욕심들도 있지만 굴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경험

과 기술이 어리지요. 농사군이 땅을 잘 알고 주체농법을 알아야 농사를 제바로 짓는것처럼 굴진도 암석을 잘 알고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지요. 내 생각에는 뛰니뛰니해도 성남소대장만큼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회전식착정기소대장을 하고있는 석진이라고 말할수 있지요. 그 사람이 굴진을 할 때 성남소대장과 늘 쌍기둥을 이루고있었으니까요.》

유철은 석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키가 작을사하고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었다.

《그 사람도 한때 굴진에서 명성이 대단했수다. 그러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광부들의 힘든 일을 넘려하시여 훌륭한 현대적설비들을 보내주시여 지금은 험하게 일하고있지요. 지금은 우리 소대만 암질이 나쁘다고 새 계단개발같은 특수한 구역에서만 소갱굴진을 하고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광산에서는 재래식소갱굴진이 기본을 이루고있었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적인 회전식착정기를 받아안고 광부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은정에 목이 메여 온밤 기대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우다.》

덕배아바이의 목소리가 차츰 떨리더니 그의 눈썹에 물기가 핑 돌았다. 그는 웃게단에서 거센 기운을 쓰며 돌아가고있는 회전식착정기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그때 광구에서는 나에게 오래동안 굴진을 해왔는데 이제는 허리를 쭉 펴고 회전식착정기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나도 사실 그럴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사랑을 받는데서는 나이든 턱을 하고 보답하는데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광부의 체면이 서겠소! 그래서 내 그녀석을 겨우 설복해서 올려보냈지요.》

유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의리와 충정이 광부들의 가슴마다에 순결한 량심으로 뜨겁게 맥박치고 있었다.

유철은 당일군으로 그이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사실 성남의 문제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것이다. 유철은 이때까지 광구장의 말만 듣고 성남이를 모범으로 내세웠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의 지금과 같은 생활을 긍정해준것이나 다름이 없는것이다. 그것이 그의 세계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로동계급의 량심과 지향을 저버리고도 자책없이 살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누구도 자기를 보고 책임감을 따져묻는 사람은 없다. 오직 그의 당적량심만이

그를 괴롭혔다. 당원에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것이다.

4

유철은 아무말도 없이 듣고만 있는 책임비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책임비서는 신중한 안색을 짓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부문당비서동무가 그 동무를 대신하겠다는것은 너무 한몫으로 생각하는것 같구만.》

《전...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비서동지두 제가 기계기사출신이라는것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남동무가 연구하던것을 료해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성남동무가 못다한것을 완성하여 우리 광부들을 위하여 것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싶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남동무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무를 대신하여...》

책임비서는 목단추를 벗기였다. 산산하던 방안이 금시 후더워진듯 했다.

순간 지심을 뒤흔드는 대발파소리가 장쾌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창문이 주르릉 울렸다.

창문너머로 억년 잠들었던 철의 보화가 하늘높이 솟구쳐올랐다가 무겁게 내려앉는것이 보였다.

성남소대가 시공한 구역이었다. 유철은 홀날리는 발파연기속에 광구장과 성남의 모습이 보이는데 했다.

...어제 저녁이었다.

철석광구장이 흥분된 얼굴로 유철을 찾아왔다.

《비서동무!...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그는 어디서 유철부문당비서가 광산당위원회에 자기가 성남소대장을 대신하겠다고 제기한것을 알았던것이다.

《아니 뭘 그러니까. 성남동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거야 광구장동지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무를 대신해 제구실을 잘할수 있겠는지. 광구장동지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부문당비서동무에게 좀 엇드레질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광구장은 목이 꺾 메여 말까지 다 떠듬거렸다.

《부문당비서동무! 사실 성남동무를 대신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나. ... 차라리 내가 그 소대를 맡겠소.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재미에 산다는데 난 에익!...》

철석광구장은 억이 막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다가 손에 들고있던 생산실적기록부를 책상위에 놓고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팡 내리쳤다. 그리고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 성남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별경게 충혈되어있었다.

《비서동지! 전 대학으로 갈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 지금까지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알았으면 됐소.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최첨단과학기술로 강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은 장군님의 의도요. 그러니 동문 여기 걱정은 말고 대학에 가서 하루빨리 최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해야 하오. 그때 우리함께 이 철무봉을 통채로 들어보자구, 하하.》

유철은 소리내어 웃었다.

《비서동지, 전 못 가겠습니다.》

성남의 때질은 막무가내였다.

《아니, 가야 하오. 가야 해! 우리는 언제나 당과 혁명의 리익을 놓고 먼저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오. 우리는 지금 동무에게 광산의 패일을 더욱 뜨겁게 안고살것을 바라고있소. 거기에 바치는 피타는 노력과 결실이 우리 로동계급에게 더 필요하기때문이요.》

성남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며 유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비서동지!》

《성남동무!》

유철은 성남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였다. ... 책임비서는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가 이윽도록 서있었다.

이른봄별이 자르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는 파스하게 비쳐드는 해빛에 취한듯 눈을 감았다.

책임비서는 지금 어쩐지 유년시절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속에 잠기고싶었다. 해빛이 점점 파스하게 비쳐들었다. 그는 자기의 몸 에 청춘기마냥 새로운 힘과 열정이 샘솟아오름을 느꼈다.

《동무가 제기한 문제는 다시 토의해봅시다.》

책임비서는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방문을 나서다말고 다시한번 젊은 당일군을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런 당일군, 오늘뿐아니라 먼 래일의 운명까지도 책임질줄 아는 당일군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그 어떤 시련과 난판도 이겨내며 끄떡없이 강성대국의 창창한 미래로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승용차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해빛속으로 달려갔다.

봄, 여름, 가을...

김 경 석

진 정

— 모 판 판 리 공 처 녀 의 말 —

바람막이울바자 든든히 둘러주고
두엄도 두툼히 깔아준 모판
정성껏 뿌린 씨앗 어서 싹터 자라라고
박막깃도 때없이 여며줍니다

알알이 자리잡은 자그마한 씨앗들아
쌀산의 메부리를 꿈꾸는 보금자리에
눈비 아닌 불비가 쏟아진대도
나는 그걸 막아야 할 어머니
나는 여길 지켜야 할 병사

바 다

줄줄이 비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은
흙이랑에 가뭇없이 잦아드는데
꽃밭처럼 가꿔가는 김매기포전
여기선 뜻밖에도 바다이야기...

뿌듯해라 흠뻑이도 땀흘린 저녁
실농군 박아바이 하는 말이여
—땀을 모아 바다야 만들겠소만
흘린 땀이 바다되어 찾아올걸세
이삭의 바다되어 행복의 바다되어...

불 빛

장마비 드리없이 쏟아지는 밤
들판의 유난스런 손전지불빛
터진 눈뚫 막아내는 주인의 모습과 함께
어둠과 물줄기와 싸우는 저 불빛

비껴있구나 저 불빛속엔
한배미 한구석도 굶지 않은 벼바다
남모르는 결사전의 순간들로 합쳐진
수확의 계절 황금의 계절
아, 가을날의 아침이 웃고있구나

훈 장

눈보라도 때를 맞춘 부채질로 여기며
거름집 지고 달린 계절에 이어
봄내 여름내 가을내...
농민의 땀과 정성을 들이킨 땅
그 이랑이랑우에 금빛은 눈부시다

무엇을 더 바라랴 우리들이야
아득한 지평선 저 한끝에서부터
썩아 처절씩 파도쳐와 안기는
이 바다 황금빛이삭의 바다
조국의 대지가 농민에게 주는
크고 눈부신 훈장만 같은데야

자 양

물길을 끌어 갈증을 가져주고
거름을 먹여 기름기 돌게 하고
김을 잡고 랭을 막아 쓰다듬고 보살피며

꺼지도록 이삭들의 춤노래 펼쳐주는
오, 농민 농민의 그 진정이
땅이여 다름아닌 너의 자양이더라

가을날의 들길에서

권태여

비내리는 저녁녘
미루등 들길을 지나던 병사
길옆에 홀린 벼단 하나
처녀의 벼달구지에 엮어주고 갔네

인사말도 할새없이
얼굴도 볼새없이
등넘어 달려가는 병사
비에 젖은 군복자락

처녀는 얼굴이 발그레
소고삐만 만지작
누렁소는 음메음메
영문을 묻는듯

이삭 하나 벼알 하나
한해를 기울인 로력의 열매

가꾼 정에 비기랴 홀린 땀에 비기랴
살뜰한 병사의 그 마음에

한해농사 거둬내에
주인된 일솜씨 어려있음을
허실없는 쌀독에 고여오름을
말없이 새겨주는 뜨거운 진정

아, 비오나 눈오나
인민의 마음속에 전호를 둔
장군님의 자랑스러운 병사들
미더운 그 모습에 눈곱이 젖은 처녀

미루별 가을날의 들길에서
어린 병사의 당부어린
한단 벼단을 마음에 안고
미루등 저 멀리 병사를 바래우네

가사

선군10경 새 풍경

최향

금파만경 파도치는 미곡벌에 와보시라
앞을 봐도 둘러봐도 벼바다가 물결치네
장군님 꽃피주신 선군10경 새 풍경
닐리리 닐리리 선군10경 예로구나

벼향기 풍겨가니 학두루미 날아들고
오곡백과 설레이니 행복이 파도치네

장군님 꽃피주신 선군10경 새 풍경
닐리리 닐리리 선군10경 예로구나

강성대국 리상춘을 노래하는 복반은 땅
미곡벌의 가을풍경 못 보면 한이 되리
장군님 꽃피주신 선군10경 새 풍경
닐리리 닐리리 선군10경 예로구나

상식

컴퓨터화면앞에서 지켜야 할 건강관리상식 몇가지

- 컴퓨터화면앞에 자주 앉아 일하는 사람은 충분한 공기습도(약 50%정도)를 보장받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것이 좋다.
- 램온풍기와 통풍장치의 바람이 눈부위에 직접 마주치지 않게 하는것이 좋다.
- 화면은 지나치게 높은 곳에 설치하지 말아

야 하며 눈과 화면사이 거리를 50~70cm로 보장하는것이 좋다.

- 10분 간격으로 창문밖을 내다보면서 의식적으로 눈을 휴식시키는것이 좋다.
- 휴식은 한번 길게 하는것보다 짧게 여러번 하는것이 좋다.

지향



리 기 창

△때: 현대

△곳: 현대화된 비날론생산기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은희: 공정기사

성규: 대학 박사원생

덕구: 직장장(성규의 삼촌)

은옥: 분석공(은희의 동생)

진혁: 컴퓨터조종공

정임: 대학교원

그외 남녀기대공들

1경

△무대: 직장마당 휴식터.

잎푸른 정원수와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꽃밭.

그앞에 긴의자, 그옆에 《동무는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창조하고있는가?》라는 글발이 붙은 속보판이 서있다.

왼쪽으로는 분석실과 현장으로 통하고 오른쪽으로는 바깥구내와 사무실로 통한다.

그뒤로 여러가지 모양의 탱크며 반응탑들이며 배관들이 보인다.

△구내길로 지나가는 방송선전차에서 음악과 함께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 막이 열리면 진혁을 비롯한 로동자들 출근하던 걸음을 멈추고 방송을 듣는다.

《비날론전투원들이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수직방사공정과 함께 새로 개건된 수평방사공정에도 질 좋은 원료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립시다!》

△음악이 계속 울린다.

기대공1: 야, 수직방사에 이어 이제 또 수평방사에서까지 비날론섬유를 짙짙 생산하게 되면 우리의 전투목표를 2배로 높이 세워야겠구만요.

기대공들: 그렇구말구!

기대공2: 그러니 오늘계획부터 200%로 넘쳐수행하자구.

기대공들: 합시다!

△로동자들 힘차게 호응하며 현장으로 들어간다.

진혁: (도면을 펼쳐보며) 그러자면 이걸 빨리 완성해야겠는데... (분석실쪽을 향해) 분석실— 은옥동무!

은옥: (위생복차림으로 나오며) 왜요?

진혁: 내가 부탁한 새 첨가제를 분석해봤소?

은옥: (위생복주머니에서 분석표를 꺼내주며) 자요.

진혁: (받아보고) 아직도 불순물이 있는가?

은옥: 그래서 우리 언니도 진혁동무더러 좀더 심사숙고해보라지 않았나요.

진혁: 그건 나도 인정하오. 하지만 공정기사 동문 자기가 수직방사에 연구도입한 첨가제를 절대적인것처럼 여기는것 같단 말이요.

은옥: 뭐예요? 동무가 우리 언니 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우리 언니의 발등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면서두.

진혁: 뭐라구?

은옥: 다신 그런걸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혁: 좋아, 어디 두고보지요. (들어간다.)

은옥: 볼테면 보라요, 흥—

△덕구 사무실쪽에서 나오다가 웃는다.

덕구: 이거 사랑싸움을 하는게 아니냐?

은옥: 어마나, 직장장동지두. 그런데 아니라 우리 언니가 이미 수직방사에 도입한걸 수평방사에 다도 그대로 도입하면 될텐데 진혁동문 자기판에 뭘 또 새걸 내놓겠다고 저렇게... 자기가 말은 콤팩트조종이나 잘할게지.

덕구: 그렇게 말이다. 참, 언닌 어디 갔나?

은옥: 수직방사하조장에 갔어요.

덕구: 거긴 또 왜?

은옥: 새 첨가제를 도입한 후 비날론질에 파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겠다구요.

덕구: (고개를 끄덕이며) 음, 전번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거기까지 찾아가 비날론천의 질에 대해 알아보더니 정말 은희공정기산 탐구심에다 책임성도 높지. 어느모로 보나 나무랄데 없는 처녀라니까.

은옥: 그래서 직장장동진 우리 언닐 조카며느리로 삼자고 했나요? 호호호.

덕구: 현대 네 언닌 지내 눈이 높다 말이야.

은옥: 아이참, 눈이 높다니요?

덕구: 그렇지 않다면 인물체격 잘났겠다, 화학공업대학 박사원생인 우리 성규를 왜 만나보지조차 않겠다구 했겠니.

은옥: 그건요, 온 나라 인민이 비날론덕을 실지로 보기 전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속다짐했으니까요.

덕구: 저런!

은옥: 그러니 우리 언닌 눈이 높은게 아니라 지향이 높은것이지요 뭐.

덕구: 하긴 그렇구나.

은옥: 다른 한가지 또 비밀이 있어요.

덕구: 비밀이라니?

은옥: 남모르게 기다리는 남자가 있기때문입니다.

덕구: 응? 어디 있는 남자인데?

은옥: 아직 몰라요.

덕구: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기다리

다니? 무슨 수수께끼같은 소린지 원.

은옥: 언니가 험한 산발을 넘어 탐사대와 광산들을 찾아다니며 첨가제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오다가 어느 한 령길에서 그만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지 않겠어요.

덕구: (놀라며) 저런! 그래서?

은옥: 언니가 의식을 차렸을 땐 어느 한 병원 침대우였대요. 의사선생이 하는 말이 웬 청년이 언닐 업고왔는데 그냥 잤다지 않아요.

덕구: 이름도 주소도 밝히지 않고 말이나?

은옥: 네. 다만 언니의 첨가제시료가 든 배낭과 연구초안을 보더니 의사선생한테 언니가 앞으로 더 질 좋은 비날론생산을 위한 탐구에서 성과를 이룩한 다음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을 남긴채 떠나갔대요.

덕구: 정말 그 청년이 아니었다면 큰일날뻔 했구나.

은옥: 그뿐인줄 아세요. 그후 몇차례나 언니의 연구에 참고가 될 귀중한 자료를 컴퓨터망을 통해 보내주었는걸요.

덕구: 아니, 귀중한 자료까지?!

은옥: 그래서 언닌 그 사람을 오늘까지 기다리는것이지요 뭐.

덕구: 아무렴 그런 훌륭한 청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난 그런 사연이 있는줄도 모르고 허참.

은옥: (박을 보며) 저기 언니가 오누만요.

△이윽고 은희 비날론솜을 넣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이마의 땀을 훔치며 들어온다.

덕구: 수고하누만. 밤교대에서 생산한 솜유요?

은희: 네. 은옥아, 이걸 좀 분석해줘.

은옥: 보나마나 또 합격품이지요 뭐. (그것을 받아들고 분석실로 간다.)

덕구: 평양에서 기자동지들이 왔는데 은희동무에 대한 소개기사와 함께 사진까지 내줬다고 한다니 어서 당위원회에 가보오.

은희: 그래요?

덕구: 전번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한 우리 공장 예술소조원들의 모습이 텔레비존과 신문에 나더니 이제 또 공정기사동무가 신문에 나게 됐은즉 경사에 경사가 아닌가, 하하하.

은옥: (분석실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듣자 기뻐하며) 어마나. 언니, 축하해요. 이제 온 나라가 언닐 다 알게 되겠네. 그리고 신문에 난 언니의 사진을 보면(귀속말로) 아마 그 청년도 찾아올게구요, 호호호...

은희: 애두 참, 그래 분석해봤니?

은옥: (비날론숨을 보이며) 이건 1등급! 이건 3등급!

덕구: 그러니 모두 합격품이로구나, 하하하.

은옥: 그렇지 않구요.

은희: (혼자소리처럼) 그런데 왜 아직도 3등급품이 섞여나올까?

덕구: 수입첨가제를 쓸 때도 그만 못했는데 대단한 성과지.

은옥: 옳아요.

은희: (비날론숨을 만져보며 생각에 잠긴다.)

덕구: 방직공장들에선 더 많이 보내달라는 편인데.

은옥: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선 심지어 등외품까지도 바줄, 이불솜싸개, 풀, 걸레들을 만든다고 저저마다 가져간다지 않나요.

덕구: 암, 그래서 비날론은 썩 먹고 알 먹고 등지 털어 볼 때는 격으로 하나도 버릴게 없는 보배솜이라지 않니, 하하하.

은옥: 집집마다 기쁨의 웃음꽃 피워주는 행복의 돌솜꽃이구요, 호호호.

덕구: 그렇다마다.

은옥: 하기에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비날론은 인민생활에서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다고 교시하셨지요.

덕구: 아무렴, 그러니 《비날론삼천리》를 펼쳐가는 자랑안고 어서 가보라구요. (은희를 떠민다.)

은옥: 언니, 그 작업복을 갈아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가세요.

덕구: 사진을 찍을 땐 그 비날론숨도 척 들고 찍으라구.

은희: 아이참. (부끄러워하며 나가려고 한다.)

은옥: 언니, 잠깐! (주머니에서 향수병을 꺼내 뿌려준다.)

은희: 어마나, 이건 뭐니?

은옥: 언니 몸에 뽀 초산비닐냄새를 없앨 은방울꽃향수지요 뭐.

은희: 그만해. (나간다.)

덕구: 고생 끝에 락이라더니, 하하하.

은옥: 언닌 요새도 집에 들어와서 밤새껏 기술도서와 도면을 뒤적이며 뭔가 연구하는걸요.

덕구: 뭘 또 새로운걸 모색하는가보구나.

은옥: 그런가봐요.

덕구: 정말 노래에도 있듯이 준마쳐녀라니.

은옥: 준마쳐녀라고요? 하긴(노래로) 날 보고 준마쳐녀래요, 호호호.

△이때 가방을 멘 성규 들어온다.

성규: 삼촌, 안녕하십니까?

덕구: 성규야, 그래 박사원은 졸업했느냐?

성규: 저 논문때문에 아직 좀더... (뒤더수기를 만진다.)

덕구: 뭐, 아직도? 허참.

은옥: (성규를 보자 혼자소리로) 어마나, 언니한테 소개하자던 남자가 바로?!(피하듯 달려나간다.)

성규: 저 처녀 누구데 날 보자 저렇게 피합니까?

덕구: 너한테 맞세워주자던 그 은희공정기사의 동생이란다.

성규: 그래요?

덕구: 그런데 은희기산 널 만나보지조차 않겠더니...

성규: 예?

덕구: 난 그 처녀한테 이미 대상자가 있다는걸 모르고 널 소개해주려고 했으니 참.

성규: 대상자가 있답니까?

덕구: 암, 사경에 처했던 은희기사를 구원해 주고 귀중한 연구자료까지 사심없이 남모르게 보내준 청년이라더구나.

성규: 그렇단 말입니까?!

덕구: 그러니 넌 애당초 만나지 않는게 좋겠다.

성규: (웃으며) 삼촌도 참, 전 졸업논문때문에 왔는걸요.

덕구: 그렇다면 은희기사가 연구도입한것과 같은 실리성이 있는걸 내놓아봐라.

성규: 그러지 않아도 기술과에 들려 은희기사에 대한 애걸 들었습니다. 이제 발명권을 받는것은 물론 신문에까지 널리 소개된다면서요?

덕구: 암, 그래서 은희기산 방금전에 기자동지들한테 갔다니까. 그러니 너두 그쯤한걸 내놓아 보라는게다.

성규: 알겠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그전에 왔을 때보다 기업소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구만요!

덕구: 그렇다마다. 저기 밀폐식카바이드로들이며 현대적보이라에 수평방사공정들까지 새롭게 개진된데다가 모든 비날론생산공정이 CNC화가 됐은즉 그야말로 다계단으로 변이 난셈이지.

성규: 정말 대단합니다.

덕구: 난 지배인실에 가야했는데 현장을 돌아보고 저녁에 집에 오너라!

성규: 우리 박사원 교수선생님과 같이 왔는걸요.

덕구: 그럼 함께 모시고 오려무나. (나간다.)

성규: 네. (생각에 잠겨 의자에 앉으며) 은희 기사동무가 발명권을 받는데다 신문에까지 나게 된단 말이지?!

△진혁 도면말이를 들고 지나가다가 성규를 보자 반색한다.

진혁: 아니, 이거 김성규동지가 아닙니까?

성규: 아, 우리 대학 졸업생인 진혁동무로구만. (의자에서 일어서며) 무슨 일을 하오?

진혁: 컴퓨터조종실에서 일합니다. 졸업실습을 왔는가요?

성규: 그렇소. 도면을 들고 다니는걸 보니 뭘 창안을 하는 모양이구만.

진혁: 욕망뿐이지 잘 안되누만요.

성규: 어떤건데?

진혁: 한번 봐주겠습니까? 이런겁니다. (도면말이를 펼쳐보인다.)

성규: (도면을 보고나서) 아니, 이건 은희공정기사동무가 이미 연구도입한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것 같구만.

진혁: 하지만 그것보다(도면을 가리키며) 이처럼 다른 첨가제를 쓴다면 비날론섬유의 질을 전부 1등급으로 올릴것 같아서 생각해본겁니다.

성규: 몽땅 1등급으로?

진혁: 네.

성규: 그건 대단한 혁신인데... 한테 그러면 당장 발명권을 받게 된것은 물론 신문에까지 나게 된 은희기사동무가 따분하게 될게 아니요?

진혁: 그래서 저는 은희공정기사동무가 이미 연구도입한 수직방사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건한 수평방사에다 실현하자는겁니다.

성규: 새로 개건한 수평방사공정에?

진혁: 네, 그러면 서로 공정이 다르기때문에 은희동무의 연구성과에 그늘을 줄진 없질 않습니까.

성규: 듣고보니 그렇긴 한데?!... 공정이 다르다?!...

△이때 은옥 나오다가 그들을 보자 나무뿔에 선다.

성규: 이걸 공정기사동무한테 보였됐소?

진혁: 보였더니 리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새로 선택한 이 첨가제에 포함되어있는 불순물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힘들것 같다면서 좀더 심사숙고해보라더군요.

성규: 불순물때문에?

진혁: 이 분석표를 보십시오. (분석표를 내민다.)

성규: (분석표를 보고) 그렇구만. ... (잠시 생각

에 잠겨 거닐다가) 불순물을 제거할 방도만 찾으면 은희동무가 연구도입한것보다 실리성이 더 있을것 같은데?!...

진혁: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실현할수만 있다면 제 이름으로 발표 안해도 좋으니 좀 방도를 찾아주십시오, 예!(성규의 손목을 잡으며 열정적으로 간청한다.)

성규: 하여간 좀 생각해보기요.

진혁: 컴퓨터조종실에 제가 실험해보던 일지도 있으니 가보지 않겠습니까?

성규: 한번 보자구. (진혁이와 함께 들어간다.)

은옥: (그들의 말을 듣고) 어마나, 어쩔 저럴수 있담. 혹시 직장장동지의 소개로 언니한테 청혼을 하려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저러는가? 아니면?

△이때 은희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은희: 은옥아, 이만하면 어때?

은옥: 언니... (울먹거린다.)

은희: 아니, 왜 그러니. 웬?

은옥: 글썄 직장장의 조카인지 하는 그 사람이 진혁동무의 도면을 보더니 언니것보다 더 실리성이 있다면서 한번 실현해보겠다고 하질 않겠어요.

은희: 뭐라구?

은옥: 이거야말로 언니의 피뎀어린 창조물을 밀어버리고 그대신 남한테 불어서 자기의 졸업논문이나 내놓자는 속심이 아니고 뭐예요. 더우기 언니한테 거절을 당한 처지에...

은희: 그 사람이 설마...

은옥: 제가 방금 들었는데요 뭐.

은희: ?!

은옥: 그러고보면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은희: 대조적인 두 인간이라니?

은옥: 자기의 피까지 바쳐 사경에 처했던 언넬 구원해주고 언니의 연구성과를 위해 귀중한 자료마저 사심없이 보내준 이름모를 그 청년과 저렇게 언니의 창조물마저 밀어버리고 자기의 명예나 얻자는 박사원생인지 하는 사람 말이에요.

은희: ?!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은옥: 더구나 오늘 신문에 난다는 말까지 들었을텐데 어쩌면 량심없이 그럴수 있어요. (은희의 등을 떠밀며) 그 사람한테 점잖게 행동하라고 따끔히 말하라고요, 어서요.

은희: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더우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은옥: 언니가 정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할래요.

(나가려고 한다.)

은희: (은옥의 손을 붙들며) 그러지 마!

은옥: 언니 상관말고 어서 기자동지들한테 가라요! (뿌리치고 달려나간다.)

은희: 은옥아. (따라가다가 마음을 다잡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혹시 그 동무는 진혁동무의 창안에서 내가 도입한것보다 더 좋은 짝을 보고 그러는게 아닐까?

△은희의 생각을 부정하듯 은옥이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온다.

《언니, 아니예요. 그건 언니의 피땀어린 창조물을 밀어버리고 그대신 남한테 붙어서 자기의 졸업논문이나 내놓자는거예요. 더우기 언니한테 거절을 당한 처지에...》

은희: (손으로 귀를 감싸쥐며)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때 성규 나오다가 은희를 보자 그앞으로 다가간다.

성규: 공정기사동무이지요?

은희: (그 말에 성규를 보자 흠칫하며 의자에서 일어선다.) 그래요.

성규: 우리 삼촌한테서 동무의 연구성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희: 뭘요. 초면에 그런 인사나 하려고 오시진 않았겠지요?

성규: 그러지 않아도 방금 동생이 달려와서 마치 대변인성명이나 발표하듯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건 동무의 의사를 대변한건가요?

은희: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성규: 혹시 그건 동무의 연구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구심때문인가요? 자존심때문인가요?

은희: 뭐예요?

성규: 그렇지 않다면 이자 동생이 말하듯이 지난날 사경에서 동무를 구원해주고 귀중한 자료까지 보내주었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 입니까?

은희: 예?

성규: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시대에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거야 누구나 할수 있는 소행이 아닐까요? 아마 동무가 못 잊어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서 보다 훌륭한 남의 창안에 대해 외면하는 동무를 보았다면 매우 섭섭해했을거요!

은희: 아니, 동무가 뭐기에 감히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성규: 나는 진혁동무의 창안을 지지해주고싶

어서 그러는겁니다.

은희: 그래, 동무는 그 첨가제에 포함된 불순물로 해서 섬유의 백색도를 보장 못해도 일없다는건가요? 그 점을 생각해봤나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진혁동무더러 좀더 심사숙고해보라고 했던거예요.

성규: 오늘의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돌파 못할 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엔 효율성이 높은 촉매제로 불순물을 정제한다면 십분 가능할것 같아서 그러는겁니다.

은희: (놀라며) 효율성높은 촉매제로요?!

성규: 그렇습니다. 그런 촉매제로 불순물을 깔끔히 없애 첨가제를 쓴다면 비닐론섬유의 질을 모두 1등급으로 높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동무가 이미 연구도입했던 수직방사가 아니라 새로 개진한 수평방사에다 실현한다면 공정이 다르기때문에 동무의 연구성과도 그대로 보존될것입니다.

은희: 그러니까 수평방사에 도입하겠다는건가요?

성규: 그렇습니다.

은희: 그러니 동무들의 그런 아량과 선심에 저더러 팔짱끼고 앉아 구경이나 하라는건가요?

성규: 그건 동무생각대로 하십시오. 신문기자들을 만나든지 발명권신청서를 내든지 말입니다.

은희: 어찌면 동문 저를 그처럼... (모욕감에 입을 썉는다.)

성규: 제 말이 모욕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동무와 다르게 보여서 그러는거요.

은희: 뭐라고요?

덕구: (나오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성규에게 소리친다.)

아니, 네가 도리어 누구한테 주제넘게 훈시질이나?

성규: 삼촌, 이젠 훈시질이 아니라...

덕구: 듣기 싫다. 넌 은희기사가 새 첨가제를 연구도입하기 위해 배낭을 멘채 술한 탐사대와 광산들을 찾아다니다가 사경에 처하기도 하고 지어는 그걸 실험하다 몸에 화상을 당하면서까지 끝내 성공시킨걸 알기나 하느냐?

성규: 예?

덕구: 그러고도 오늘은 질 좋은 비닐론속에 어찌다가 섞인 3등급을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밤을 지새우며 아글타글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하구 그러는가 말이다!

은희: 직장장동지, 그만하세요. (오열을 삼키

며 나무밑으로 달려가 어깨를 들먹거린다.)

성규: 그렇다면 어째서 진혁동무의 창안을 외면하는가 말입니다.

덕구: 진혁의것은 나도 찬성할수 없어.

성규: 무엇때문예요?

덕구: 아니, 넌 실습 온 처지에 남의 상에다 감나라, 배나라 하듯이 무슨 참견질이나. 어서 다른 직장이나 가보거라. (성규의 손목을 잡아끌며 은희에게) 공정기사동문 기자동지들을 만나보라구, 어서. (나간다.)

성규: (나가다가 돌아서며) 내 오늘 하고싶은 말을 다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동무의 량심에 자그마한 오점이라도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나간다.)

은희: 뭐라구요?

△충격적인 음악이 울린다.

△은희 그만 설음이 복받쳐 비척거리다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달려나간다.

△무대 어두워진다.

2경

△때: 1경으로부터 얼마간 지난 후

△곳: 1경과 같은 장소

△무대 밝아지면 덕구 허둥지둥 나온다.

덕구: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도 없구나, 허참.

은옥: (분석실쪽에서 나오며) 누구 말이에요?

덕구: 네 언니 말이다.

은옥: 기자동지들한테 갔겠지요 뭐.

덕구: 거긴 오지 않았더라.

은옥: 네? 그럼 어데 갔을가요?

덕구: 우리 조카한테 참지 못할 모욕을 받고 어디 가서 혼자 울고있는지 모르겠구나.

은옥: 직장장동진 어쩌면 그런 사람을 언니한테 소개까지 해주려고 했나요?

덕구: 내 그래서 그 녀석을 쫓아보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구 참, 좌우간 언닐 빨리 찾아보거라. (나간다.)

은옥: 네.

진혁: (들어오며) 동무언닌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어딜 갔다구?

은옥: 몰라요. 이젠 다 동무들때문이에요.

진혁: 뭐? 우리가 언니한테 어쨌다구 그러오?

은옥: 어쨌는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라요.

진혁: 성규동진 사심을 모르는 과학자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구. (나간다.)

은옥: 가재는 계편이라더니 언니의 발등을 밟으면서도 도리어, 흥—

△이때 은희 묵직한 배낭을 메고 땀을 씻으며 들어온다.

은옥: 어마나, 언니— (마주 달려가 배낭을 받아내려놓으며) 오라는덴 가지 않고 이젠 뭐예요?

은희: 진혁동무가 새로 해보겠다는 첨가제에 포함된 불순물을 정제할 촉매제원료야.

은옥: (놀라며) 예? 오늘 그 사람이 와서 그 무슨 촉매제소릴 하더니 그래서 언닌 이걸 구해온게 아니예요?

은희: 누가 그랬던간에 난 이걸 시험해보고 수평방사만이 아니라 수직방사에도 도입하자는 거다.

은옥: (더욱 놀라며) 그러니 언닌 이제 와서 발명권을 받게 된 연구성과마저 자기 손으로 허물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동지들한테도 가지 않았군요.

△진혁 다시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자 놀란다.

은희: 글썽 정제효율이 어떨지 이 촉매제원료를 분석해다오.

은옥: 싫어요, 못하겠어요.

은희: 뭐라구?

은옥: 직장장동지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무엇때문에 이러나요?

은희: 그 동문 갔더라도 진혁동무와 같이 해보려고 그러니 어서 분석해주렴, 응?

은옥: 언닌 어쩌면... 난 못하겠어요. (울먹이며 달려나간다.)

은희: 아니?

△의자우에 있던 배낭이 떨어지면서 촉매제원료가 땅바닥에 흩어진다.

△음악이 울리는 속에 은희 흩어진 촉매제원료를 손으로 쓸어모아 담는다.

진혁: (그 모습을 떨리는 눈길로 바라보다가 갈린 목소리로) 공정기사동무, 그만두십시오!

은희: (진혁을 쳐다보고) 아니, 그만두다니요?

진혁: 공정기사동무가 수직방사에 이미 도입했던 연구성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럴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은희: 그러니 동무도 내 명예를 생각해서 그러는가요?

진혁: 저는 과학탐구에서 창조자들의 물리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은희: 그래서 동문 그걸 수평방사에만 도입하려고 했군요. 나는 자기것보다 다른 사람의 착상이

더 경제적인의의가 있는것이라면 서슴없이 지지하고 적극 받아들일줄 아는것이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참된 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혁: 예?!

은희: (속보판을 가리키며) 저 구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보세요.

진혁: ?!(속보판을 바라본다.)

△은희 촉매제원료를 다시 담는데 덕구와 은옥 들어온다.

덕구: 가라는덴 가지 않고 왜 이러오?

은희: 직장장동지!

덕구: 러놓고 말 좀 하지요.(의자에 앉으며) 동문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기관에 배치된것도 마다하고 여기 와서 애쓰면서 아직 남들처럼 발명권도 받은게 없는데 어째서 이런 기회를 스스로 밀어버리자고 하는가 말이요?

은희: 저라고 왜 그런 영예를 지니고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비날론을 생산한 위훈자들이 영웅메달과 훈장들을 가슴마다 번쩍이며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합흥시군중대회에 참가할 때 전 부러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덕구: 그래서 동문 밤잠과 때식마저 잊으며 오늘처럼 신문에도 나고 발명권까지 받을 위훈을 세우지 않았소.

은희: 그러나 제 량심상 차마...

덕구: 량심이라니?

은희: 우리 일터에 몸소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비날론숨을 친히 만져보시고 너무나 기쁘시여 앞으로 비날론으로 만든 옷을 자신께서 제일먼저 입어보겠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지요. 그래서 저는 한줌의 숨을 생산해도 아버지장군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일하자고 애써왔어요. 하지만 (품속에서 비날론숨을 꺼내보이며) 아직 이런 숨이 섞여나오는걸 남겨둔채 어떻게 그냥... (고개를 숙인다.)

덕구: (놀라며) 아니, 그럼 동무가 밤새워 고심하며 실험하던것도 우리 성규가 말했다는 이런 촉매제였던 말지요?

은희: 성규동무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은옥, 진혁 그 말에 놀란다.

덕구: 그러니 이걸 성공만 하면 1등품섭유가 쏟아진단 말이지?

은희: 네. 찬성하시지요?

덕구: 아무렴. 난 동무의 그런 심정도 모르고... 내 당장 가서 동무의 의견을 전하겠소.

은희: 직장장동지, 고마와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덕구: 고맙긴...(눈을 슴벅이며 나간다.)

은옥: 언니, 제가 그만(촉매제배낭을 안고 분석실로 달려간다.)

진혁: (걱정에 넘쳐) 공정기사동무, 저한테도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은희: 촉매제분석결과가 나오면 컴퓨터모의실험을 해보자요.

진혁: 그럼 제 가서 모의실험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은희: 어서 그러세요.

진혁: 알겠습니다.(현장으로 들어간다.)

은희: (이마의 땀을 씻으며 의자에 앉는다.) 분석결과가 좋아야겠는데...

△남녀기대공들 나온다.

기대공들: 새 첨가제로 해본다는게 정말입니까?

은희: (의자에서 일어서며) 그래요.

기대공1: 그러면 3등품은 아예 나오지 않는대지요?

은희: 네. 지금보다 원자재소비기준도 더 낮추구요.

기대공2: 그러니 계속혁신, 계속전진이 좋긴 좋구나, 하하하.

기대공3: 우리한테도 과업을 주십시오.

은희: 이제 컴퓨터모의실험을 다같이 해보지요.

기대공들: 좋습니다. 야- (기뻐들 하며 들어간다.)

덕구: (들어오며) 저 동무들도 기분이 붕 뜬구만, 하하하.

은희: 어떻게 됐어요?

덕구: 동무의 의견에 당위원회에서도 찬성했소.

은희: 그래요?

덕구: 참, 은희동무가 잊지 못한다는 그 청년의 소식은 아직 모르나?

은희: 네.

덕구: 동무의 연구성파가 신문에 난걸 보면 찾아올텐데, 거참...

은희: 아직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했으니...

덕구: 이제 서로 만날 날이 있을테지...

은희: 그럴가요?!

덕구: 그렇다마다, 이제 두고보라니까.

△은옥 분석표를 쥐고 나온다.

은희: 촉매제효율이 어때?

은옥: (분석표를 내밀며) 불순물을 완전히 정제할것 같지 못해요.

은희: 뭐라구? (분석표를 받아보며) 정말이구

나. ...

덕구: 무슨 원료로 제조한거요?

은희: 합성직장의 폐설물로요. 어쩌면 좋담.

은옥: 안될걸 가지고 공연히 고생할게 있어요 뭐.

덕구: 그것참.

진혁: (나오며) 분석결과가 어떻습니까?

은희: 씨원치 않군요. (분석표를 보인다.)

진혁: 그렇다면 다른걸 찾아봐야지요.

은희: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다.)

덕구: 할수 없지.

△덕구 한숨을 쉬며 걸어나가는데 안경을 낀 정임 마주 들어온다.

정임: 직장장동지, 안녕하세요?

덕구: 아니, 우리 성규 담당지도교수선생님이로구만요.

은희: 선생님, 안녕하셔요. (인사한다.)

정임: 은희동문 연구성파가 대단하다지?

은희: 필요.

정임: 성규동무가 오지 않았어요?

덕구: 왔던걸 내가 다른 직장으로 떠밀어버렸수다.

정임: 성규동문 여기에 필요되는 촉매제를 갖다 주겠다면서 대학연구소로 갔답니다.

모두: (놀라며) 아니, 촉매제를요?

정임: 그 동무가 졸업논문으로 연구했던 촉매제예요.

은희: 그런걸 우리한테 주겠다는건가요? 어쩌면...

진혁: 그럴줄 알았더니까...

정임: 은희동무도 직장장동지도 아직 모르지요? 언젠가 사경에 처했던 은희동무한테 자기의 피까지 바치고 그후 귀중한 참고자료까지 보내준 청년이 바로 성규동무였다는걸 말이에요.

덕구: 아니, 우리 성규가요?!

은희, 은옥: 선생님! 그게 사실입니까?

정임: 그때 성규동무는 촉매제원천을 찾아다니던 길에 쓰러진 은희동무를 업고 병원으로 갔던 거랍니다.

모두: 예?

덕구: 그런걸 이 삼촌한테조차 말하지 않다니, 참.

은희: 어쩌면 어쩌면...(얼굴을 싸쥐고 흐느낀다.)

은옥: 난 그런줄 모르고...

진혁: 이젠 그 촉매제로 컴퓨터모의실험을 하면 되겠구만요.

은희: 아무러문요. 어서 모의실험준비를 해놓자요.

정임: 나도 좀 볼수 있을까요?

은희: 그러세요.

덕구: 선생님이 잘 도와주시우.

△은희, 덕구, 정임 들어간다.

진혁: 알고보니 은옥동문 앞으로 아저씨가 될지도 모를 성규동지한테 따벌처럼 쏘아뚫뚫구만.

은옥: 그러게 말이에요.

진혁: 나보고도 그러더니 따벌같은 그 성격 좀 고치라구. (들어간다.)

은옥: 맹꽁이같은 내 말을 듣고 언니까지 그 사람을 랭정하게 대했으니 이제 만나면 무엇이라고 용서를 빈담.

△이때 성규 배낭을 힘겹게 지고 숨가빠 들어온다.

은옥: (성규를 보자 어쩔줄 몰라하며) 어마나.

성규: 이젠 구면같은데 범 만난 토끼처럼 왜 그러오?

은옥: 저 저, 아저씨, 용서하세요. (울먹이며 절을 한다.)

성규: 뭐 뭐, 나더러 아저씨? 용서는 또 뭐요?

은옥: 방금 교수선생님한테서 지난날 언니를 구원해주었다는 말 다 들었는걸요. 전 그런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요. (성규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 내려놓으며) 언닐 데려올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황망히 현장으로 달려나간다.)

성규: 아니, 교수선생님이 끝내 그 사실을 말했단 말인가?! 이렇게 된바엔 은희동무를 끝까지 도와줘야지! 내가 가져온 이 효률높은 촉매제를 본다면 뒤늦게나마 은희동무도 동의해나설거야!

△ 이때 은희 달려나오다가 성규를 보자 무춤어진다.

은희: (반가움과 야속함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어쩌면 어쩌면 그럴수가 있어요. ... 인사가 늦어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성규: 고맙긴요. 난 그런 인사나 받자고 오진 않았습시다.

은희: 예?

성규: 전에 지나치게 말한걸 용서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촉매제를 받아주십시오.

은희: 어쩌면... (감동을 금치 못하며) 무슨 원료로 제조했는가요?

성규: (배낭을 헤쳐보이며) 《E》원료로 제

조한거요.

은희: (놀라며) 《E》 원료로요?!

성규: 그렇소. 이처럼 효율높은 촉매제로 정화시킨 첨가제를 쓰면 3등급은 조금도 섞어나오지 않을겁니다.

은희: 예?! (배낭에서 촉매제를 꺼내 만져본다.)

성규: 어떻습니까? 이걸로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은희: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다.)

성규: 그래도 응할수 없다는거요? 솔직히 대답해보요!

은희: (한동안 갑자르다가) 저, 솔직히 말해서 지난날 사경에 처했던 저를 소생시켜주고 오늘은 또 이처럼 귀한 촉매제까지 수고스럽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참말 미안하고 괴롭지만 동의할수 없으니 이해해주세요.

성규: (억이 막힌듯) 뭐요? 너무하구만. 너무하오. 그래 뭘 이해하란 말이요? 정말 동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허물어지니 이 가슴이 아프오!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은희: 그래서가 아니예요.

성규: 그럼 뭇때문에 동의할수 없다는겁니까?

△ 이때 덕구, 정임, 은옥, 진혁 나오다가 선다.

은희: 동무가 가져온 이 촉매제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매우 희귀한것이 아닌가요?

성규: 그렇지만 아낌없이 가져왔소. 제품의 질보장에선 동무가 도입한것보다 낫기때문에 말이요.

은희: 하지만 동의할수 없어요.

성규: 동무의 립장이 정 그렇다면 진혁동무와 같이 할테니 동문 개의치 마오. (배낭을 들고 나가려고 한다.)

은희: (배낭을 붙잡으며) 안돼요!

성규: 뭐요?

은희: 물론 이런 촉매제로 당분간은 비날론의 질을 100% 1등급으로 올릴수도 있을거예요. 하지만 그 희귀한 촉매제원료가 앞으로 고갈되면 어찌겠어요?

성규: 예?

은희: 그렇게 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원료에 기초한 주체비날론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아버지장군님께서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인 우리 2.8이 주체화, 국산화의 앞

장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계시는데 어차피 주체비날론에 다소나마 얼룩이 질게 아닌가요. 그걸 우리 비날론사람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거예요!

성규: 그래서 동의할수 없다고 했소?

은희: 네.

성규: 난 그것까진 미처 생각지 못했댔소. ...

정임: (성규앞으로 걸어나오며) 성규동무!

성규: 아니, 선생님.

정임: 그래서 은희동문 이곳에 흔한 폐설물로 촉매제를 제조했었어요.

성규: 아니, 폐설물로 말입니까?

은희: 하지만 아직... (고개를 숙인다.)

덕구: 걱정마오. 교수선생님은 은희공정기사 동무가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화, 국산화의 지향을 안고 시도한것이 좋다면 좀더 지혜를 합치면 가능할것 같다고 지지했다고요.

은희: 예? 선생님!

정임: 은희동무! 성규동무! 우리 함께 해보지요! (그들의 손을 쥔다.)

은희, 성규: 선생님!

은옥, 진혁: 해봅시다!

성규: 은희동무! 동무의 그런 마음도 미처 모르고 그만... 미안하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새로운 걸 탐구하고 창조해도 받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한점의 얼룩도 지지 않게 우리것으로 탐구하고 창조해나가는 비날론로동계급의 높은 정신력과 불타는 지향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은희: 성규동무! 같이 지혜를 합쳐 해보지요.

성규: 은희동무! (손을 굳게 잡는다.)

덕구: 아무렴 그래야지. 그러고보면 내가 소개를 하자던게 제대로 된셈이구만, 하하하.

은희: 아이참, 직장장동지도...

△ 모두 즐겁게 웃는다.

△ 이때 수직방사직장쪽에서 기적소리와 함께 자동차의 경적소리 울린다.

은옥: 저길 보세요. 야- 비날론섬유를 가득 실은 기차와 자동차들이 줄지어 떠나는군요!

모두: 정말.

△ 남녀기대공들 달려나와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성을 지른다.

은희: 앞으로는 한점의 티도 섞이지 않은 100% 1등급의 주체비날론숨만을 온 나라에 보내주자요.

△ 《비날론삼천리》 노래가 울리는 속에 막이 내린다.

실 고 가 다 오 실 고 와 다 오

위 명 철

강선의 밤노율이 불려온 이 아침
쇠물빛노을에 물든 레루를 딛고
출발을 서두르는 기관차
차판마다 듬뿍 실린 강재를 보며
수도건설장으로 바래우는 우리 마음 참으로 흥
그렇다

어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강재를 듬뿍 싣고 떠나더니
오늘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으로
우리들의 바래움도 받을새없이 떠나려느니라

언제나 강철무지 썩는 재미에 살며
거무튀튀한 강철을
가장 값진 재부로 여기며 사는 우리
너 떠나보냄을 락으로 여기며 살거니
진정 이런 때가 가장 궁지로운 때

정말 기쁘구나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꽃잎손 흔들리
강철지구 너인들 창문열고 손저어 바래주리
차판가득 실은 강재도
우리 마음 덧실어 단김을 확확 뿜는듯

아, 행복한 순간은 이런 때 아니라
구내가득 쌓인 강재 건설장이라 공장이라
이처럼 궁지높이 보내는 때가

이렇듯 바래움의 손 멋스레 흔들어보낼 때가

기관사여 기적을 크게 울려다오
떠나보내는것만큼 기쁨이 커지는
강선의 마음을 안고 떠나며
기쁨에 잠겨 바래우는 이 마음 안다고
그 쇠소리에 젖은 기적소리 길게 울려다오

그리고 싣고가다오
강재 가득 싣고가는 네 흐름 보며 살고싶어
창문도 너를 향해 내고 사는 우리의 마음을
철의 도시 사람들이
철과 한생 인연을 맺고 쇠물처럼 끓으며 사는
그 가식없는 진정을

이렇게 떠난 날 돌아온 날 많고많아
이 아침의 출발이 레사로울수 있어도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오려
쇠물처럼 산 마음들을 바래움에 담은
이 아침을 잊지 말고 싣고가다오

그리고 층층 높아질 살림집들이
하늘가득 메우며 솟아
강선의 쇠물빛노을이 창가에 비껴 집들이
키돋움하며 솟고솟는 소식을
돌아올 땐 돌아올 땐 차판가득 싣고와 알려다오
그 쇠소리에 젖은 기적소리!

여기도 내 고향이다 외 1편

홍 민 식

우중충 산발들이 둘러선
탄전의 저 산봉우리들
행군의 나날 넘나들던 그 산발인듯
가슴울리는 저 발파소리는
훈련장의 그 포소리인듯

내 처음 찾아온 고향이여도
탄전아 너는
어쩐지 낯설지 않구나
하늘가에 피는 저 노을마저
초소에서 바라보던 그 노을인양 정겹구나

오, 나는 제대병사
병사시절 그 나날 몸에 익힌것

산발을 날아넘던 걸음새만이었던가
눈덮인 전호가에서
심장으로 깨친것 그 무엇이었던가

내 병사시절 그 나날
조국의 귀중함을 알았고
조국의 부름은 곧 나의 생명이었나니
그 부름속에 내 가슴 넓어지고
그 부름속에 내 심장 불탔다
그 부름 떠나선 못살 나는 그대의 아들

병사시절만이라
그 부름속에 나의 삶이 있고
그 부름속에 나의 희망 나의 행복이 있어

초소의 령길을 내리는 길로
탄전아 너를 찾아 내가 왔거니

초소는 조국을 지키는 전조선이라면
탄전은 조국을 빛내는 전조선
내 한생 전조선에 살리라
거뭇한 산밭
나를 부르는 저 갯 저 석탄산
그 어느것 하나도 나와는 땡수 없는

소중한것으로 정답게 안겨오누나

나서자란 곳만이 고향이라
제대병사 나에겐
조국이 부르는 곳이면 그 어디나 내 고향
탄전아 나의 탄전아
내 삶이 뿌리내리고 꽃펴날
아, 여기도 내 고향이다

하얀 목수건

레복에 따르는 넥타이처럼
언제나 산뜻이
탄부레복을 받쳐주는
하얀 목수건

가뜩이나 림름한
제대군인총각의 그 모습을
한결 더 돋구어주네
탄전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며

맑은 날에도 꺾은날에도
눈이 시도록 백설갈고
막장 한끝에서도 먼저 어려오는
제대군인총각의 하얀 목수건
사람들 입을 모아 칭찬하네

제대군인이 다르다고
저렇듯 생활에서 빈구석을 모르니
석탄생산에서도 두릅세움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몰랐네
이웃중대 전차공처녀
남몰래 밤마다 하얀 목수건을
사랑에 행구고
정으로 말리고 다려주는줄

누구도 몰랐네
목수건에 때가 묻으면
그이 마음에 티가 끼는것 같아
탄전을 지켜선
제대군인총각의 깨끗한 마음에
순결을 더해주는 처녀의 옥같은 진정인줄

삼 식

부부사이의 언어체절

안해와 남편사이 부름말은 항상 정답고 부드러워야 한다.

갓 결혼했을 때 상대를 향해 《경수동무》, 《경숙이》라고 할수 있다.

갓 결혼후 생활의 첫 발자국부터 《여보》, 《당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는 능히 쓸수 있으며 또 그렇게 써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내 안해야.》, 《이 사람이 내 처야.》라고 하는것보다 이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좋다.

부모들앞에서, 동무들앞에서 자기 안해에 대하여 《어!》, 《여!》라고 부르면 안된다.

늙은 부부사이에 때로는 《령감》, 《로친네》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령감》, 《로친네》는 늙은 부부사이에 부르는 말이지만 그것을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귀에 거슬리게 들리기도 한다.

자기와 대등한 사이에서는 《령감》이라고 하고 웃사람인 경우에는 《령감님》이라고 대접하며 점잖게 불러야 한다.

《로친네》라고 부르는것은 대등한 나이의 허물없이 지내는 부인들이나 자기 남편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려도 허물이 없으면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러운감을 준다.

복 수 하 리 라

엄 정 호

차판마다 가득가득
비료를 실은 화차를 바래운 저녁
동무들아 오늘은 약속대로
마전유원지 무도장으로 어서 가자

얼마나 흐뭇하나
비료를 기다리는 농장벌들에
비료를 가득 보낸 이 저녁
래일은 더 많은 비료를 쏟아내자고
쿵쿵 압축기는 만바람 켜으며
벌써 무도장의 박자를 맞춰주는가

좋다 이런 저녁
통근열차는 마전으로 어서 가자 기적소리 울
리고
새 교대 친구들 수고하라고
남기는 인사 보내는 인사는
또 얼마나 살뜰한가

애국으로 불타고 열정으로 끓는 가슴들
보람찬 래일을 약속하는 퇴근길
방송에서 울려오는 방송원의 목소리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리명박역적패당들의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를 단죄하는 목소리

우리의 최고존엄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며 삶의 전부

우리의 최고존엄
그것은 목숨으로 지켜야 할 우리의 운명
누가 감히 그 삶 그 운명을 건드린단 말인가

어제는 《천안》 호사건조작으로
연평도포사격망동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던자들이
오늘은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새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거니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마냥
푼수없이 짖어대는 리명박역적패당들
잔명을 이어가려는 네놈들의 망동
우리 추호도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부르짖은 주먹들 수류탄마냥 굳어졌다
퇴근길은 교대없는 출근길로 이어지고
쿵쿵 만바람 켜던 압축기소리는
원췌들의 아성을 날려보낼 멸적의 포성인가
구내에 뻗은 은빛배관들은
포탄을 장탄한 포신인듯

오, 명심하라
리명박괴뢰패당들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린자들을
우린 용서치 않으리라는것을
자비를 모르는 우리의 선군총대는
기어이 복수하고야말리라는것을

소 개

조국해방전쟁과 시인 김복원

작가 김복원〔1911—주체73(1984)년〕은 해방전부터 시들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시인의 재능은 자기 조국이 없고 또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던 탓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시인은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자기 삶도, 창작의 보람도 마음껏 누릴수 있었다.

시인의 시들은 해방후에는 물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활발히 창작되었다.

시인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가요 《우리의 최고사령관》〔주체40(1951)년〕, 서정서사시 《락동강》〔주체39(1950)년〕을 비롯한 많은 시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수령결사옹위, 조국보위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선으로 파견된 종군작가들속에는 김복원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울을 거쳐 대전해방전투에 참가하여 그 력사적승리를 직접 체험한데 이어 락동강에 이르렀다.

시인의 창작활동은 종군작가생활을 시작하면서 활발해졌지만 락동강계선에 이르렀을 때부터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의 1계단시기 진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랑만적으로 노래한 김복원은 많은 시들에서 락동강을 시적대상으로 삼고 창작활동을 진행해나갔다.

서정시 《남해가 앞에 있다!》〔주체39(1950)년〕는 그 대표적실례로서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울부짖던 포화 멎은 약목나루의 밤
갈앉은 고요속에 떠오르는 달이 좋아
내 한결음한결음 산턱에 오르는데
문득 발아래 열리는 물줄기
《강이다》

공병삽을 들어 전호를 파다
이마에 돋는 땀 땀던
보병이 되뇌인다
《락동강이다!》

순간 보아라 유유한 흐름
수면에 번뜩이는 은빛 잔물살
나는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다
《왔구나... 락동강이다!》

...

락동강! 얼마나 오고싶던 강인가!
시인은 전사들의 끓어오르는 심정을 글줄마다에
옮기며 그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는 새로운 시
세계를 창조해나갔다.

...

내 모든것 잊고 강물에 뛰어들어
그 맑은 물 한껏 들이마시는데
심장을 때리는 타는 목소리
《전사여...
남해가 앞에 있다!》

락동강에 다달은 한순간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전사의 의무를 다시금 자각하게 하는 이 웨
침은 전체 인민군전사들을 최후결전으로 불러일으
킨 퇴성파도 같았다.

시인의 이러한 창작자세는 서정서사시 《락동강》에서도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수난의 강, 눈물의 강으로 불리우던 락동강, 이 락동강이 흐르는 남녘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판가리싸움에 펼쳐나선 인민군 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유의 새날이 밝아오고있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의의있는 생활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인민군전투원들과 함께 남으로 진격하면서 시창작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던 시인은 락동강계선에 이르러 새로운 체험에 기초하여 이렇듯 서정서사시 《락동강》과 같은 좋은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런이어 그는 여러 시들도 창작하였는데 서정시 《진격의 밤》〔주체39(1950)년〕, 《나를 로동당에》〔주체39(1950)년〕, 《전호속의 독보회》〔주체39(1950)년〕, 《령남 8월의 밤》〔주체39(1950)년〕 등은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로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김복원은 시를 짓는데서 언제나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의 각이한 형상을 통하여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나갔다.

시인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펼쳐지는 각이한 시적정황들을 서정시 《진격의 밤》, 《령남 8월의 밤》 등에서 세포위원장이라는 당원의 모습에 비추어 형상하였다.

시 《전호속의 독보회》에서는 전사들의 심장속에 원썩격멸의 불씨를 심어주는 세포위원장의 모습을 형상하였다면 시 《진격의 밤》에서는 돌격선의 제일용사가 되어 전투원모두를 남진의 길로 불러일으키는 철호—세포위원장의 또 다른 성격을 창조하였다.

이밖에도 시 《나를 로동당에》, 《령남 8월의 밤》 등에서는 전사들을 따듯이 돌봐주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친어머니같은 세포위원장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시인은 이렇게 작품들마다에서 인민군전사들을 조국보위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주인공—시인으로서의 심장속에 간직된 사상감정을 세포위원장의 모습에 비추어보이면서 참신한 시적화폭을 펼쳐나갔다.

시인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작은 전시가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다.

작품은 당시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수령흠모, 조국보위정신을 심어주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조선인민군의 한 부대가 주둔하고있는 월비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한 마을에서는 이동영사대의 영화상영이 시작

되었다.

이날 영화상영에는 종군작가였던 시인 김복원도 참가하게 되었다.

기록영화를 보며 인민군군인들은 련속 감탄하였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날 군인들의 한결 같은 소망에 의하여 영화는 다시 한번 상영되었다.

영화는 해방후 첫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펼쳐나 위대한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힘있게 관철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시인은 영화에서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고 저으기 흥분되지 않을수 없었다. ...

그날밤 시인은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다.

강철의 담력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우리 수령님. 시인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언제나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뵈옵고 또 뵈고싶었다.

작가는 뿔어오르는 창작적흥분을 누를길 없어 전호에서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부대는 원쑤를 부시고
들과 강물 산밭을 넘는다
나가는 진두에 언제나 그 모습
용맹을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후렴) 그이의 부름에 원쑤를 부시고
그이를 모시고 승리를 노래하리

이밤도 전우들 산밭에서 싸우며
동트는 고지에 군기를 날린다
피끓는 가슴들 우러러 서면
승리로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후렴)

용감한 인민군 미제를 물리쳐
승리한 그날엔 자유론 내 조국
끝없이 번영할 그날을 위하여

받들어나가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후렴)

단숨에 써내려간 작품에 같이 동행했던 작곡가 김원균이 곡을 붙였다. 하여 전시가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가사는 예술적으로도 비교적 잘된 작품이다.

우선 가사는 사상적내용에 맞게 서정구조를 치밀하고 간결하게 엮어나가고있다.

가사는 매 절에서 두행씩 짝을 무어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담하고 소박한 시어들로 격동적인 생활화폭을 펼쳐보였는바 그 화폭은 부대가 원쑤를 부시고 또 다른 고지로 떠나가는 모습이다.

그 진두에는 언제나 전사들을 용맹으로 부르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신다.

이렇게 가사는 정서적단락을 조성하며 동시에 그 의미의 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정서적내용의 상승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러한 서정구조가 짙은 정형물인 가사의 특성에 맞게 매 편에서 다 적용되고있으며 3절에 가서는 1, 2절의 감정이 더욱더 승화되어 완결된 사상을 터치였다.

매 절의 마지막행에 가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정서적고조점을 설정하여놓고 거기에 서정을 집중시킴으로써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체론적수법들을 널리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운률을 조성하고 시적표현을 강렬하게 하는데서 효과적으로 쓰여졌다.

시인 김복원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한 작품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김 철 룡

소 개

미철과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가들의 계급적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6)는 미국의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어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자들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부패

한 모습과 미국식생활양식확립과정 그리고 인간들의 비인간적본질을 인식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는 작품이다.

마가레트 미철의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1861—1865)이 시작된 1861년부터 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재건시대가 계속되어가던 1873년까지의 미국 남부주의 현실을 그려낸 소설이다.

소설의 제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두가지 심각한 뜻을 담고있다.

전쟁을 통하여 남부의 보수적귀족풍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적관계가 확립되었으며 양키식생활양식의 수립으로 하여 귀족의 낡은 생활방식만을 제거한것이 아니라 건전하고도 참된 인간생활, 인간관계마저 파괴하고 날려보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총적으로 소설은 미국남북전쟁시기와 그 이후시기를 배경으로 이 전쟁의 력사와 양키식생활양식의 비인간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시대의 변천과정을 미국남부 조지아주의 부유한 농장주의 딸딸 스카레트의 운명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소설은 남북전쟁시기를 전후로 미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팽폭한 부르쥬아성격의 소유자로 전변되는가 하는것을 주제로 하였다.

작품의 진보적측면은 무엇보다도 미국사회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인간들사이에 남에 대하여 야수가 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법칙에 기초하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부정적주인공들의 불행한 운명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팽폭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소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은 스카레트의 형상이다.

서로 더 많은 돈과 재부를 거머쥐기 위해 남을 물고뜯는 미국사회에서 스카레트가 의지할것은 인간적사랑보다 사기협잡과 략탈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재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동생의 약혼자도 가로채고 마음에 없는 남자와도 결혼하면서 필사적으로 타개책을 마련해간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스카레트가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파멸하고마는것으로 보여주었다.

작가는 스카레트의 불행이 인간다운 면모의 상실,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은 다음으로 남북전쟁과 그 이후시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고 당시에 빚어진 비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반동적본질을 폭로비판하였다.

작가는 미국에서의 남북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북방의 부르쥬아지와 남방의 대농장주들사이에 벌어진 피비린내나는 리권싸움이였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소설의 한 인물인 레트는 《모든 전쟁이 신성하

다는 외피를 쓴다. 그러나 용변가들이 제 아무리 그 어떤 고상한 목적을 가져다 붙여도 전쟁에는 오직 하나의 리유밖에 없다. 그것은 돈이다. 모든 전쟁은 실지에 있어서 돈싸움이다.》라고 당시에 벌어지고있던 전쟁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다른 인물 애슬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더러운 전쟁에 나와 싸우는가고 웨치면서 전쟁을 증오하고 반대해나서고있다.

소설에서는 자기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 지어 일혼살이 넘은 늙은이들과 소년들까지도 닥치는대로 전쟁에 내몰아 희생시키는 부르쥬아지와 대농장주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당시의 비참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예술적측면에서도 장편소설은 주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설은 녀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미국남북전쟁의 발발과 북부군의 남부침입, 남부군의 패배, 전쟁에 의한 파괴와 전후의 재건과 같은 력사적사변들을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그려냄으로써 봉건적인 체제가 허물어지고 략탈적인 신흥자본주의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당시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력사적내용을 반영한 소설로서 력사적사변과 인간생활의 호상관계를 특색있게 처리하고있다.

소설은 력사적사건을 이야기의 기본줄거리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당대의 력사와 그 움직임을 뚜렷하고 풍부하게 그리고있다.

또한 소설은 인간관계를 주인공을 중심으로 놓고 그 관계를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고있다.

기본인간관계는 스카레트를 중심으로 한 레트, 애슬리, 메라니사이의 관계이다.

사랑관계로 얹힌 이 인물관계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한 인물들인 스카레트와 레트, 낡은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슬리와 메라니로 명백히 두 집단으로 나뉘여져있다.

소설에서는 이 주요인물들의 사상정신적, 도덕률리적차이와 모순을 밝혀나감으로써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또한 소설은 성격을 개성화하고 묘사의 생동성을 보장하고있다.

허영심 많고 승벽이 세며 원하는것은 기어이 손에 넣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을 스카레트의 고유한 성격으로, 메라니에게는 선량성, 인내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성격발전과정속에서 심화발전시키고 개개의 인물들을 개성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은 대조와 파장 등 다양한 수법을 적용하여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다.

한 지붕에서 살아가는 스카레트와 메라니는 특히 대조적으로 자기들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전선원호기금을 모을 때 각기 자기들의 결혼반지를 바치는 스카레트와 메라니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며 인상적이다.

소설은 인간들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분석적이고 지성적인 묘사, 감각적이며 화폭적이고 립체적인 묘사를 하는데서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고있으며 대사와 내면독백을 통하여 인물들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많은 주의를 돌리었다.

특히 스카레트의 형상을 통하여 신흥부르쥬아지들의 지독한 기질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그것은 먼저 역사발전과 피압박인민대중의 해방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태도가 사회계급적으로 뚜

렷하게 표현되지 못한것이다. 전쟁의 결과에 남부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들이 노예적신분에서 해방된것은 력사적견지에서 진보적인것이였다. 하지만 작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찬동하지 않고있으며 또 일부 대목에서는 지어 남부의 농장주들의 몰락에 대해 애석해하는 립장도 나타내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리고 흑인들의 해방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녀주인공의 생활경로를 주로 따라가면서 그리다나니 예술적으로도 구성이 짜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황하며 인간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지지 못한 약점이 있다.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 당시의 력사를 생동하게 재현하고 소설창작에서 비교적 재치있는 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미국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알려지고있다.

김 정 호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10호 (루계 제768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0(2011)년	10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10월	5일		

7-16440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